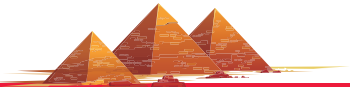




2022

이집트 개황



ARAB REPUBLIC OF EGYPT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이집트 지도



이집트 국기



- 1984년에 제정되었으며 붉은색은 혁명(반식민주의)을, 흰색은 영광을, 검은색은 종식된 과거의 암흑을 상징하며, 중간 황금빛 독수리는 12세기에 이집트와 시리아를 통치한 아이유브(Ayyubid) 술탄의 문장을 상징

CONTENTS

I

이집트 개관	8
--------	---

II

이집트 정세	1. 정치 체제	12
	2. 정치 정세	20
	3. 치안 정세	36
	4. 경제 현황	41
	5. 문화 현황	64
	6. 국방 현황	74

III

한·이집트 관계	1. 정무 관계	84
	2. 경제 및 개발협력	99
	3. 문화 협력	112
	4. 국방 협력	117
	5. 영사 및 재외동포	121

IV

이집트·북한 관계	1. 연혁	126
	2. 양국 관계 개요	127
	3. 주요 인사 교류 현황	129
	4. 이집트·북한 협정 체결 현황	132

V

참고자료	1. 아랍연맹 개관	134
	2. 주요 인사 인적사항	141
	3. 주요 연락처	153

VI

부 록	1. 여행 정보	160
	2. 이집트 역사	190
	3. 이집트 종교	199



I

이집트 개관

1 개 관



- 국 명 : 이집트아랍공화국 (Arab Republic of Egypt)
- 수 도 : 카이로
- 면 적 : 99만 7,739km² (한반도의 5배, 국토의 95%가 사막)
- 인 구 : 1억 275만 명 (2021.12.13)
- 민 족 : 이집트인(99.6%), 모로코·리비아·누비안·터키 민족(0.4%)
- 종 교 : 수니파 이슬람(90%), 기독교 10% (콥트교 비중 85%)
- 언 어 : 아랍어
- 정부 형태 : 대통령 중심제 (6년 중임제)
- 국가원수 : 압델파타 알시시 대통령
 - 총리 : 모스타파 마드블리
 - 외교장관 : 사메 슈크리
- 의 회 : 양원제
 - 하원 의장 : 하나피 알리 기발리 (2021년 1월 개원)
 - 상원 의장 : 압델 와합 압델 라제 (2020년 10월 개원)
- 경 제
 - ※ 이집트 회계연도는 매년 7.1.부터 익년 6.30.까지
 - GDP : 4,041억 달러 (2020/21 회계연도, 재무부)
 - 1인당 GDP : 3,982달러 (2020/21 회계연도, 재무부)
 - 경제성장률 : 3.3% (2020/21 회계연도)
 - 실업률 : 7.5% (2020/21 회계연도 1/4분기)

-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 8.0% (2021.9월)
- 무역 규모 : 교역량 994억 달러 (수출 286억 달러, 수입 707억 달러, 무역수지 420억 달러 적자) (2020/21 회계연도 추정치)
- 경상수지 : 184.36억 달러 적자 (2020/21 회계연도 추정치)
- 대외부채 : 1,234억 달러 (2020.6월 추정치, GDP의 34.1%)
- 외환보유고 : 409억 달러 (2021.11월)
- 주요 자원 : 원유(매장량 33억 배럴, 생산량 61.6만 배럴/일), 천연가스(매장량 77.2조 fm³, 생산량 65~70억 fm³/일)
※ 매장량은 2018.12월, 생산량은 2020년 기준
- 교 육 : 의무교육 9년, 문맹률 28.8%
 - 학 제 :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 대학 4년
- 휴무일 : 금·토
- 시 차 : GMT + 2시간 (한국보다 7시간 늦음)

II

이집트 정세



1 정치 체제



- 대통령 중심제

가. 대통령

- 임기 : 6년 중임제
- 지위 : 국가원수, 군 최고통수권자
- 권한
 - 총리 임명권, 법안 제출·거부권, 의회 해산권(국민투표 조건), 국민투표 회부권, 비상사태 선포권 등 권한 보유
 - 상원 의원 1/3 지명, 헌법재판소 및 사법기구 수장 임명, 부통령 임면권
- 대통령선거 입후보 자격
 - 이집트 국적 부모로부터 출생한 40세 이상 이집트 국적자
 -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현재 및 과거 외국 국적 보유 불허
 - 군필자 또는 합법적 군 복무 면제자
 - 의원 20명 또는 최소 15개 주(州) 유권자 25,000명의 추천

나. 총리

- 임명 절차 : 대통령이 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
- 권 한
 - 행정수반
 - 법안 제출권

- 대통령의 각료 임명, 비상사태 선포, 특별사면 등 관련 협의권
- 자격
 - 이집트 국적 부모로부터 출생한 35세 이상 이집트 국적자
 - 본인과 배우자의 외국 국적 보유 불허
 - 군필자 또는 합법적 군 복무 면제자

다. 의회

- 하원 의석수: 총 596석 (2020.10~12월 선거)
 - 개인후보제 448명, 정당명부제 120명, 대통령 지명(의석수 5%) 28명
- 상원 의석수: 300석 (2020.8~9월 선거)
 - 개인후보제 100명, 정당명부제 100명, 대통령 지명 100명
- 의원 입후보 자격
 - 하원 : 25세 이상 이집트 국적자
 - 상원 : 35세 이상의 대졸 이상 이집트 국적자로 각료직 겸직 금지
- 하원의 권한
 - 입법권
 - 국가 예산의 심의 및 승인
 - 총리 임명 및 조각에 대한 동의
 - 내각에 대한 정책 질의·토의·심의
 - 대통령 탄핵소추권
 - 대통령, 총리 및 각료에 대한 불신임권
- 상원의 권한
 - 입법권 없는 자문기관
 - 헌법 개정, 주요 경제·사회 정책, 영토주권과 관련된 사항, 대통령 요청 사항에 관한 자문 제공

라. 사법부

- 최고헌법재판소(Supreme Constitutional Court) : 위헌 법률 심사
- 일반 법원은 3심제로 구성
 - 대법원(Court of Cassation) : 최상급 법원
 - 항소법원 : 카이로·알렉산드리아 등 7개 구역 관할
 - 일반법원
- 국무원(Council of State)
 - 정부에 대한 법률 자문 및 법안 기초 업무 수행
 - 행정법원으로서의 역할 담당
 - 사법 부문(Judicial Division), 판결 부문(Opinion Division), 입법 부문(Legislative Division) 세 부문으로 구성
- 국가안보법원(State Security Courts)
 -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의 재판을 담당하는 상설 특별법원
- 기타 재판기구
 - 국가비상보안법원(Emergency Security Court) : 국가반역죄와 정치 범죄 등 심리
 - 윤리법원(Ethics Courts) : 부패와 횡령 사건 등 심리
 - 정당법원(Political Parties Court) : 정당 설립과 관련된 분쟁 심리
 - 군사법원(Military Judiciary) : 군인 범죄나 군대에 대한 범죄 심리
 - 종교법원(Shariah Court) : 이슬람법에 따라 이슬람교도의 신분 관계 심리
- 최고사법위원회(Supreme Judicial Council)
 - 일반법원의 행정, 법관 임명·승진 업무 담당
- 검찰
 - 이집트 헌법은 검찰을 사법부와 불가분의 일체로 규정

-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자 사법부의 한 부분이므로 검찰관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각 심급의 법원 검사국에 배치되어 재판관과 동일하게 사법관이라고 불림
- 검찰총장은 최고사법위원회가 선정한 후보 중 대통령이 임명(임기 4년, 단임제)
- 법관클럽(Judges' Club)
 - 카이로 및 지방 소재 법관 사교클럽이나, 대다수 법관들이 소속되어 정치적 영향력 보유

마. 이집트 정부 각료 명단¹

직책	성명
총리 겸 투자·행정개혁장관 (Prime Minister concerned with Investment and Administrative Reform)	Mostafa Madbouly
국방부장관 (Minister of Defence)	Mohamed Zaki
종교재산부장관 (Minister of Religious Endowment)	Mohamed Mokhtar Gomaa
청소년·체육부 장관 (Minister of Youth and Sports)	Ashraf Sobhy
주택·유틸리티부장관 (Minister of Housing, Utilities and Urban Communities)	Asem El Gazzar
전력부장관 (Minister of Electricity and Renewable Energy)	Mohamed Hamed Shaker
사회연대부장관 (Minister of Social Solidarity)	Nevine El-Qabbag (여)
환경부장관 (Minister of Environment)	Yassmin Fouad (여)
외교부장관 (Minister of Foreign Affairs)	Sameh Hassan Shoukry Selim
내무부장관 (Minister of Interior)	Mahmoud Tawfiq

¹ 총리 겸 투자·행정개혁장관 외 33개 부처(2021.12월 기준)

직 책	성 명
방산물자부장관 (Minister of State for Military Production)	Mohamed Ahmed Morsi
보건·인구부장관 (Minister of Health and Population) * 건강 사유로 Hala Mustafa Zaid 장관은 직무 수행 중지 상태	2021.12월 현재 공석 (* Khaled Abdel-Ghaffar 고등교육 과학연구부 장관이 겸임)
국제협력부장관 (Minister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Rania Al-Mashat (여)
문화부장관 (Minister of Culture)	Inas Abdel Dayem (여)
정보통신부장관 (Minister of Communication and IT)	Amr Ahmed Tallat
석유·광물자원부장관 (Minister of Petroleum & Metallurgical Wealth)	Tarek El-Molla
통상산업부장관 (Minister of Trade and Industry)	Nevine Gamea (여)
이민·재외국민부장관 (Minister of Immigration and Egyptian Expatriates Affairs)	Nabila Makram (여)
법무부장관 (Minister of Justice)	Omar Marwan
민간항공부장관 (Minister of Civil Aviation)	Mohamed Manar Enaba
재무부장관 (Minister of Finance)	Mohamed Maait
관개·수자원부장관 (Minister of Irrigation and Water Resources)	Mohamed Abd El-Atty
관광·문화재부장관 (Minister of Tourism and Antiquities)	Khaled Al-Anany
노동부장관 (Minister of Manpower)	Mohamed Saafan
국내물자·거래부장관 (Minister of Supply and Domestic Trade)	Ali Ali Moselhi

직책	성명
의회법제부장관 (Minister of Legal and the House of Representative)	Alaa Fouad
지역개발부장관 (Minister of Local Development)	Mahmoud Youssry Shaarawy
교육·기술교육부장관 (Minister of Education and Technical Education)	Tarek Galal Shawki Ahmed Shawki
농업·개간부장관 (Minister of Agriculture and Land Reclamation)	El-Sayed El-Qussair
고등교육·과학연구부장관 (Minister of Higher Education and Scientific Research)	Khaled Abel-Ghaffar
기획·경제개발부장관 (Minister of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Hala Al-Saeed (여)
공기업부장관 (Minister of Public Enterprises)	Hisham Tawfik
교통부장관 (Minister of Transportation)	Kamel Al-Wazir
공보부장관 (Minister of State for Information)	2021.12월 현재 공석 (조직 개편 논의 중)

바. 27개 주 현황

주	주도	면적(km ²)	주지사
South Sinai	El-Tor	31,272	Khaled Fouda Siddiq Muhammad
Qena	Qena	8,980	Ashraf Gharib Al-Daoudi Ibrahim Al-Hijawi
Red Sea	Hurghada	120,000	Amr Mohamed Hanafi Mahmoud
Kafr El-Sheikh	Kafr El-Sheikh	3,467	Jamal Nour Al-Din Muhammad Zaki
Port Said	Port Said	1,345	Adel Mohamed Ibrahim Youssef El-Ghadban
New Valley	Kharga	440,098	Muhammad Salman Musa Al-Zamlout
Sharqiya	Zagazig	4,911	Mamdouh Mostafa El-Sayed Ahmed Ghorab
North Sinai	Arish	27,564	Mohamed Abdel Fadil Shousha
Beni Suef	Beni Suef	10,954	Mohamed Hani Jamal Al-Din Ghonaim,
Luxor	Luxor	2,960	Mustafa Mohamed inspired Khaled
Daqahliya	Mansura	3,538	Ayman Abdel Moneim Mokhtar
Qalioubiya	Banha	1,124	Abdul Hamid Abdul Aziz Al-Hajjan
Alexandria	Alexandria	2,300	Mohamed El-Sayed Taher El-Sharif
Aswan	Aswan	62,726	Ashraf Attia Abdel-Bari
Suez	Suez	9,002	Abdel-Meguid Ahmed Abdel- Meguid Saqr
Ismailia	Ismailia	5,067	Sherif Fahmy Saad Bishara

주	주도	면적(km ²)	주지사
Assiut	Assiut	13,720	Asem El-Sayed Ibrahim
Giza	Giza	13,184	Ahmed Rashid Mustafa Otaify
Cairo	Cairo	3,085	Khaled Abdel Aal Abdel Hafez
Fayoum	Fayoum	6,068	Ahmed Abdullah Al-Ansari
Minya	Minya	2,262	Osama Mohamed Hassan Hassanein El-Kady
Marsa Matrouh	Marsa Matrouh	166,563	Khaled Shuaib Mahmoud Hussein
Menoufiya	Shibin El-Kom	2,499	Ibrahim Ahmed Ibrahim Al- Shahawi
Gharbiya	Tanta	1,942	Tariq Rashid Rahmi Muharram
Beheira	Damanhur	9,826	Hesham Abdel Ghani Abdel Aziz Amna
Damietta	Damietta	910	Manal Awad Mikhail
Sohag	Sohag	11,218	Tariq Muhammad Muhammad Al-Faqi



가. 국내 정세

1) 2011년 시민혁명에서 알시시 대통령 집권까지

■ 1·25 시민혁명과 모르시 대통령 집권

- 무바라크 대통령의 30년간 장기집권으로 부정부패, 높은 실업률 등의 경제난, 부정선거, 비상사태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왔으며, 2011.1월 튀니지 자스민 혁명이 일어나자 1월 25일 경찰의 날을 맞아 카이로 도심 타흐리르 광장에서 시위 발생
 -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무바라크 대통령 사임
- 군 최고위원회(SCAF : Supreme Council of the Armed Forces) 주도의 과도 정부가 들어섰으나 SCAF의 개혁 미진 및 군부의 영구 집권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정국 혼란
- 2011~2012년 실시된 선거에서 하원은 이슬람주의 정당이 70%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고, 상원에서는 83.3%의 의석 석권
- 2012년 이집트 역사상 처음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첫 민간인 출신인 이슬람주의자 모하메드 모르시 후보가 당선되어 2012.6.30. 공식 취임
 - 역대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아 내부 응집력을 갖고 있는 무슬림 형제단과 살라피스트 등 이슬람주의 세력은 빈곤층에 대한 기부(생활비 지원, 음식 제공, 무료 진료 등)를 적극 실시함으로써 국민 다수의 지지 확보
 - 특히 무슬림형제단원 중에는 중소기업인과 전문직이 많아 풍부한 자금력 보유

■ 6-30 혁명과 모르시 대통령 축출

- 무바라크 대통령 집권기부터 누적된 경제난(높은 실업률, 고물가, 휘발유·디젤유 부족, 전력난에 따른 잦은 장시간 단전)이 가중되자 국민들의 불만이 다시 고조되기 시작
 - 상황적 요인 : ①정세 불안에 따른 관광객 수 급감 ②투자 위축 ③ 경찰력 붕괴에 따른 치안 불안 등
 - 구조적 요인 : ①역대 정권의 과도한 보조금 지출에 따른 방대한 재정 적자 ②방만한 관료 조직 ③부정부패 등
 - 정치적 요인 : ①이슬람주의화 추진 과정에서의 독선과 이에 대한 세속주의 세력의 반발 ②국정 운영 및 행정 경험이 없는 모르시 정부의 무능 ③정부 기관 및 산업계 다수 세력의 비협조 등
 - 시민혁명 직후의 혼란을 틈타 시나이 반도에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월경 공격, 이집트-이스라엘 간 가스관 폭파, 이집트군 살해 및 장갑차 탈취 등 이슬람 테러 활동이 급증하자 모르시 대통령은 압델파타 알시시 군 정보부장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2012.8.12.)
- 모르시 대통령이 2012. 11. 22. 대통령에게 초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헌법 선언을 공포하자 이집트 전국 각지에서 격렬한 反모르시, 反무슬림형제단 시위가 촉발
 - 2012.12.26. 공포된 신헌법에 샤리아 원칙에 대한 정의 조항(수니파 이슬람이 수용한 증거, 규칙, 법체계 및 원천)이 신설됨에 따라 세속주의자들은 이슬람식 처벌 도입 가능성 우려

- 제1조 : 구정권에서 정무직 또는 행정직이 혁명 세력에게 자행한 테러 범죄와 시위대에 대한 살인, 살인 기도 및 상해 사건을 재조사·재소추
- 제2조 : 2012.6.30. 대통령이 취임한 후 동 대통령이 공표한 기존 헌법선언, 법률 및 대통령령은 신헌법 가결과 하원 구성 시까지 최종적이며, 이의제기는 일절 불가하고 사법부 결정에 따른 효력 정지 또는 취소도 불가
- 제3조 :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사법부 인사 중에서 4년 임기로 임명하며, 동 조항은 현 검찰총장부터 적용
- 제4조 : 2011.3월 헌법을 수정하여 제헌회의의 헌법(안) 제출 시기를 제헌회의 구성 6개월 내에서 8개월 내로 연장
- 제5조 : 사법부에 의한 상원 또는 제헌회의 해산 불가
- 제6조 : 대통령은 국가와 혁명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 이행 가능

- 2013.4월 5명의 청년 운동가들이 출범시킨 풀뿌리 운동 타마롯(Tamarod)²은 모르시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6월 30일 직전까지 2천만 명 이상으로부터 모르시 대통령 퇴진 요구 서명을 확보하고,³ 6월 30일에 맞춰 타흐리르 광장 등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반모르시 집회 및 시위 주도
- 2013.7.1. 압델파타 알시시 국방부장관은 정부와 반대 세력이 48 시간 내에 정치적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촉구하며, 질서 회복을 위해 군이 개입할 것을 경고하는 TV 및 라디오 성명 발표

2 반란·반역(rebel)이라는 뜻

3 위 서명 운동에 구국전선(NSF: National Salvation Front), 4·6 청년운동, 케파야 운동(Kefaya Movement), 강한 이집트당(Strong Egypt Party), 아흐메드 샤피크 전 총리(2012년 대선 결선 후보), 이슬라믹 지하드 전 지도자 나빌 나에엠 등 다양한 정파와 인사들이 참여·지지

■ 2013.7.3. 로드맵 공표

- 2013.7.3. 알시시 국방부장관은 TV 성명을 통해 모르시 대통령 축출 사실과 국정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 공표
 - 모르시 대통령은 공화국 수비대 본부에 연금되고, 무슬림형제단 주요 인사들은 체포됨.

2013.7.3. 로드맵

- 헌법 효력 정지
- 대선 조기 실시 및 아들리 만수르 최고헌법재판소장의 임시대통령직 수행
- 기술 관료 중심의 거국 신정부 구성
- 최고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의회선거법(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 후 의회 선거 실시
- 개헌안 준비위원회 구성
- 언론의 프로페셔널리즘을 보장하기 위한 언론윤리규정 제정
- 청년층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를 위한 조치 시행

- 7월 4일 아들리 만수르 최고헌법재판소장이 임시대통령(Interim President)으로 취임하여 임시정부의 권한,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개헌 절차 등을 규정한 헌법선언 공표
- 7월 24일 알시시 국방부장관은 TV로 생중계된 알렉산드리아주 군사관후보생 졸업식 연설에서 이집트 국민들이 7월 26일 거리로 나와 잠재적 폭력 및 테러리즘에 맞설 권한(mandate)을 위임해 줄 것을 호소하였으며, 이에 호응한 수백만 명의 인파가 거리로 나와 알시시 국방부장관과 군부에 대한 지지 의사 표명
- 7·4 헌법선언에 따른 개헌안 준비위원회가 발족되고,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 2014년 1월 18일 새 헌법 발효
- 대선 결과 96.91%의 압도적 득표율로 알시시 대통령 당선(2014.6.3.)

2) 알시시 대통령 집권 1기(2014~2018)

■ 정국 안정화

- 알시시 대통령은 취임 후 테러리즘과의 전쟁 및 정치 혼란으로 피폐해진 경제 회복을 최우선 국정운영 과제로 제시
- 알시시 대통령의 강력한 통치력을 바탕으로 2011년 시민혁명 이후 불안했던 이집트 정국과 치안 상황이 안정되기 시작
 - 2011년 혁명 이후 다년간의 정국 혼란에 피로감을 느낀 일반 국민은 알시시 대통령 취임 이후 정국이 안정되고 대규모 시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되자, 알시시 정권을 대체로 지지
 - 전 정권의 지지 기반이었던 무슬림형제단과 反알시시 세력이 군인·경찰을 대상으로 벌이는 폭탄·총격 테러는 간헐적으로 발생

■ 경제개혁과 경제개발 추진

- 알시시 대통령은 취임 후 국가 재건을 위한 성금 ‘이집트만세기금 (Long Live Egypt Fund)’ 창설⁴과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하면서 자신의 재산과 향후 급여의 절반을 헌납하겠다고 약속
 - 공공부문 근로자 기본급을 10% 인상하는 반면, 임시정부 당시 마련된 공무원 월급 상한제(42,000 EGP, 약 5,900달러) 시행⁵
- 정부 재정 상황 개선 및 경제 재건 재원 확보 등을 위해 소득세·주류세·담뱃세 등 증세와 연료·전기 등 각종 보조금 삭감 추진
 - 당시 이집트는 GDP의 88%가 공공부채이고, 외채 461억 달러, 재정 적자 292억 달러(GDP의 9.5%)로 예산의 약 1/4을 이자로 지출

4 이집트군은 1억 4,000만 달러 현금을 서약했으며, 대북 투자 기업인 나집 사위리스 OTMTI사 회장은 약 4억 2,000만 달러, 현대·기아차 수입·판매사 가부르 오토의 라우프 가부르 회장은 약 1,400만 달러 헌납

5 공공부문 최저임금을 월 1,200 EGP의 35배로 설정

- IMF는 이집트 정부의 자체 경제개혁 프로그램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2016.11월 이집트에 3년간 120억 달러 지원 결정
 - 이에 따라 이집트 정부는 변동환율제와 부가가치세 도입, 에너지·전기보조금 삭감 등 고강도 경제개혁 추진
- 고용 창출 및 경제발전을 위해 각종 대형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 환경 개선을 위해 신투자법(72/2017호) 발표
 - 제2수에즈 운하 개통, 새 행정수도 건설, 원전,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인프라(도로·철도·지하철 등) 개선사업 등 추진

■ 테러 발생 및 대테러전 지속

- 모르시 대통령 축출 이후 이집트 전역에서 테러 지속 발생
 - 민간인보다는 주로 이집트 군·경을 타깃으로 한 테러 지속⁶
- 이집트 정부는 2015.6.29. 히삼 바라캇(Hisham Barakat) 검찰총장 폭탄 테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반테러법(Anti-Terrorism Law) 제정(2015.8.17.)⁷
 - 테러 행위를 “무력을 동원하여 공중도덕을 저해하려는 행위”로 폭넓게 정의하고 형벌 강화
 - 테러법에 대한 신속한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특수법원 설치
- 2014.10.24. 북시나이주 군경 대상 대규모 테러로 30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북시나이주 가자 접경 지역에 대해서는 3개월 단위로 비상사태 선포 및 연장
 - 라파 국경 관문은 봉쇄한 후 간헐적으로 일정 기간 개방

6 2014.2.16. 시나이반도 타바(이스라엘과의 접경 도시)에서 한국인 단체관광객이 탑승한 버스에 자행된 자폭 테러(한국인 3명, 이집트인 버스 운전기사 1명 사망, 기타 다수 부상)의 경우, 범행을 자행한 안사르 베이트 알마크디스(ABM)는 이 테러가 이집트 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관광산업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고, 대상자(한국인 관광객)가 적 이스라엘로 건너가려고 했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소행을 정당화

7 2015.7~8월 중 반테러법안에 대한 반발(특히, 언론계)로 인해 이집트 내 협의 진행. 특히, 반테러법안 내용 중 “(제33조) 테러 활동 관련 언론인이 정부 발표와 다른 사실을 보도할 경우, 징역 2년을 부과”하는 내용에 대하여 이집트 언론계가 반발

- 대테러 정책의 일환으로 언론통제를 강화하여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일부 차단
 - 모르시 대통령 축출을 쿠데타라고 지칭하고 무슬림형제단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한 알자지라 방송에 대해서는 위성 송출을 금지하고 기자들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체포하여 징역형 선고

3) 알시시 대통령 집권 2기(2018~현재)

■ 재선 과정

- 알시시 대통령은 2018.3월 대선에서 유효 투표의 97.08%를 얻어 경쟁 상대인 무스타파 무사 엘가드(El-Ghad)당 대표를 이기고 재선에 성공

■ 집권 2기 국정 기초

- 테러리즘과의 전쟁과 경제개혁 조치 등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교육과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
 - 모스타파 마드불리(Mostafa Madbouly) 신임 총리(2018.6월 임명)는 2018.7.3. 의회에서 알시시 정부 2기 국정 기초(Egypt Kicks Off)를 발표, 2030 지속가능 개발 의제 달성이라는 비전 아래 ① 국가안보 및 외교 정책, ②시민 역량 제고, ③경제개발 및 정부 효율성 제고, ④ 고용의 질 개선, ⑤ 생활수준 개선 추진 등 강조
- 언론·문화·인터넷 통제 등 반정부 이슬람 세력 견제는 지속 강화
 - 언론 통제를 위하여 언론 매체 규율 및 미디어 매체 규율위원회법, 국가언론청 설치법, 국가미디어청 설치법 등 제정(2018.7.15.)
 - 신문, 방송, 5천 명 이상 팔로워가 있는 개인 블로그, 소셜미디어 등 각종 매체의 허위 뉴스 유포 금지 및 폭력·증오·인종차별 등 각종 선동 금지

- 언론인의 취재·면담·인터뷰 실시에 관한 사전승인을 확대하고, 규정 위반 시 언론인 처벌 등 명시

■ 헌법 개정

- 알리 압델 알(Ali Abdel Aal) 국회의장은 2019.2월 헌법 226조 및 의회 규정 제141조에 근거하여 재적의원(596명)의 1/5 이상이 서명한 헌법 개정 요청서를 접수하여, 개헌을 추진한다고 발표
- 2019.4월 국민투표 결과, 88.83%의 찬성(2,341만 6,741명)으로 개정 헌법안 가결
 - 대통령 임기 연장, 상원 설치, 의회·사법기관 등에 대한 대통령 권한 강화 등이 주요 내용

2019년 이집트 헌법 주요 개정 내용

- 대통령 임기 연장(현 4년에서 6년) 및 2018년 당선된 현 대통령의 임기는 새 헌법이 적용되어 2022년이 아닌 2024년 종료(새 헌법상 중임 가능 규정에 따라 재선 시 2030년까지 역임 가능)
- 의회(하원) 의석의 25%를 여성에게 배정
- 최소 180여 명으로 구성된 상원(Senate) 설치, 상원의원(임기 5년)의 2/3는 선출, 1/3은 대통령이 지명
- 사법기관의 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이 최고사법위원회 주재
- 헌법재판소장은 최장 근무 5명의 부소장 중 대통령이 임명
- 검찰총장은 최고사법위원회 추천 3명 중 대통령이 임명
- 대통령이 1명 이상의 부통령 임면, 일부 대통령 직무 위임 가능

■ 무슬림형제단 봉괴로 인한 국내 정국 안정

- 2013.12월 무슬림형제단을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활동금지·자산동결 조치하였으며, 2015년 반테러법 제정을 통해 국내외 무슬림형제단 진압 노력

- 2019.6월 모르시 전 대통령의 재판 중 사망, 2020.8월 카이로 교도소 내 복역 중이던 고위 무슬림형제단 지도자 사망, 2021년 Badie, Erian, Ezzat 등 고위 무슬림형제단 지도자 대다수 체포 등으로 무슬림형제단의 국내 지지 기반 붕괴
- 2020년 이후에는 주목할 만한 반정부 시위나 테러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국내 정국의 안정을 회복

■ 이집트 국가비상사태 종료

- 알시시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정권에 대한 최대 위협이었던 무슬림 형제단 진압에 성공하자, 2017.4월 이래로 3개월마다 연장해 오던 국가비상사태를 4년여 만에 종료한다고 선언(2021.10월)

나. 이집트 대외관계

1) 미국

- 미국 정부는 2013.7월 모르시 대통령 축출 이후 집권한 알시시 정부에 대해 이를 쿠데타로까지 규정하진 않았으나 미국 의회 일부에서 비판적인 입장이 제기되어 양국 관계에 미묘한 긴장 유발
- 2013년도 Bright Star 연합군사훈련⁸ 취소 및 1979년 이집트-이스라엘 평화협정 체결 이래 이집트에 제공해 오던 연간 15억 달러 규모의 원조(군사원조 13억 달러) 보류 등 발표(F-16 전투기, 아파치 헬기, M1A1 전차 부품 등의 인도 보류)
- 미국은 이후에도 이집트의 민주주의 및 인권 관련 조치들과 연계하여 군사원조 등을 보류해 왔으나, 이집트측이 NGO법 개정 등 일정 조치들을 꾸준히 취해 나감에 따라 군사원조 재개

8 1978년 캠프데이비드 합의 후 1980년부터 시작된 미국-이집트 연합훈련이며, 그 후 유럽 및 중동 국가들로 참가국 범위 확대

- 2019.4월 알시시 대통령의 미국 방문 등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양국 관계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만큼 좋은 관계 복원
 - 2020~2021년 이집트의 러시아 전투기(SU-35, 20대) 도입 추진 관련, 미국은 2017년 채택된 러시아·이란·북한 통합제재법(CAATSA :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에 따른 제재 가능성 지속 경고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이집트 민주주의 및 인권문제에 대한 압력이 예상되었으나 2021.5월 이집트의 가자지구(하마스)-이스라엘 간 휴전협정을 성공적으로 중재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중동평화 안정을 위한 파트너로 인정받으며 2021.11월 양국 간 전략적 대화 (Strategic Dialogue) 개최

2) 러시아

- 러시아는 모르시 대통령 축출 직후 임시정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초기부터 이집트와의 관계 급진전
- 알시시 대통령은 2014.8월, 2015.5월(전승 70주년 행사), 2015.8월, 2018. 10월, 2019.5월(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
 - 2015.2월 및 2017.12월 푸틴 대통령도 두 차례 이집트 답방
- 2015.10.31. 삼 엘 셰이크 출발 러시아 여객기 추락 사건으로 인해 양국 간 여객기 취항이 중단되었으나 2018.2월 카이로-모스크바 간 취항 재개
 - ※ 2018년도 이집트 방문 러시아인 : 약 100만 명
- 2015.11월 양국 간에 이집트 지중해 연안 엘 다바(EI Dabaa) 지역 원자력발전소 4기 건설 계약을 체결하여 2017.12월 푸틴 대통령의 카이로 방문 시 서명식 거행

3) 중국

- 이집트와 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알시시 대통령은 2014. 6월 취임 후 양자 및 다자회의 계기 총 6회 중국 방문
※ 시진핑 주석은 2016.1월 이집트 방문
- 중국은 이집트를 아프리카와 유럽을 연결하는 전략적 관문으로서의 입지 등을 감안하여 일대일로 구상의 파트너로 중시하고 있으며 이집트의 신형정수도 건설, 수에즈 특구 개발 등에도 적극 참여
-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관련하여 백신 공급 및 현지 생산(시노백) 등 보건협력이 활발히 진행 중

4)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및 쿠웨이트

- 2013.7.3. 모르시 대통령 축출 이래 상기 3개국은 이집트에 대한 대규모 원조 제공과 더불어 카타르 단교 등 대외정책에서 긴밀히 공조
 - 2014.6월 당시 3개국은 현금, 석유 제공 등의 형식으로 총 200억 달러를 이집트에 지원
 - ‘아랍의 봄’ 이후 왕권에 대한 위협이 된 자국 내 무슬림형제단 등 이슬람주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이집트와 함께 反무슬림형제단 진영 구성
- 특히, 사우디는 2015.3월 개최된 ‘이집트 경제개발회의(EEDC : Egypt Economic Development Conference)’에서 이집트에 40억 달러 지원 의사를 표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집트에 대해 재정 지원

5) 이스라엘

- 1979년 이집트-이스라엘 평화협정 체결 후 양국 평화 상태 지속
 - 동 평화협정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미국을 주축으로 한 시나이 정전감시단(MFO : Multinational Forces & Observers) 주둔

- 이집트 일반 대중들 차원에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보이는 차가운 평화(cold peace) 지속
- 1974년 이집트 및 이란의 제안으로 유엔 총회에서 중동 비핵지대(NWFZ : Nuclear Weapons Free Zone) 결의안이 채택된 이래 이집트는 아랍·중동 국가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NPT 가입 및 IAEA 사찰 수용을 지속 요구
- 이집트는 일련의 이스라엘-가자지구 교전에서 휴전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8년 대규모 시나이반도 대테러 소탕작전 등을 계기로 이스라엘군과 긴밀한 대테러 군사협력을 유지 중
- 2019.6월 오랫동안 공식이던 주이집트 이스라엘 대사 임명, 2021.5월 이스라엘 외교장관(13년 만) 이집트 방문, 2021.9월 이스라엘 총리(10년 만) 방문 및 2021.12월 이스라엘 총리 방문 등 양국 정부 간 교류 증대

6) 팔레스타인

- 이집트는 전통적으로 팔레스타인의 독립('Palestinian Cause') 노력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이 아랍평화 이니셔티브⁹를 수용할 것을 촉구
- 알시시 정부 집권 초기 무슬림형제단 분파인 하마스와의 관계가 경색되기도 했으나, 이후 중동에서 무슬림형제단 세력이 약화되자 모든 팔레스타인 정파들과의 접촉을 강화하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 중재자로서의 역할 수행
- 이집트-가자지구 연결 라파(Rafah) 통로 봉쇄 및 개방을 통한 영향력 행사
- 2014년 이스라엘-가자지구 교전 시 휴전 중재 노력 경주

9 2002년 베이루트 아랍정상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주도로 채택되고 2007년 리야드 아랍 정상회의에서 재확인된 것으로서, ①이스라엘의 모든 점령지로부터의 철수, ②서안지구 및 가자지구의 독립과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 ③팔레스타인 난민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조건으로 아랍-이스라엘 국교 정상화 제시

- 2021년 이스라엘-가자지구 교전 시 휴전 중재 노력 경주,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재건 이니셔티브(5억불 규모) 실시

- 팔레스타인 지지 차원에서 기존의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2국가 해결 방안 지지 입장을 유지하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협상 재개 등 중동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노력 중

7) 카타르 및 터키

- 카타르와 터키는 모르시 대통령 축출 후에도 무슬림형제단을 옹호하여 이집트와 긴장 상태 지속
- 2019.11월 터키-리비아 간 안보협력 및 해양관할권에 관한 MOU 체결에 대해 이집트는 동 협정이 리비아정치합의(LPA)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그리스·사이프러스 등과 공동 대응
- 2021년 들어 이집트는 카타르·터키와 관계를 개선하고 있는 중
 - 이집트는 2021.1.5. 사우디 주최 걸프협력회의(GCC) 정상회의에서 알울라(Ai Ula) 선언에 서명하고, 1.20. 카타르와의 외교관계 공식 재개
 - 터키와는 2021.5월 8년 만에 외교부 차관급 정무협의를 카이로에서 갖는 등 양국 관계 개선 중

8) 리비아

- 이집트는 2011년 리비아 카다피 정권 붕괴와 이집트 시민혁명 이래 이집트-리비아 접경 지역을 통한 불법무기 밀수 및 테러리스트 유입 차단에 안보 우선순위를 두고, 하프트라 장군이 이끄는 동부 세력 지지
- 그러나 리비아에서 무슬림형제단의 세력이 점차 약화되고, 이집트가 리비아 내 모든 정파와의 관계를 개선해 나감에 따라 이제 리비아 내 특정 인물이나 세력을 지지하지 않고 있으며, 리비아의 안정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치 프로세스 진전에 동참

9) 에티오피아

- 2011.4월 에티오피아가 수단 접경 15km 지점 청(靑)나일강에 대규모 수력발전댐(GERD)¹⁰을 착공하면서 이집트·수단·에티오피아 등 관련 3국 간 갈등 지속
- 2015.3.23. 3국 정상은 ▲상호 이해·공동이익·국제법에 근거한 협력 ▲수자원 활용 시 타국에 대한 중대한 피해 방지 ▲형평하고 합리적인(equitable and reasonable) 수자원 이용 ▲댐의 최초 저수 운영 정책 협의 ▲정보교환 ▲댐 안전 보장 ▲당사국 주권 존중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이 명시된 원칙선언협정(Agreement on Declaration of Principles) 체결
- 2019.11월~2020.2월간 미국 중재 아래 3국 간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어 최종안이 합의되었으나, 에티오피아측이 워싱턴에서 개최된 협정 서명식에 불참
- 2020.6월~2021.4월 아프리카연합(AU : African Union) 후원으로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3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된 후 아직 협상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10) 수단

- 1995.6월 아프리카단결기구(OAU :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정상회의 참석차 에티오피아를 방문한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 암살미수 사건에 당시 수단 정보부가 관여한 과거사 문제 보유
 - 무바라크 대통령 암살을 기도한 이집트 이슬라믹 지하드(EIJ : Egyptian Islamic Jihad)와 알가마아 알이슬라미야(al-Gama'a al-Islamiyya)에게 주에티오피아 수단대사관을 통해 무기 제공

¹⁰ 르네상스댐(GERD : Grand Ethiopian Renaissance Dam)은 에티오피아 북서부 청나일강(에티오피아, 수단, 이집트 관통)에 위치한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댐으로 총 저수량 740억m³, 발전용량 6,450MW, 높이 145m, 제방 길이 1,800m 규모

- 알시시 대통령이 집권하며 對아프리카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르네상스담(GERD) 이슈에 있어 수단 정부와 긴밀한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며, 양국 간 연합군사작전도 실시하는 등 관계 개선
- 이집트-수단 간 할라입 삼각지대¹¹ 영유권을 둘러싼 국경 분쟁 갈등 존속
 - 1990년대에 이집트가 할라입 삼각지대에 파병한 후 사실상 이 지역을 실효적으로 통치

이집트-수단 국경 분쟁¹²



- 11 영국-이집트령 수단(1899~1956)의 이집트와의 북위 22도선 국경선과는 별개로 1902년 영국이 당시의 실제 부족 분포 현황을 반영하여 설정한 행정 경계선(administrative boundary)으로 생성되고 영국-이집트령 수단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20,580km² 규모의 삼각지대로, 1956년 수단 독립 후 이집트-수단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
- 12 이집트는 북위 22도선 국경선을, 수단은 영국이 설정한 행정 경계선을 양국 간 국경선으로 주장하면서 할라입 삼각지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북위 22도선 국경선과 행정 경계 국경선 주장 차이로 발생한 비르 타월 지역(2,060km²)은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아 무주지 상태

11) 그리스 및 사이프러스

- 이집트는 그리스 및 사이프러스와 수시로 3자 정상회담을 하며, 동지중해 가스 협력 및 터키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차원에서 긴밀한 관계 유지

12) 유럽연합(EU)

- EU는 이집트의 최대 교역국이자 주요 원조 공여국
- EU는 모르시 대통령 축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2013.8.14. 이집트의 모르시 연좌 농성 유혈 강제 해산을 계기로 대규모 對이집트 제재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EU 회원국 간 입장 차이로 불발
- 이후에도 EU는 이집트의 반테러법 제정, 언론의 자유나 NGO 활동 제한 등 인권문제 발생 시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는 있으나 단합된 정책을 채택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가. 테러 동향

1) 테러 위험성 감소

- 2017년 이전에는 매년 수백 건의 테러가 이집트 본토 및 시나이 반도에서 발생하였으나, 2018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
- 2019년 이집트 본토 주요 테러 사건
 - 1. 5. 카이로 콥트 교회 폭발물 발견 (1명 사망)
 - 2.18. 카이로 알아즈하르 모스크 인근 자살폭탄테러 (2명 사망)
 - 4. 7. 카이로 경찰관 탑승 차량 총격테러 (2명 사망)
 - 5.19. 이집트 대박물관 인근 관광객 버스 폭탄테러 (17명 부상)
 - 8. 4. 카이로 국립암연구소 인근 차량 폭탄테러 (20명 사망)
- 2020년 이후 이집트 본토에서는 이슬람 테러 행위 무발생

2) 대테러 작전 지속

- 시나이 반도 북부에서는 IS 추종 테러단체인 ‘윌라얏 시나이(Wilayat Sinai)’ 등이 습격·납치·IED 공격·자살폭탄테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테러를 자행했으나, 2018.2월 개시된 이집트 정부의 대규모 대테러 작전(Operation Sinai 2018) 등으로 2021년 들어 테러 활동 위축

3) 콥틱 기독교인 상대 테러 감소

- 2013년 모르시 대통령 축출 후 무슬림형제단 측에서 콥트 교회를 상대로 대규모 폭탄 및 총격 테러를 자행했으나 2020년 이후에는 콥트교도 대상 테러 무발생

- 콥틱 기독교인 상대 주요 테러 사건
 - 2016.12. 카이로 콥트 교회 폭탄테러 (25명 사망)
 - 2017. 4. 탄타, 알렉산드리아 콥트 교회 연쇄폭탄테러 (47명 사망)
 - 2017. 5. 미니야 지역 콥틱 기독교인 탑승 버스 총격테러 (28명 사망)
 - 2017.12. 헬완 지역 콥트 교회 총격테러 (10명 사망)
 - 2018.11. 미니야 지역 콥틱 기독교인 탑승 버스 총격테러 (7명 사망)
 - 2019. 1. 카이로 콥트 교회 폭발물 해체 중 폭발 (1명 사망)

4) 국가비상사태 해제

- 이집트 정부는 2017.4월 탄타 및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콥트 교회에서 발생한 연쇄폭탄테러(45명 사망) 직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으나, 치안 정세가 안정됨에 따라 2021.10.25. 국가비상사태를 해제

나. 일반 치안

1) 치안 정세

- 2011년 시민혁명 이후 일반 범죄가 증가했으나 2014년 이후 경찰력 강화로 범죄율은 하락 추세이며, 최근 외국인 거주지에서 범죄 발생 빈도 역시 하락
 - 주로 주차된 차량 내 가방 절취, 오토바이 날치기, 관광객 상대 소매치기 등 발생
- 2019년 세계경제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이집트는 국가 관광경쟁력 평가 안전 분야(Safety & Security)에서 140개국 중 112위를 기록하여 2015년 136위보다 개선

2) 불법무기 유통

- 2011년 시민혁명 등 소요 사태 당시 이집트 군경의 무기가 다량 탈취되었으며, 2011년 리비아 사태 직후 다량의 무기가 이집트로 불법 유입되어 현재까지도 많은 무기가 미회수 상태인 것으로 추정

불법무기 유통 관련 이집트 경찰 비공식 자료

- 2011년 소요 사태 당시 전국 40여 개 교도소에서 수감자 2만 3,710명이 탈옥하고 99개 경찰서 등 총 177개 보안시설이 습격당해 다량의 무기가 탈취된 상황
- 탈옥수 1만 9,890명을 검거하고 권총 155정, 소총 1만여 정과 실탄 등 무기류 총 150만 정 회수

- 주이집트 미국대사관 지역보안담당관에 따르면, 2021.3월 이집트 군경은 이집트 전역에서 불법 무기 공장 17곳을 수색하여 5,285점의 총기류를 압수(이집트 경찰에서는 구체적 정보 미공개).

3) 반정부 시위

- 2013.7월 모르시 대통령 축출 이후에도 매년 시민혁명일(2011.1.25.) 전후로 대규모 시위 발생(2013년 4명, 2014년 49명, 2015년 17명 사망)
- 2019년 소규모 반정부 시위가 한두 건 발생했으나 시민들의 동조를 얻지 못해 단시간에 종료되었으며, 2020년 이후 반정부 시위는 없는 것으로 파악

다. 우리 국민 이집트 방문객과 여행경보 단계

1) 우리 국민 이집트 방문객 통계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방문자 수(명)	11,261	11,475	20,488	31,946	13,358

출처 : 이집트 관광부

2) 여행경보 단계

- 2014.2월 시나이 반도 북부 접경 도시 타바에서 우리 국민이 탑승한 관광버스 대상 폭탄테러 발생(우리 국민 3명 사망, 16명 부상) 직후 시나이 반도 전역(샤름 엘 셰이크 제외)에 특별여행경보(즉시대피)가 발령되었으나, 치안 상황 안정에 따라 2019.12.3. 시나이 반도 특별 여행경보 해제
- 2022.1월 기준 이집트 여행경보 현황

여행경보 단계	해당 지역
적색 경보 (철수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나이 반도 전역(샤름 엘 셰이크 제외) • 이집트-리비아 국경 100km 이내
황색 경보 (여행자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타 이집트 전역

-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및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전 국가·지역에 대한 특별 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상황(2020.3월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장 중)

이집트 여행경보 현황





가. 개 관

- 이집트 주요 경제 지표
 - GDP는 4,041억 달러, 외환보유고 409억 달러(2021.10월)
 - 연간 교역량 994억 달러 달성(FY 2020/21 잠정)
 - 2020/21 회계연도 경제성장률 3.3%
 - ※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대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 실현
 - 2020/21 회계연도 1인당 GDP 3,982달러(2021.10월)
 - 2020/21 회계연도 경상수지 184.36억 달러 적자(GDP의 약 4.5%)
- 산업 구조 : 농업 23.29%, 광공업 28.16%, 관광/서비스 48.55%
(2020년 기준)
 - 이집트의 주요 산업인 관광산업은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100억 달러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여 왔으나, 2011년 시민혁명과 2015.10월 러시아 여객기 추락 사고로 관광 수입이 급감(2016/17 회계연도 43억 달러). 이후 관광이 서서히 회복되어 2018/19 회계연도 관광수입 125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코로나19 등장으로 2020/21 회계연도에는 다시 48억 달러로 급감
 - 수에즈 운하 통행 수입은 제2운하 준공 후에도 세계무역 회복 지연으로 2018/19년 회계연도에 57억 달러로 전 회계연도 대비 15.4% 증가에 그쳤으며, 코로나19 등장 이후에도 2019/20 회계연도 58억 달러, 2020/21 회계연도 59억 달러로 소폭이긴 하나 증가세
 - 해외 거주 이집트인들의 모국 송금 규모는 2018/19 회계연도 251.5억 달러로 전년도 263.9억 달러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감소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이집트 정부와 언론의 예상과 달리 오히려 2019/20 회계연도에 277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2020/21 회계연도에도 314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14.6월 출범한 알시시 정부는 침체된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경제개혁 조치, 외국의 경제 지원 및 투자 유치 확보를 위해 이집트 경제개발회의(EEDC), 순방 외교 등을 활발히 전개하였으며, 2016.2월 이집트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SDS)으로서 경제, 에너지, 도시 개발 등은 물론 삶의 질, 평등, 건강과 교육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국가 발전 및 도약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Vision 2030’을 발표하는 한편, 아래 사업 추진에 중점
 -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추진
 - 국내 산업 보호 및 외환 부족 해결을 위한 수입억제 조치
 - 각종 보조금 제도의 개선과 세제 개편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
 - 실업률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
 - 낙후된 시나이 반도 및 남부 이집트 지역 개발
- 이집트는 경제협력 다변화, 아랍 등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등을 위해 다자 및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제 구축
 - 남동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1994), GAFTA(아랍권 FTA, 1998), EU-Partnership(2004), 러시아(2005), 터키(2007), EFTA(2007), Agadir(지중해 아랍국가 간 협정, 2006), Mercosur(2017) 등 50여 개 나라와 자유무역협정 체결(2019.12월 기준)
 - 2004.12월 이집트·이스라엘·미국 3자 간 ‘QIZ(Qualified Industrial Zone) 협정’ 체결(부분적으로 FTA 기여)
 - EU와는 2004년 체결한 이집트-EU 자유무역협정(일명 Association Agreement) 2010.1.1. 발효 및 EU-지중해연합(2008.7월) 등에 의거 포괄적 경제협력 관계 유지
 -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기본협정이 2019.4월 발효되었고, 상품 분야 시장 접근 협상 진행 중
 - Eurasia Union과 FTA 협상 진행 중
- 2015년 매장량 30조 입방피트의 초대형 가스전(Zohr) 발굴 후 이스라엘 및 사이프러스와 가스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동지중해가스포럼

(EMGF)¹³ 발족을 주도하여 역내 가스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 지속

- 이집트는 2018.9월 가스 자급자족 선언 및 유럽 가스시장 진출을 위한 활로를 모색 중이며, 다미에타(Damietta)와 이드쿠(Idku)에 기존 보유하고 있던 가스시설을 재가동하여 2021년 2/4분기에는 140만 톤(아랍 산유국 전체 가스 수출량의 5%)의 천연가스를 해외 수출

※ British Petrol에 따르면 이집트가 보유한 천연가스 총 매장량은 2.1조 m³ (≒ 77.2조 입방피트) 상당

- EMGF는 카이로에 본부를 두고 향후 ▲회원국 간 에너지 분야 정책·전략 협력 ▲기술 교환 및 무역 ▲인프라 개발 ▲사업 발굴 자금 지원 ▲잠재적 가스전에 대한 지질탐사 정보 공유 ▲가스전 소유권 협의 등 다양한 이슈에서 협력할 예정

나. 이집트 경제 동향

1) 거시경제 동향

■ 경제성장

- 2011년 시민혁명 후 5년여에 걸친 정치·경제적 불안 상황에서 벗어나 경제회복, 해외투자 유치, 경제·재정 개혁 노력을 통해 2018/19 회계연도에 5.6%의 경제성장을 달성(재무부 발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19/20 회계연도에 3.6%로 크게 감소하고, 2020/21 회계연도에도 3.3%로 0.3%p 감소했으나 역내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생산 달성
-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관광업과 제조업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2021/22 회계연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9.8%로 단일 분기 성장률로는 20년 내 최대치

13 이집트·이탈리아·이스라엘·사이프러스·그리스·팔레스타인·요르단 등 7개국 간 천연가스 생산·판매·제도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결성된 회의체로, 카이로에 본부를 두고 매년 정례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21.9월 공식 국제기구로 출범

- IMF는 2021/22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이 5.2%가 될 것으로 전망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4.3	4.2	5.3	5.6	3.6	3.3

출처: 이집트 재무부

- 국제신용기관 무디스는 2015.4월 이집트의 신용등급을 4년여 만에 B3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2019.4월 B2로 추가 상향 조정하고, 경제 전망을 '안정적(stable)'인 것으로 평가하고 현재까지 유지 중
 - 이집트 정부가 지속적인 경제개혁 의지를 갖고 있어 정부 재정 상태를 점진적으로 개선시키고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보면서, 금융 및 은행 분야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가 외부 자본 유출입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것이라고 평가
- 피치사는 2019.11월 이집트 장기 신용도를 B+로 유지하며 경제 전망을 안정적이라고 발표한 후 현재까지 유지 중
 - 이집트가 경제개혁을 착실히 이행하며, 거시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면서도 ▲여전히 높은 재정적자 수준 ▲GDP 대비 높은 부채 비율 ▲낮은 행정 수준 ▲정치적 위험도를 신용도 저해 요인으로 지적

■ 물가

- 이집트의 물가상승률은 2016.11월 IMF 구제금융 도입 및 변동환율제 실시 이후 2017년 34.2%까지 치솟았다가 지속 하락하여 2019.10월 2.4%로 10년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2021.9월 8.0%까지 상승

연 최저 소비자 물가지수 동향

(단위 : %)

2016.3월	2017.7월	2018.5월	2019.10월	2020.9월	2021.4월
9.2	34.2	11.5	2.4	3.3	4.4

출처 : 이집트 재무부

■ 국제수지

- 2020/21 회계연도(2020.7.~2021.6.) 교역량은 994억 달러(무역적자 420억 달러, GDP의 10.4%)
- 이집트는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 국가로 부족한 외화를 서비스수지(관광, 수에즈 운하 통행료) 및 이전수지(해외 근로자 송금, 해외직접투자) 흑자로 보전
 - 2010/11 회계연도 106억 달러였던 관광수입은 정세 불안, 러시아 항공기 추락(2015.10월), 빈번한 테러 발생 등으로 크게 위축되었다가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하여 2018/19 회계연도(2018.7~2019.6월)에 125억 달러로 혁명 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21 회계연도에 48억 달러로 다시 급감
 - ※ 코로나 이전 관광수입이 전체 서비스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였으나 현재는 30%
 - 2020.7월~2021.6월간 해외 근로자로부터의 국내 송금액은 314.25억 달러로 전년 동기 277.58억 달러 대비 약 13.2% 증가
 - 수에즈 운하 수입은 2018/19 회계연도 57억 달러, 2019/20 회계연도 58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제2운하 건설 및 통행료 인하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회복 부진에 따른 무역량 감소로 운하 통행 수입 증가 속도가 미미했으나,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2020/21 회계연도에는 오히려 59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최근 북극항로 개척이 언론에 자주 언급되는 가운데, 2021.3월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되어 물류대란을 일으킨 에버기븐호 사건 이후 많은 해운사들이

수에즈 운하를 대체할 만한 항로를 적극 모색하자, 수에즈 운하청은 통항료 인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주요 외화 수입원인 수에즈 운하의 이용 고객을 지속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 실업률

- 2014/15 회계연도 12.8%에 달하던 실업률은 2018/19 회계연도 4/4 분기에 2011년 이래 최저 수준인 7.5%를 기록하였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2/4분기 9.6%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다시 하락하여 2021년 3/4분기에는 7.5% 기록
- ※ 전체 인구 중 노동인구는 28.7%이며, 민간 분야 일자리 창출은 취약

연도별 실업률 추이

(단위: %)

구 분	2019	2020	2021(1Q)	2021(2Q)	2021(3Q)
실질 실업률	9.7	7.9	7.4	7.3	7.5

출처: 이집트 재무부

2) 미시경제 동향

■ 환 율

- 2016.11월 IMF 구제금융 지원 체제 하에 놓이면서 IMF의 권고사항 중 하나인 변동환율제를 도입함에 따라, 1달러당 이집션 파운드화 (EGP)의 가치는 2016.10월 8.8 파운드에서 2016.12월 19.1파운드까지 하락하였으나 2017.7월 17파운드대를 거쳐 2019. 5월 16파운드대, 2019.12월 15파운드대에 들어서며 점차 가치가 안정적으로 상승

미 달러 대비 월별 평균 환율 추이

(단위 : EGP/USD)

2015/16	2016/17	2016.12월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11월
8.15	14.72	19.1	17.77	17.66	16.13	15.77	15.75

출처 : 이집트 중앙은행

■ 외환보유고

- 2010년에는 360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했으나 2011년 혁명 이후 외환 보유고가 200억 달러를 하회하였으며, 2013.7월 모르시 대통령 축출 후 사우디·아랍에미리트·쿠웨이트 등 걸프 국가들로부터 120억 달러 원조를 수령하였다가 각종 수입억제 정책과 금리인상, IMF 구제금융 지원 등으로 인해 외환보유고가 증가하면서 2020.2월 455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이후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급감하였으나 최근 다시 증가
 - 코로나19가 이집트에 확산되기 시작한 2020.3월 401억 달러로 급감한 후 5월 360억 달러까지 감소하였으나, IMF의 신속금융(RFI) 27.7억 달러 지원(2020.5월), 대기성차관(SBA) 52억 달러 지원(2020.7월) 및 봉쇄조치 해제로 인한 관광 회복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021.10월 외환보유고는 408억 달러를 기록

외환보유고 추이

(단위 : 억 달러)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20.2월	2020.5월	2021.10월
200.82	175	313.05	442.59	455.10	360.04	408.49

출처 : 이집트 중앙은행

■ 금 리

- 이집트 중앙은행 산하 통화정책위원회(Monetary Policy Committee)는 IMF 위기 이후 19.25%(2017.7월)까지 인상되었던 금리를 2018년 두 차례(2% 인하), 2019년 4차례(4.5% 인하), 2020년 3차례(4.0% 인하)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현재 기준금리는 8.75%(예금금리 8.25%, 대출금리 9.25%)

■ 재정수지

- IMF는 2021년 세계 경제성장 전망을 6%에서 5.9%로 하향 조정한 후 발표한 Fiscal Monitor Report에서, 이집트 재정적자가 2021/22 회계연도에도 최근의 감소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나, 앞서 내놓았던 이집트 GDP 대비 재정적자의 비중 예상치는 당초 5.8%에서 6.3%로 상향 조정하고, 2025/26 회계연도 재정적자도 작년 전망치 3.8%에서 4.4%로 상향 조정

재정수지 동향

(단위 : 억 EGP, %)

구분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적자 규모	3,394	3,795	4,325	4,299	4,627	4,755
GDP 대비	12.5	10.9	9.7	8.1	7.8	6.7

출처 : 이집트 재무부

■ 정부 부채

- 2016/17 회계연도 GDP 대비 108%(3조 7,487억 이집션파운드)에 이르던 정부 총부채 규모는 2017/18 회계연도 97.3%(4조 3,154억 이집션파운드)를 거쳐 2020/21 회계연도 90.6%(잠정)를 기록
- ※ 이집트 정부는 2022년까지 정부 부채를 GDP 대비 80%까지 축소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으며, IMF는 이집트 정부 부채가 2025년 GDP 대비 78.2%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국내 채무는 2019.12월 기준 4조 1,124억 이집트파운드로 2018/19 회계연도의 3조 8,291억 이집트파운드 대비 다소 증가
- 대외 부채는 2020. 6월 기준 1,234억 달러로 2018/19 회계연도 말 1,086억 달러 대비 13.6% 증가
 - ※ 2020. 6월 기준 대외 부채 비율은 GDP의 34.1% 수준
- 정부 외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0.6월 기준 19.2%

■ 구매관리자지수(PMI)

-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HS Markit가 매달 발표하는 이집트의 비석유 부문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0포인트를 넘은 적은 2016.11월 IMF 구제금융 지원 체제에 놓인 이후 9차례에 불과
- 이는 민간 부문의 상품 주문과 판매가 저조하며, 경기가 위축되어 있다는 의미
 - ※ PMI 지수는 50포인트를 기준으로 그 이상일 때 제조업 확장, 이하일 때 제조업 수축의 지표로 활용

다. 대외경제협력 경제개발 정책

1) 대외경제협력

■ 사우디아라비아

- 알시시 대통령이 2013. 7월 모르시 정부를 축출하자 사우디는 아랍 에미리트·쿠웨이트 등과 함께 120억 달러의 긴급원조를 지원한 데 이어, 2015.3월 이집트경제개발회의(EEDC)를 제안하여 아랍에미리트·쿠웨이트·오만 등과 125억 달러(현금 60억 달러 포함) 추가 지원
- 이집트에게 사우디는 아랍권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2020년 양국 간 교역 규모는 55억 달러로 사우디가 약 21억 달러 흑자를 유지하며, 2020년 한 해 對이집트 투자 규모는 총 14억 달러를 기록

- 양국은 최대 전력 소비 시간이 서로 다른 점을 활용하여 16억 달러 규모의 전력연계사업을 2024년 가동을 목표로 추진 중

■ 러시아

- 양국 간 교역 규모는 2020년 기준 45억 달러로, 對이집트 무역은 러시아의 對아프리카 교역량의 약 83%을 차지하며, 러시아의 對아랍 교역량의 약 33%를 차지
 - 이집트는 세계 1위의 밀 수입국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 밀이 이집트 밀 수요의 85%를 담당
- 러시아는 이집트의 최대(연 300만 명) 관광객 송출국이나 2015.10월 샤름 엘 셰이크를 출발한 러시아 여객기가 시나이 상공에서 추락한 후 이집트에 대한 항공기 취항을 금지하였다가 2018.4월 카이로~모스크바 직항편 운항을 재개하였으며, 2021.8월 후르가다와 샤름 엘 셰이크~모스크바 노선도 6년 만에 운항 재개
- 2019.1월부터 이집트-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간 FTA 협상이 진행 중
 - ※ 2020년 이집트-EAEU 회원국 간 무역 규모는 46억 달러
 - 러시아는 이집트의 FTA 네트워크, 특히 이집트-EU FTA를 활용해 러시아 상품을 유럽 시장에 진출시키려는 목적으로 이집트를 공략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동아프리카 공동체(EAC) 등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 경제 기구들과의 FTA 추진도 모색 중이며, 이집트를 아프리카 진출의 관문으로 공략할 가능성도 존재
- 지중해 연안 엘 다바 원전 4기(1,200MW급)를 러시아 로사톰(Rosatom)사가 건설하기로 합의(2015.11월)했으며, 2019년 부지 내 토목 공사과 인프라 건설을 진행하였고 2028년 첫 번째 원자로 시가동을 목표로 2022년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 2030년 사업 완료 계획

- 양국은 지난 20여 년간 이집트 내 러시아 산업단지 조성을 논의해 오다 최근 결실을 맺게 되었는데, 현재 최소 25개의 러시아 기업이 입주를 확정된 상황
 - 러시아가 해외에 최초로 건설하는 러시아 산업단지는 2016년 양국 산업부 간 MOU 체결을 통해 설치에 합의했으며, 이집트의 수에즈 특별경제구역청과 러시아수출센터(Russian Export Center)가 담당 기관으로 러시아 기업의 입주를 돕는 중 (러시아수출센터는 현지법인 설립)

■ 중국

- 2012년 이래 이집트의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양국 간 2020년 교역량은 145.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34% 증가하였고, 2020년 중국의 對이집트 투자액은 1.9억 달러를 기록
 - 중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이집트의 對중국 수출은 9.2억 달러로 전년 대비 7.84% 감소하였고 수입은 136.4억 달러로 11.83% 증가했으며, 전체 교역량이 2015년을 제외하고 지속 증가 추세
- 양국은 중국-아랍협력포럼(CASCF),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FOCAC) 등 다자 메커니즘을 통해서도 협력 관계를 확대 중이며, 이집트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초기에 참여한 국가 중 하나로, 수에즈 운하를 보유한 장점을 내세워 중국 기업들과의 교류를 적극 추진
- 중국 TEDA(톈진 경제기술개발지구) 사가 수에즈 경제특구에 중국-이집트 공동경제구역(SETC-Zone)을 조성 중
 - 수에즈 운하 남부 입구에서 45km, 카이로에서 110km 떨어진 지역에 현재 1단계로 1.34km² 면적의 공동경제구역이 만들어져 65개 기업이 입주, 10억 달러가 넘는 투자를 유치했으며 현지인 1,000명 고용 효과 창출, 현재 다음 단계(6km²) 공사 진행 중
- 이 밖에 이집트의 신행정수도 내 상업지구 건설, 교통 인프라 구축, 전기차 현지 생산, 홍해~지중해 연결 철도망 구축 등 인프라 연계 협력 강화 중이며, 에너지·과학·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지원

■ 미국

- 미국은 이집트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및 지역안보 강화 명목으로 경제·군사적 지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1980년 이래 경제(300억 달러)와 군사(500억 달러) 분야에 총 800억 달러의 원조 제공
- 2020년 양국 간 교역량은 68억 달러에 이르며, 미국은 이집트에 주로 밀가루·옥수수·미네랄 연료와 오일·기계·비행기·철강 등을 수출하고 이집트로부터 의복·천연가스·비료·섬유·농산품 등을 수입
- 이집트 상품의 미국 수출 시 미국이 아프리카 국가의 생산품에 대해 일방적으로 무관세 무쿼터 혜택을 제공하는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AGOA)’에 따른 특혜 조치가 적용
- 1982년 양국은 양자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을 맺고 투자 관계를 활성화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미국 회사들은 이집트의 석유·가스 탐사 및 생산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2020년 미국 기업들의對 이집트 투자액은 15억 달러를 기록

■ 유럽 국가

- 영국 : 이집트 최대 투자국(누적 투자액 664억 달러)으로 석유 및 가스 부문에 주로 투자
- 이탈리아 : ENI(이탈리아석유가스공사)가 원유·가스 개발에 투자
- 독일 : Siemens사가 아스완 인근 벤반(Benban) 지역에 21억 달러를 들여 세계 4위 규모(14.4GW) 태양열발전소 프로젝트를 진행 중으로, 2019.11월 2단계 사업 완료
- 프랑스: Vinci사, Alstom사 등 교통 인프라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

이집트의 주요 수출 대상국

(단위 : 억 달러)

순위	국 명	2020	%
1	아랍에미레이트	28.6	11
2	사우디아라비아	17	6.4
3	터키	16.7	6.3
4	미국	14.7	5.5
5	이탈리아	14	5.3
6	인도	12.2	4.6
7	영국	7.64	2.9
8	스페인	7.6	2.9
9	캐나다	7.04	2.7
10	그리스	6.82	2.6
23	한국	3.61	1.4

출처 : UN COMTRADE

이집트의 주요 수입 대상국

(단위 : 억 달러)

순위	국 명	2020	비중(%)
1	중국	90.5	15
2	미국	40.3	6.8
3	사우디아라비아	38.2	6.4
4	독일	34.9	5.9
5	터키	29.6	5.0

순위	국 명	2020	비중(%)
6	이탈리아	26.1	4.4
7	러시아	25.2	4.2
8	인도	22.8	3.8
9	쿠웨이트	19.9	3.3
10	브라질	19.3	3.3
18	한국	10.3	1.7

출처 : UN COMTRADE

이집트 교역 현황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상반기
교역액	825.4	945.8	1,091.7	876.9	560.5
수출액	233	261	306	268.1	183.2
수입액	593	685	786	608.8	377.3
무역수지	-359.6	-424	-479.5	-340.7	-194.1

출처 : IMF

■ IMF

- 2016.11월 3년간 120억 달러 규모의 對이집트 구제금융 지원에 합의한 후, 2019.8월까지 6차례에 걸쳐 금융지원 이행 완료
 - 이집트 정부는 IMF의 정례적 정책 자문을 얻어 에너지보조금 삭감, 부가가치세 도입, 변동환율제 도입, 세제개편, 재정수지 및 외환정책 등 개혁 정책 실시

- 또한 이집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요청한 27.7억 달러 규모의 신속금융(RFI)과 52억 달러 규모의 대기성차관(SBA) 지원을 2020. 5월과 7월에 각각 승인, 집행

■ World Bank

- 2019.10월 아프리카연합 의장국인 이집트와 아프리카 대륙 내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 전환, 이집트의 역내 에너지·무역 허브로의 도약 등을 위한 공동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하고, 이집트 철도재건사업에만 총 6억 달러를 지원
 - ※ World Bank는 250억 달러를 들여 민간 분야와의 협력 하에 '전 세계 디지털 전환 10개년 프로젝트'를 추진 중
- 그 밖에 이집트의 교육 및 보건 분야 협력 강화는 물론, 총 5억 달러를 들여 고체 폐기물 처리 등 이집트 환경오염 관리사업을 지원할 예정

■ EBRD(유럽재건개발은행)

- EBRD는 이집트의 ▲민간 부문 경쟁력 강화 지원 ▲공공시설 수준 제고 및 유지 ▲여성과 청년층의 경제활동 기회 확대 ▲중소기업 부흥 지원 ▲하수처리 및 해수 담수화 부문 지원 등에 집중
 - 2021.10월 기준, 對이집트 투자 금액이 137개 프로젝트 총 80.61억 유로(약 91억 달러)를 기록
 - 현대로템이 수주한 메트로 2호선 차량 공급 사업도 EBRD에서 자금 지원

2) 재정 개혁

- 알시시 대통령 취임 이후 과감한 경제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8/19 회계연도까지 연료·전기보조금을 철폐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2016.11월 변동환율제 도입에 따른 통화 가치의 하락 및 고강도 경제개혁으로 인해 서민의 생활고가 가중됨에 따라 2018.2월

보조금 철폐 시한을 2021/22 회계연도까지 연기

※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보조금 삭감 및 개인 부담세 증가 적용

보조금 삭감 현황

(단위 : 백만 EGP)

구 분	2016/17	2017/18	2018/19	2019/20
석유 보조금	35,040	120,900	88,400	52,960
생필품 보조금	41,110	82,170	87,140	89,000
전기 보조금	27,400	30,000	16,000	4,000
농업 보조금	5,100	650	1060	565
의약 보조금	600	1,000	1,300	1,500
수도 보조금	1,000	1,000	1,000	1,000
합 계	110,300	235,160	194,940	149,030

출처 : 이집트 재무부

3) 세제 개편

- 소비세를 부가가치세(VAT, 약 14%)로 전환(2015/16 회계연도 중)
- SNS상 광고에 인지세 부과(15~20%, 추진 중) : 온라인 회사는 이윤에 대해 평균 22.5%의 소득세를 납부하며, 개인 판매자의 경우 마진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다는 내용 포함
- 보건세 : 규모와 소재지 불문, 보건 재정 확충을 위해 모든 민·관영 회사에 연간 전체 수익의 0.25%를 징수
 ※ 식·의약품 분야의 기업에 대해서는 전체 연간 매출액의 0.5% 징수
- 보건산업료 : 병원 대상으로 침상 1개당 1,000 이집션파운드를 부과, 의원과 약국에는 면허수수료 명목으로 1,000~15,000 이집션파운드 부과

- 도덕세(Sin tax)와 서비스 요금 : 운전면허증 신규 및 재발급 시 수수료 20~300 이집트파운드 부과,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궤련 담배 한 갑당 0.75 이집트파운드 및 여타 담배 상품에 10%의 도덕세 부과, 입원 환자의 경우 입원비의 5% 추가 징수

4) 투자촉진법 제정(2017)

- 이집트 정부는 기존 이집트 진출 기업들의 확장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해외투자 유치 증대와 이집트의 성장 동력 다양화를 목표로 2017년 투자촉진법 제정
- 특히, 기존 글로벌 투자 기업들이 추가 투자금으로 생산라인을 증설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전개할 때에도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함으로써 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
 - * 투자 인센티브 : 이집트 전역을 Sector A(저개발 지역)와 Sector B(그 외 지역)로 구분하고, 신투자법 발효 후 시작된 투자 산업에 차등적 감세 혜택(an investment incentive in the form of a discount off the taxable net profits)을 부여
 - Zone A(Upper Egypt와 저개발 지역) 투자에 최대 50% 감세 혜택
 - Zone B(그 외 지역, 수에즈 경제구역 포함) 투자에 최대 30% 감세 혜택

5) 제도 마련

■ 공장등록제 실시

- 통상산업부는 ▲이집트 국내 제조업 보호 및 육성 ▲불필요 저가 상품 수입 억제를 통한 외환보유고 증대와 무역적자 완화 등을 목적으로, 이집트에 산업 기반이 있는 25개 품목을 이집트로 수출하기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①수출입관리청(GOEIC) 사전 등록과 ②통상산업부의 승인 취득을 의무화해 미등록 업체의 이집트 진출을 규제하는 공장 등록제를 2016년부터 시행
 - 초반 25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2019.2월 4개 품목, 2021.11월 1개 품목을 추가하여 현재 공장등록제 적용 대상 품목은 30개

※ 30개 등록 대상 품목 : 유제품, 가공 과일류, 기름류, 초콜릿, 설탕, 제과 재료, 과일주스, 물, 화장품류, 바닥재, 비누 및 계면활성제, 식기류, 욕조 등 화장실용품, 화장지, 벽돌-타일, 유리 식기, 강철, 가전제품, 가구, 자전거·오토바이, 시계, 조명기기, 장난감, 섬유류, 신발, 가방, 포장용품, 이발용품, 전화기, Slide Fastner와 그 부품 등

■ 의료보험 및 의료 개혁

- 국민 모두에게 보건 혜택을 주고 이집트의 의료 수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로, 2018~2032년간 이집트 내 낙후한 공공의료 시설을 선진화된 민간 의료기관 수준으로 개선하고 빈곤층을 위한 무상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
- 이집트 보건부는 전국의 33개 병원과 135개 보건소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며, 매년 4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률을 국제적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7개의 치료센터를 163개소로 늘리는 등 2019년까지 이집트 내 C형 간염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전개

6)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 수에즈운하지역개발계획(Suez Canal Area Development Projects)

- 제2 수에즈 운하 건설
 - 2015.8월 제2 수에즈 운하를 개통했으며, 공사 비용은 연리 12%의 국채를 발행, 8일 만에 총 640억 이집트파운드(약 82억 달러) 조달
 - 기존 운하 192km 구간 중 총 72km 구간을 새로 건설, 35km는 새로 굴착하고, 37km 구간은 기존 수로를 확장(폭 317m, 깊이 24m), 양방향 통행이 가능
- 수에즈운하지역개발계획은 수에즈 운하와 인접한 수에즈, 이스마일리아, 포트사이드, 시나이 반도 지역을 세계적인 물류·산업 단지로 종합 개발하는 계획으로, 현재 러시아와 중국이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로 삼는다는 명목 하에 수에즈 운하 산업지대 내 자국 산업단지를 건설 중이며, 러시아는 벨라루스 등 구소련 연방권 국가의 참여를 유도 중

- 2015.12월 수에즈개발청(General Authority for Suez Canal Area Development) 출범

- 수에즈 운하 확장 공사 진행

- 이집트는 2021.3월 수에즈 운하 남부 수로에서 발생한 에버기븐호(길이 200m, 22만 톤급) 좌초 사고 수습 이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발생 구간의 수로를 넓고 깊게 준설 중

- 수에즈시에서 그레이트 비터호 초입까지 30km 구간(운하 북부 진입로 기준 132~162km 구간)의 수로 폭이 동쪽으로 약 40m 확장되고, 2m 더 깊게 추가로 준설

- 제2수에즈 운하도 기존 72km에서 82km로 10km 연장



수에즈 운하 확장 공사

■ 엘 다바 원전 건설

- 지중해 연안 엘 다바(EI Dabaa) 원전 4기(각 1,200MW급)를 러시아 로사톰사가 건설하기로 합의(2015.11월)하였으며, 2019년 현재 부지 토목공사와 인프라 확충 진행 중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2년 연기하여 2028년 첫 원자로 시가동을 목표로 2022년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 2030년 사업 완료 계획
- 러시아형 가압수형 원자로(VVER-1200) 4기를 건설하는 공사로, 원자로 하나당 1.2GW씩 생산하며, 완공 시 이집트 전체 전력 수요의 50% 발전을 충당하고 5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신행정수도 건설

- 카이로의 과밀한 인구와 행정 역할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카이로 동부 45km 떨어진 카이로-수에즈-아인소크나 국도 지역 700km² 부지에 700만 명을 수용하는 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
- ※ 2050년까지 카이로주 인구는 4천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집트 정부는 기반시설 정비를 담당하고, 도시 건설은 외국인 투자 자본을 유치하여 추진 중



신행정수도 건설

■ 북서부 해안(Northwestern Coast) 개발

- 이집트 북동부 마트루흐주 알라메인(Al-Alamein)에서 살룸(Salloum)까지 약 500km, 사막지대 280km 등 총 16만km²의 국토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카이로 인구 분산, 지중해변 입지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

■ 철도 건설과 교통망 개선

- 2014.5월 이집트 교통부는 낙후된 도로 인프라 개선 및 통합 체계 구축, 철도, 도로·교량 및 도심 대중교통 개발 사업 등 28개의 교통 체계 관련 신규 투자 분야를 발표
 - 1,220km에 달하는 철로 현대화 작업, 신형 객차 도입, 구형 객차 업그레이드 사업 추진
 - 카이로-아스완 국철의 철도 신호·통신 체계 현대화 사업이 진행 중이며, 구간별로 시공사 별도 선정
 - 2020년부터는 민간 분야와의 협력 아래 424km에 달하는 철도망 구축 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적 상품 운송 체계를 확립 중
 - ※ 기업과 공장들이 많이 입주한 카이로 동부 10th of Ramadan Dry port -수에즈 운하 경제특구 연결, 6th of October Dry port - Abu Tartour-Saqqara 연결 계획 포함
- 카이로의 동서를 잇는 지하철 3호선 건설 사업은 2007년 처음 시작되어 총 5단계 사업 중 현재 3단계 사업 진행 중(프랑스 Vinci사)으로 완공 시 공항과 도심을 연결하고, 지하철 4호선 사업은 일본 참여 아래 추진 중으로 기차 피라미드 일대로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
 - ※ 2020년 상반기에 지하철 1호선 새 단장(신호 체계, 배차 간격, 통신 체계 개선 및 전자기계 시스템 현대화 등) 사업 발주 예정

이집트 FTA 체결 현황(2022.1월)

명 칭	발효일	주요 내용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 (AfCFTA)	2019.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 : 총 54개국 (55개 AU 회원국 중 에리트레아만 미가입) • 역내 상품의 90%에 대한 단계적 관세 철폐를 시작 으로 향후 관세 완전 철폐 → 관세동맹(역외 관세 단일화) → 단일 시장 형성 목표 ※ 상품 무역 관세는 90%까지 점진적 철폐(개도국은 5년 내, 최빈국은 10년 내), 기타 민감 품목(7%) 및 예외 품목(3%)에 대한 관세 철폐는 국가별 경제 환경에 따라 유예(일반 5년 내, 개도국 10년 내, 최빈국 13년 내) • ① 상품·서비스* 분쟁 해결 ② 경제정책 투자, 지적재산권 2단계로 구분하여 협상 진행 중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 (COMESA)	1994.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최초이자 최대 경제 공동시장(인구 38억 명) - 회원국 : 동남아프리카 21개국(남아공은 옵서버) - 21개국 중 11개국은 상호 무관세
아프리카 대자유무역협정 (African Grand FTA)	2015.6월 출범 (협상 진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ESA, SADC(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EAC (동아프리카공동체) 간 FTA • 아프리카 전체 GDP의 58%(1.3조 달러)
EU-이집트 연합협정 * (EU/Egypt Association Agreement)	2004.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개 EU 회원국과 이집트 간 FTA • 이집트, 대EU 공산품 무관세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15개 회원국, 2019년까지 4개 품목군에 걸쳐 점진적 철폐 (예 : 자동차 관세는 2010~2019년간 매년 10%씩 인하) • 농산품 일부 쿼터 해제 및 관세 인하 또는 철폐
AGADIR 협정 (지중해 아랍국 간 협정)	2006.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품에 대한 관세 즉각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MFTA 내에서 남남협력력을 통해 EMFTA 통합을 가속화하는 장치로 간주, EU로부터 수혜
이집트-터키 FTA	2007.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터키 수출 : 협정 발효 즉시 무관세 • 대이집트 수출 : EU-이집트 FTA에 준해 4개 품목 군에 따라 2020년까지 점진적 관세 인하 및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1.1.부터 터키산 자동차 무관세 수입

명 칭	발효일	주요 내용
이집트-EFTA FTA	2007.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FTA :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 • 대EFTA 수출 : 16개 품목을 제외하고 발효 즉시 관세 철폐 • 대이집트 수출 : 2020년까지 4개 품목군에 따라 점진적 인하 및 관세 철폐 • 회원국 : 아랍연맹 17개국
범아랍 자유무역협정 (GAFTA)	1998.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집트는 걸프 7개국과 별도 협정 체결 • 국가별 관세 부과 및 면제 대상 상이
이집트- 남미공동시장 (MERCOSUR)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RCOSUR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 육류·밀·옥수수 등 : 즉시 관세 면제 • 우류 산업제품 : 4년 내 관세 면제 • 기타 협상 품목 : 8~10년 후 관세 면제
이집트- Eurasian Union FTA	협상 진행 중	
QIZ 협약 (protocop on Qualifying Industrial Zone)	200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집트-이스라엘-미국 3국 간 협약 • 이집트가 이스라엘 원부자재 10.5%(11.7%에서 2008.1.1.부로 10.5%로 변경) 이상, 국내산 원부자재 35% 이상 사용 시 대미 무관세 수출 가능 • 이집트 내 QIZ의 대미 수출액은 103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TR은 이집트 내 3개의 QIZ(카이로, 알렉스, 수에즈)를 지정하였고, 2005.12월 4번째 QIZ로서 중앙델타 지역을 지정한 바 있음.

* EURO-MEDITERRANEAN AGREEMENT(EMFTA)의 일부



가. 일반 현황

1)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이슬람 국가

- 인구의 90% 이상이 수니파 무슬림으로 술이나 돼지고기를 금지하는 등 이슬람 생활양식을 준수
 - 콥틱 기독교인도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어 사우디·이란 등 국가에 비해 다른 종교에 관대하고 종교 관련 규제도 상대적으로 약한 편
- 여성의 사회 활동 참여도 비교적 활발한 편(헌 내각에 여성 장관 8명, 국회 의석 25%를 여성에게 배정)이며, 카이로 등 대도시에서는 남녀 간 교제도 비교적 자유롭고 일부 연애결혼도 가능

2) 중동 지역 최대 문화 강국

- 여러 문명이 교차한 지정학적 위치,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문화, 여흥을 즐기는 민족성 등을 기반으로 영화·음악·문학 등의 분야에서 중동 지역 콘텐츠를 주도
 - 중동 각국에 진출 중인 자국 해외 근로자들이 이집트 문화를 전파하는 주요 창구로서 역할(주로 아랍어 교사, 법조계, 노동자 등으로 근무)
 - 1960~1970년대 초반에는 다른 아랍 국가들이 이집트로 전문가를 보내 영화·TV 산업 관련 기술을 전수받을 정도로 전성기를 누렸으나, 지속되는 경제난 및 관련 산업 쇠퇴 등으로 현재는 다소 위축된 상황

- **(영화산업)** 1940~1960년대 전성기에는 ‘아랍의 할리우드’로 불리면서 연간 80편 이상의 영화를 제작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으나, 1980년대 이후 경제 침체와 함께 영화산업도 위축
 - 1934년 설립된 ‘미스르 스튜디오’는 중동권 영화산업 중심지로서 역할을 했으며, 오마 샤리프는 <닥터 지바고>, <아라비아의 로렌스> 등의 영화로 명성 획득
 - 최근에는 연간 영화 제작 편수가 10여 편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침체기를 겪고 있으나, 아랍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이집트 영화는 여전히 최고의 영향력을 유지
- **(대중음악)** ▲1960~1970년대는 물론 오늘날까지도 아랍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움무 쿨썸, 압둘 할림 하피즈 ▲1980년대 현대식 아랍 팝 음악을 도입한 아흐마드 아다위야 ▲‘아랍의 아이돌 스타’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아무르 디얏, 루비 등이 모두 이집트 출신으로 중동 전역에서 활약
 - 과거 아랍의 정치·사회 문제 등을 노래하며 아랍의 감성에 호소하는 방식에서 최근에는 서양 팝 음악 못지않은 다양한 장르를 구축하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더욱 확산되는 추세
- **(문학)** ▲아랍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나기브 마흐푸즈의 『우리 동네 아이들』 등 대표작들은 국내에도 소개되었으며, ▲근대 이집트가 배출한 최고의 문학비평가·번역가·사상가로서 맹인인 타하 후세인 ▲19세기 말~20세기 초 이집트 시대정신을 반영한 신고전주의 시인 아흐마드 샤우키 ▲아랍 희곡의 거장 알 하킴 등은 현재까지도 아랍 문학에 지대한 영향
- **(스포츠)** 축구는 이집트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로, 18개 프로팀을 포함하여 총 160개 축구팀이 이집트 전역에 등록
 - 특히 영국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에서 활동하는 모하메드 살라를 국민적 영웅으로 대우
 - 2018년 월드컵 당시 이집트는 살라의 활약으로 28년 만에 본선에 진출했지만, 16강 진출은 실패

3)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문화산업 육성 정책 추진 중

- 이집트 정부는 국가의 장기 발전 전략인 ‘비전 2030’ 하에서 경제 활력을 위해 영화·음악 등 문화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
※ 주요 내용 : ▲영화 등 문화산업 ▲문화센터 등 조직 효율성 제고 ▲문화재 보호 및 대외 홍보 강화 등

나. 문화정책

1) 담당 부서

- 일반 문화정책은 문화부가, 문화재 분야는 관광·유물부가 각각 관장
※ 2019.12월 개각에서 기존 문화재부와 관광부 통합
- 문화부는 각 지역의 문화센터, 국립도서관, 오페라하우스, 극장, 영화관 등을 운영하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 서비스 제공
 - 각국 대사관과 문화원이 자국의 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주로 문화부 산하 오페라하우스, 각 지역 문화센터 등의 협조를 얻어 진행
- 관광·유물부는 각 지역의 박물관, 저장고, 고고학 부지 등 문화재 관련 시설에 대한 감독 및 활동 승인 등의 업무 담당
 - 현재 20여 개국에서 250여 명의 고고학자들이 파견되어 있으며, 각 팀이 발굴하는 유물은 관광·유물부에 등록
 - 그 밖에 2015년 분실된 이슬람 시대 램프 회수(2016), 2018년 쿠웨이트로 밀반출된 오시리스(Osiris) 조각상 회수 등 분실된 유물 반환 업무도 담당

2) 정책 동향

- 이집트 정부는 ‘이집트의 비전 2030 및 기획 개혁(Egypt's Vision 2030 and Planning Reform)’을 마련(2015.5월), 각 분야의 개발 정책을 추진

■ 비전 2030 중 문화 부문 3대 추진 목표

- 경제 활력을 위한 문화산업 지원 : 영화·음악·문학·전통공예 등 문화산업을 육성, 국가 경제 활성화의 토대 강화
- 문화 조직 및 구성원의 효율성 제고 : 문화센터 등 문화 조직 및 구성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 지역에 제공하는 서비스 격차 완화
 - ※ 인구 10만 명당 시설물 이용 비율의 지역 간 격차 완화 목표
 - 도서관 수 비율 격차 : (2015년) 0.35 → (2020년) 0.2 → (2030년) 0.1
 - 문화센터 수 비율 격차 : (2015년) 1.95 → (2020년) 1.0 → (2030년) 0.5
- 문화재 보호 및 홍보 : 문화재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국제적 인지도를 높여 관광객 유인 강화

■ 주요 문화 시설

| 이집트박물관 |

- 카이로 도심의 타흐리르 광장 주변에 위치, 12만여 점의 유물 전시
- 가장 대표적 유물은 2층에 전시된 투탕카멘 왕(B.C. 1350)의 유물로서, 현재 1,600여 점의 유물 전시
- 기자 피라미드 지역에 대박물관(GEM) 개관 예정(2022년 초)

| 이집트 국립 오페라하우스 |

- 문화부 산하 카이로 오페라하우스, 알렉산드리아 오페라하우스 등이 운영 중이며, 외국 예술단의 공연은 주로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
- 카이로 오페라하우스는 1971년 화재로 소실, 1988년 일본의 원조를 받아 현재의 모습으로 건축

|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

- 알렉산드리아는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 찬란한 헬레니즘 문화를 창출한 지중해변의 아름다운 항구도시
-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기원전 295년 건립됐으나 4세기경 소실되었으며, 현재의 도서관은 UNESCO 등의 지원으로 2002년 완공

다. 관광 분야

1) 현황

- 이집트의 관광 수입은 2019년도 기준 연간 약 133억 달러로, 이집트 경제의 약 15%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
- 2011년 시민혁명 이후 감소하던 관광객 수는 2015.10월 러시아 항공기 추락 사고 등으로 2016년 최저점을 기록(526만 명)했다가, 정국 안정 등 요인에 의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들어 또다시 최저 수준을 기록(350만 명)

(단위 : 만 명)

연도	2005	2010	2016	2017	2018	2019	2020
관광객 수	824	1,410	526	800	980	1,310	350

출처 : 이집트 관광유물부(2020)

2) 관련 정책

- 이집트 관광부는 2018.11월 ‘이집트 관광개혁 프로그램’을 마련, 각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 국가로 성장한다는 계획을 발표(11.27.)

■ 주요 내용

- **(제도 개혁)** 정부 기능 개편, 종사자 역량 개발, 민간 분야 인센티브 제공 등
- **(입법 개혁)** 시대에 뒤쳐진 관광산업 관련법 개정
- **(홍보 마케팅)** 최신 마케팅 기법을 활용, 관광객 유치
- **(인프라 개발)** 국제 기준에 따른 호텔 분류 기준 마련 및 호텔 개발 펀드 조성
- **(글로벌 추세 부응)** 녹색관광 (Green Tourism) 등 국제 추세에 맞춰 관광 산업 개편

3) 정책 동향

- **(이집트 대박물관 개관)** 이집트 정부는 일본의 재정지원을 받아 세계 최대 규모의 이집트 대박물관을 기자 피라미드 지역에 건설 중에 있으며, 2022년 개관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 진행 중
 - ※ 총 10억 달러 공사 금액 중 75%를 일본이 재정 지원하며, 공사 지연으로 완공 시기를 몇 차례 연기
- 대박물관이 개장되면 현재 카이로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대부분의 유물이 이관될 예정
- **(신규 발굴 유물 공개)** 관광·문화재부는 새로 발굴된 유적을 잇따라 공개하며 새로운 관광 유인 제공
 - 카이로 남부 사카라 유적지의 4,300년 전 무덤 공개(2018.9월), 룩소르 왕가의 계곡에서 3,000년 전 고대 무덤 공개(2018.11월), 룩소르 엘 케바시(신전과 신전을 연결하는 산책로) 공개(2021.11월)
- **(의료관광 등 신규 수요 창출)** 알시시 대통령 주관 의료관광 컨퍼런스 개최(2017.3월), 의료관광 최고위원회 설립 승인(2017.12월) 등 의료관광을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적극 육성하는 정책 추진
 - 아울러 종교·스포츠·힐링 등 관광자원 다변화 정책 추진 중
 - ※ 시나이 산, 아기에수 피난교회 등 기독교 성지순례 코스 개발 등

라. 교육 분야

1) 일반 현황

- 이집트 학교는 국립과 사립으로 나뉘며, 국립학교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시(중학교까지 의무교육)
- 국립·사립학교 모두 다음 학제로 구성
 - 초등학교(6년), 중학교(3년), 고등학교(3년)
 - 일반 대학교(4년), 공대(5년), 약대(5년), 의대(7년)
- 주요 대학
 - 카이로대학교 등 총 27개 국립대, 카이로아메리칸대학교 등 총 36개 사립대와 총 172개의 아카데미 운영 중
 - 아인샴스대학교 및 아스완대학교에는 한국어학과 개설, 운영 중 (각각 2005년, 2016년 개설)

2) 정책 동향

- 이집트 정부의 ‘비전 2030’(2015.5월)에 따라 2030년까지 완수 목표로 교육 분야 개혁 과제 추진 중

■ 초·중등교육 분야

- 일반 국민의 보편적 교육 수혜 확대를 위해 2015년 기준 28%인 문맹률(15~35세 기준)을 2030년까지 제로 수준으로 개선하고 학급당 학생 수도 2015년 42명에서 2030년 35명 수준으로 줄일 계획
 - 이를 위해 2023년까지 총 4만 개의 교실 증축을 목표로 2021.12월 현재 약 2만 2,400개 교실 증축 및 리모델링 완료
- 기술교육 훈련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기관의 역량 계발 및 기술교육 훈련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기관의 역량 계발 및 민간 부문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기술교육 이수자들의 해당 분야 종사율을 2015년 30%에서 2030년 80%까지 높일 계획

- 2021.12월 현재 총 1,176명의 교사들이 재교육을 받았으며, 673명의 학생들이 상하수 처리회사 등에서 실무교육 이수

■ 고등교육 분야

- 지역사회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대학교 설립, 교수 인력 역량 강화 등 교육 인프라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 추진
- 18세에서 22세 연령대의 대학교 등록 비율을 2015년 31%에서 2030년 45%로 확대하고 외국인 등록 비율도 같은 기간 2%에서 6%대로 개선하는 성과 목표 제시
- 2021.12월 현재 Zoweil University 및 신행정도시의 Canadian University 설립 완료, 국제과학기술대의 6개 단과대학 공사 등 진행 중
- 카이로·베니수에프 등에 기술교육 진흥을 위한 기술대학 설립 완료
 - ※ 베니수에프 기술대학은 KOICA 지원(538만 달러)으로 2019.9월 설립

마. 언론 및 방송 현황

1) 관장 기관

- 2019.12월 개각 때 부활된 공보부의 미디어규제 최고위원회(Supreme Council for Media Regulation), 국가언론청(National Press Authority), 국가미디어청(National Media Authority) 등 언론 담당 기구 운영

2) 주요 언론 매체 현황

■ 방송사

- 이집트 국영TV(CH 1, 2) (관영)
 - 창립 연도 : 1960년
 - 보도 성향 : 친정부
- Al Masriya (관영)
 - 창립 연도 : 1990년
 - 보도 성향 : 친정부
- Al Nile (관영)
 - 창립 연도 : 1998년
 - 보도 성향 : 친정부

■ 신문사

- MENA (Middle East News Agency / 관영 통신사)
 - 창립 연도 : 1956년
 - 발행 부수 : CPR 평일 5,000부 / PPR 격주 주말 3,000부 /
경제 매거진 격주 주말 2,000부
 - 보도 성향 : 친정부
- Al-Ahram (아랍어 일간지)
 - 창립 연도 : 1875년
 - 발행 부수 : 평일 10만 부 / 주말(금요일) 15만 부
 - 보도 성향 : 친정부
- Al-Akhbar (아랍어 일간지)
 - 창립 연도 : 1952년
 - 발행 부수 : 평일 8만 부 / 주말(토요일) 10만 부
 - 보도 성향 : 친정부

- Al-Gomhouria (아랍어 일간지)
 - 창립 연도 : 1953년
 - 발행 부수 : 평일 9만 부 / 주간판(목요일) 7만 부
 - 보도 성향 : 친정부
- Egyptian Gazette (영문 일간지)
 - 창립 연도 : 1880년
 - 발행 부수 : 평일 1만 5,000부 / 주말(토요일) 2만 부
 - 보도 성향 : 친정부
- Al-Wafd (아랍어 일간지)
 - 창립 연도 : 1984년
 - 발행 부수 : 평일 3만 부 / 주간 판(목요일) 5만 부
 - 보도 성향 : 야권 성향



가.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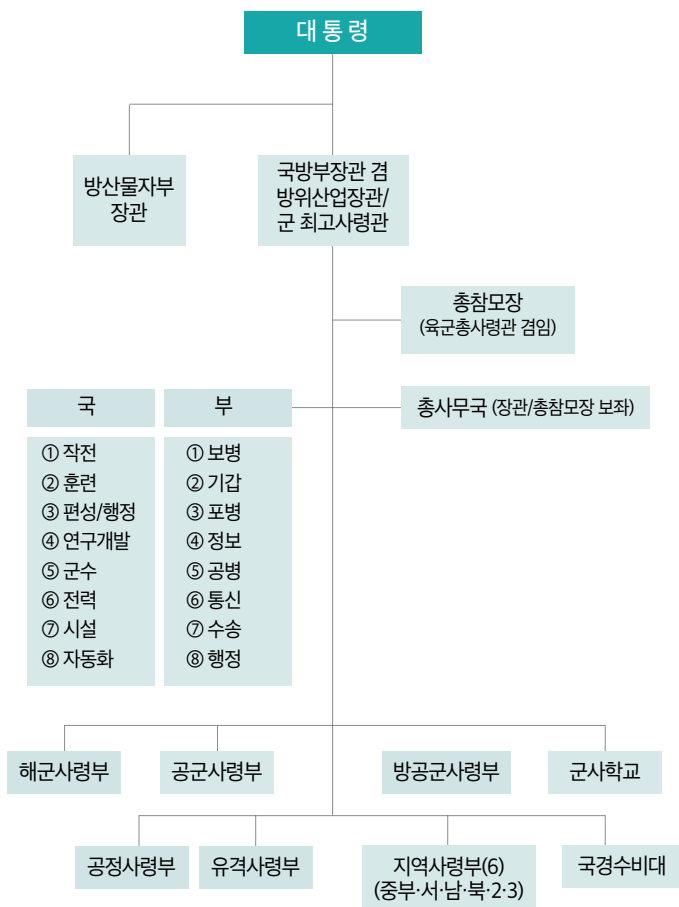
1) 국방 목표

- 군사 장비의 현대화를 통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국 영토를 보호하고, 지역 안정 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규모의 군사력 확보

2) 군사력 개요

- 육·해·공·방공군 4군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프리카·중동 지역 군사 강국으로서의 위상 유지
- 병력 : 상비군 43만 8,500명 (2021년 Military Balance 기준)
 - 군별 규모 : 육군 31만, 해군 1.85만, 공군 3만, 방공군 8만
 - ◀ 예비군 (47.9만) : 육군 37.5만, 해군 1.4만, 공군 2만, 방공군 7만
- 병역제도 : 국민개병주의
 - 복무 기간 : 학력에 따라 12~36개월
 - 예비역 편성/훈련 기간 : 9년
- 국방비(2020) : 41억 달러 추산(2021년 Military Balance 기준)
 - TV·냉장고 등 가전제품 생산, 도로·운하 건설 등 인프라 구축, 시멘트·비료·식품 생산 및 판매 등 경제활동을 통해 자체 예산 충당
 - 아프리카 국가 중 최대 규모이나, 인접국인 이스라엘(약 160억 달러)·사우디아라비아(약 580억 달러) 등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

3) 지휘 체계



- 지휘 계통 : 대통령(군 통수권자) → 국방부장관(최고사령관) → 총참모장 → 해·공·방공군 총사령관 및 육군 각 지역군 사령관
- 국방부장관이 총참모부의 보좌를 받아 군사작전 지휘 총괄

4) 주요 부대

- 육군
 - 중부지역사령부(카이로) - 북부지역사령부(알렉산드리아)
 - 서부지역사령부(메사 마트루) - 남부지역사령부(아스완)
 - 2군사(수에즈 북부 지역) - 3군사(수에즈 남부 지역)
- 해군(사령부 : 알렉산드리아)
 - 북부함대(알렉산드리아) - 남부함대(후르가다)
- 공군(사령부 : 카이로)
 - 18개 전투 비행대대, 3개 지상공격전투 비행대대, 2개 대잠초계기 부대, 1개 해상초계기부대, 5개 수송비행대대
- 방공군(사령부 : 카이로)
 - 예하 5개 방공사단
- 기타 : 공정사령부, 유격사령부, 국경수비대

5) 주요 장비

- 육군
 - 주력전차(2,500여 대) : M1A1, M60A1/ A3, T계열(54, 55, 62) 등(구소련 및 미국 장비)
 - 보병전투장갑차량(600여 대) : BMP, YPR 등 (구소련 및 서유럽 장비)
 - 병력 수송 장갑차(4,000여 대) : BTR, YPR 등 (구소련 및 서유럽 장비)
 - 야포/박격포(4,500여 문) : 122/155mm 자주포, 122/130/155mm 견인포, 122/130/140/227/240mm 다연장 로켓포, 60~120mm 각종 구경의 박격포 등
 - 지대지 미사일(40여 대) : FROG-7, SCUD-B 등

- 해군
 - 주력 전함(16여 척) : 헬기항모 2척, 프리깃함 14척 등 16여 척
 - 정찰 및 연안 전투함(60여 척) : 코르벳함, 고속초계함, 고속경비정 등
 - 기타 : 수륙양륙함(10여 척), 특수함(소해정 등 20여 척), 군수지원함(30여 척), 잠수함(8척) 등
- 공군
 - 전투기(400여 대) : F-16 200여 대, Rafale 6대, 미그-29 6대 등
 - 정찰기(20여 대) : 공중조기경보통제기 7대 등
 - 주력 수송기(40여 대) : C-130 Hercules 20여 대 등
 - 훈련기(300여 대) : L-59E(고등훈련기) 35대 등
 - 헬기(230여 대) : AH 40여 대 등

6) 고위 인사

- 국방부장관 (Minister of Defense & Military Production)
 - 성명/계급 : Mohamed Zaki / 대장
 - 주요 경력 : 특전사 여단장, 특전사령관, 대통령 경호부대장 등
 - 총참모장 (Chief of Staff of the Armed Forces)
 - 성명/계급 : Osama Rashid Askar / 육군 중장
 - 주요 경력 : 국방부 작전부장, 3군단장 등
 - 육군 사령관(CIC, EA) : Mahmoud Farid 중장 (국방부 총참모장 겸직)
 - 해군 사령관(CIC, EN) : Ashraf Ibrahim Atwa 중장
 - 공군 사령관(CIC, EAF) : Mohamed Abbas 중장
 - 방공군 사령관(CIC, EADF) : Mohamed Hegazy 중장
- ※ 방산물자부장관(Minister of State for Military Production) : Mohamed Morsy

나. 이집트 방산 현황

1) 개요

■ 방위산업 육성 배경

- 2차 세계대전 후, 방위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
- 독자적인 국방 능력 확보 차원에서 방산물자 대외의존도 감소 필요
- 아·중동 지역 중심 국가로 등장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

■ 방위산업 기조

- 국제정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무기 구매선 다변화
- 군수공장들을 독립채산제로 운영, 이윤 창출 주력
※ 방위산업에 대한 무리한 투자는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기인
- 외국 업체와의 협력 시 군사 기술 수준 선고려 및 기술 양도 우선시

■ 방위산업 육성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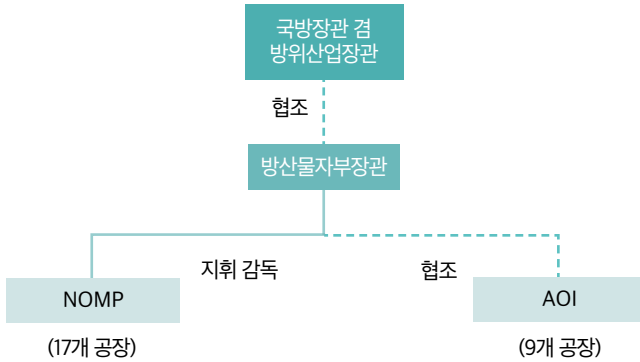
- 1950년대 초에 방산 장비/물자 생산시설 건설, 1954년에 최초로 소형 탄약 생산
- 1960년대 방산물자부 산하에 방산 장비/물자 생산시설 확충 및 가동
 - 무기류 : 권총, 기관총, 야포, 대전차미사일, 지대지(공) 미사일 등 생산
 - 탄약류 : 권총탄을 포함, 다양한 구경의 탄약 자체 생산
 - 통신장비 : HF·VHF 장비 생산, 이집트군 소요 통신장비의 대부분 공급
 - 항공산업 : 1960년대 브라질 투카노(Tucano) 훈련기 생산, 2000년에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KE-8 훈련기 조립 생산 후 지속

- 1975년 AOI(Arab Organization for Industrialization, 아랍공업화기구) 창설, 외국 업체와 합작 또는 조립 생산
 -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社 : M1A1 전차 조립 생산
 - 미국 크라이슬러社 : 4×4 쥘차 합작 생산
 - ABD社 (영국과 합작투자) : Swingfire(대전차 미사일) 생산 등
- 이후 방산물자부와 AOI를 중심으로 이집트군 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체 및 합작 생산 등에 주력
- 2018년 이집트 최초의 방위산업 전시회(EDEX 2018) 개최
 - 한국에서 8개 업체 참가
- 2021년 제2회 EDEX에 우리 기업 한화디펜스 등 14개 업체가 참가
 - K-9 자주포 실물 전시 및 78명의 대규모 인원(국방부대표, 기업, 기자단 등) 참석

■ 현황

- 방산물자부와 AOI 예하의 총 26개 군수공장들은 생산시설을 갖고 있으나, 이집트군 소요 감소 및 경제 상황으로 인해 가동률 감소
- 방산물자와 AOI는 민수용품 수주 및 생산, 외국 기업과의 공동생산 등을 통해 공장 가동률 향상, 고용 창출 노력

2) 방위산업 육성 조직



※ NOMP(National Organization for Military Production)

※ AOI(Arab Organization for Industrialization)

- 가) 국방장관 겸 방위산업장관 : 군 소요 충족을 위해 방산물자부(NOMP)와 협조 관계이나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AOI와도 긴밀히 협조
- 나) 방산물자부장관 : 국방부 소요에 의해 방산 분야 실무 업무 관장
- 다) NOMP : 국가 소유 방위산업체로 방산물자부의 지휘감독 아래 17개 공장 운영
- 라) AOI : 대통령 관할 아래 9개 공장 운영, 방산물자부·국방부와 긴밀히 협조

- 1975년 걸프 지역 국가들의 오일(원유) 자본과 이집트의 산업기술 능력을 활용하고 아랍권의 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이집트가 주도하고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 등이 참여하여 AOI를 창설한 것이 배경
- 1979년 캠프데이비드(Camp David) 평화협정 이후, 기타 국가들의 탈퇴로 현재는 이집트가 독자적으로 운영 중

다. 시나이 정전감시단(MFO : Multinational Forces & Observers)

1) 창설 배경

- 제4차 중동전쟁 이후 캠프데이비드 협정에 따른 평화조약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1982.4월 임무 개시)

2) 참여국

- 병력 파견국(13개국) : 미국/콜롬비아/피지(각 1개 대대 규모),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우루과이, 영국, 체코 등
 - 일본은 2019년부터 자위대 장교 2명 파견
- 재정 지원국(9개국) : 한국, 독일, 일본, 스위스, 네덜란드 등
 - ※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 30만 달러 내외 지원 (매년 지원 여부와 규모 결정)

3) 임무 : 조약 위반 사항 관측·보고·검증(observe, report, verify)

- Zone 'A' : 이집트 병력 (1개 기보사단/22,000명 이내)
- Zone 'B' : 이집트 병력 (4개 국경수비 대대)
- Zone 'C' : 군인은 MFO만 배치. 기타 이집트군 국경수비(750명 이내) 및 경찰 배치
- Zone 'D' : 이스라엘 영토 내 3km 폭
 - 이스라엘 병력(4개 병대대 / 4,000명 이내)

4) 편성

- MFO 본부 : 로마
- 대표사무소(2개) : 양국의 수도인 카이로·텔아비브에 위치

- MFO 군 편성(2개 캠프로 구성)

- 북부 캠프(엘 고라) : 콜롬비아/피지 대대
- 남부 캠프(샤름 엘 셰이크) : MFO 군 본부, 미국 지원 대대



III

한·이집트 관계





가. 한·이집트 관계 변천사

이집트와 남북한 관계

한-이집트	이집트-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1. 12. 5. 영사 관계 수립 • 1962. 5. 1. 주카이로 총영사관 개설 • 1991. 8. 19. 주서울 총영사관 개설 • 1995. 4. 13. 외교 관계 수립 • 1995. 5. 1. 주이집트 대사관 개설 • 1995. 6. 8. 주한이집트 대사관 개설 • 2014. 9. 28. 주이집트 문화원 설립운영협정 체결 • 2014. 10. 29. 주이집트 문화원 개원 • 2020. 4. 13 수교 25주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8. 7. 9. 주카이로 무역대표부 개설 • 1961. 7. 30. 주카이로 총영사관 설치 합의 • 1961. 11. 27. 주카이로 총영사관 개설 • 1963. 8. 25. 외교관계 수립(대리대사급) • 1963. 8. 28. 주이집트 대사관 개설 • 1964. 12. 26. 대사급 외교관계 승격 합의 • 1970. 4. 6. 주이집트 문화원 개설 • 1998. 8. 16. 주이집트 문화원 폐쇄

- 1970년대 중반까지 이집트는 親북한 일변도 정책 견지
 - 이집트의 비동맹 노선과 1967년 및 1973년 중동전쟁 당시 북한의 이집트에 대한 군사 지원 영향
- 1970년대 중반 이후 이집트는 문호 개방 및 친서방 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했으며, 공식적으로는 남북한에 대한 중립을 유지하면서 한국과의 경제·통상 관계 점차 확대
-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은 무바라크 대통령이 집권한 1981년 이후에도 북한에 대한 정치적 배려 지속
 - 무바라크 대통령이 공군사령관이었던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 당시 북한이 군사고문단 및 2개 편대 규모 공군을 파견하여 이집트 공군의 이스라엘 기습 폭격 성공에 크게 기여¹
-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으로 무바라크 대통령이 결단, 1995.4.13. 한·이집트 수교
 - 2006.3월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집트를 방문하며 양국 관계 발전
 - 2011년 시민혁명에 따른 무바라크 대통령 하야로 한·이집트 관계 발전을 제약하는 북한 배려 요소는 소멸
 - 알시시 대통령은 2016.3월 한국을 공식 방한하는 등 한국과의 우호 관계 및 실질협력 강화 추진

나. 이집트의 對한반도 정책 기조

-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취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
- 한반도 비핵화 지지,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한 간 교류 확대 지지
- 북핵 문제, 북한 인권 등에 대한 공개적 규탄에는 다소 미온적이었으나, 핵실험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서는 규탄 성명 발표
 - 2016.1월 북한 제4차 핵실험 및 9월 제5차 핵실험, 2017.9월 제6차 핵실험, 2017.12월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계기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환영 성명 발표(4.28., 6.12.) 했으며, 2018.9.26. 유엔 총회 계기 한·이집트 정상회담에서 알시시 대통령은 남북 대화 진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지지 표명

¹ 사다트 대통령은 감사의 뜻으로 당시 소련이 북한에 제공을 거부하던 스커드 미사일을 비밀리에 제공, 북한은 이를 분해·연구하여 후일 노동1호, 대포동 등 미사일 개발에 성공

- 북한과의 관계를 존중하되, 한국과의 실질적인 협력 관계 발전 중시
- 한국의 개발 경험 전수, 한국으로부터의 원조 및 투자 확대 희망
- 이집트는 2016~2017년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입장

다.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체결 현황²

- 한국과학재단-이집트과학·기술아카데미 과학협력 양해각서 (1979.5월)
- 한·이집트 항공협정 (1988.6월)
- 한·이집트 문화·과학·기술협력협정 (1989.6월)
- 한·이집트 이종과세방지협정 (1994.2월)
- 한·이집트 투자보장협정 (1997.5월)
- 청년봉사단 파견 양해각서 (1997)
- 서울시-카이로시 간 우호협력협정 (1997)
- 한·이집트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1998.4월)
- 한·이집트 무역협정 (1998.5월)
- 과학기술양해각서 (1999.4월)
- 연구원 간 협력약정 (1999.11월)
- 한·이집트 원자력협력협정 (2002.6월)
- 2004~2006년 문화교류 시행계획서 (2004.4월)
- 체육 분야 협력 양해각서 (2005.8월)
- 청소년교류 양해각서 (2005.12월)

2 발효 시기 기준

- 정보통신기술협력 양해각서 (2006.3월)
- 소프트웨어진흥원-ITIDA 전자서명 Public Key 인프라 구축 협력 양해각서 (2006.3월)
- KOTRA-GAFI 투자협력 양해각서 (2006.3월)
- 한전-EEHC 정보기술교류 등 상호협력 양해각서 (2006.3월)
- 한전-NREA 신재생에너지 협력 양해각서 (2006.3월)
- 중소기업진흥공단-SFD 중소기업 산업협력 양해각서 (2006.3월)
- 한국산업기술재단-NRC 간 산업기술협력 양해각서(2006.3월)
- 수출보험공사-ECGE 간 상호협력 양해각서 (2006.3월)
- 수출보험공사-Fiani&Partners/Kompass 데이터 이용 양해각서 (2006.3월)
- 한·이집트 환경부 간 양해각서 (2006.11월)
- 한국방송위원회-ERTU 상호협력 양해각서 (2007.4월)
- 한·이집트 문화교류 시행계획서 (2007.9월)
- 한·이집트 감사원 간 교류협력 양해각서 (2007.9월)
- 한·이집트 행정서비스 협력 양해각서 (2007.10월)
- 대전시-이집트 고등교육과학연구부 무바라크 과학단지 건설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 교류협력 양해각서 (2008.4월)
- 한·이집트 표준화기관 간 양해각서 (2009.4월)
- 방사청- 방산물자부 간 방산협력 양해각서(2009.12월)
- 한·이집트 관광협력 양해각서 (2010.1월)
- 한국정보사회진흥원-행정발전부 전자정부 분야 양해각서 (2010.3월)
- 한·이집트 통계청 양해각서 (2012.2월)

- 한·이집트 장관급 협력 공동위원회 설치 협정 (2012.11월)
- 환경인력개발원-환경청 협력 양해각서 (2013.9월)
- 한·이집트 문화원 설립운영협정 (2014.9월)
- 한·이집트 통합기술교육 클러스터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교환각서 (2015.10월)
- 한국·이집트 기술대학 설립에 관한 약정 (2016.3월)
- 한·이집트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협정 조약 (2016.12월)
- 이집트 나흐하마다-룩소르 구간 철도 신호시스템 현대화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017.1월)
- 한·이집트 국방협력 양해각서 (2017. 3월)
- 한·이집트 기술대학 설립사업 교환각서 (2018.7월)
- 한·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전동차(32대) 구매사업을 위한 대외 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018.11월)
- KAIST-이집트 국가인재개발원 양해각서 (2021.4월)
- 포항공과대학교-이집트 정보통신부 간 학위 제공 양해각서 (2021.6월)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집트 방산물자부 양해각서 (2021.12월)

라. 주요 인사 교류

1) 방문

- 1995. 6월 박운서 통상산업부차관
- 1995. 9월 이시윤 감사원장 (제15차 INTOSAI 총회)
- 1996. 8월 이기주 외무부차관 (제1차 정책협의회)
- 1996. 11월 홍재형 전 부총리 (제3차 MENA 경제회의)

- 1997. 4월 조순 서울시장 (서울-카이로 자매결연)
- 1997. 9월 정재문 국회 통일·외무위원장 (IPU 총회)
- 1997. 10월 송영식 외교통상부 제1차관보
- 1998. 9월 이종찬 국정원장
- 1998. 11월 박태영 산자부장관
- 1999. 1월 김봉호 국회부의장
- 1999. 2월 김종필 국무총리
- 1999. 7월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단장 : 유홍수 의원)
- 1999. 10월 고건 서울시장
- 1999. 11월 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
- 1999. 11월 권진호 국정원 차장
- 2000. 4월 김경한 법무부차관
- 2000. 5월 최기선 인천시장 (인천-알렉산드리아 자매결연)
- 2000. 8월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
- 2000. 12월 김윤기 건설교통부장관
- 2001. 1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단장 : 이용삼 의원)
- 2001. 1월 국회 정보위원회 (단장 : 김명섭 의원)
- 2001.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장 : 박헌기 의원)
- 2001. 4월 황병기 감사위원
- 2001. 4월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 2001. 7월 국회 운영위원회 (단장 : 이상수 의원)
- 2001. 8월 한승수 외교통상부장관
- 2001. 11월 김종호 국회부의장

- 2002. 3월 이만섭 국회의장
- 2002. 8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단장 : 이상득 의원)
- 2003. 1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단장 : 박종우 의원)
- 2003. 3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단장 : 이협 의원)
- 2003. 5월 국회 통외통위원회 (단장 : 유홍수 의원)
- 2003. 6월 김재철 무역협회장
- 2003. 6월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 2003. 7월 조부영 국회부의장
- 2003. 8월 변재일 정보통신부차관
- 2004. 2월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 2004. 3월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 2004. 4월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
- 2004. 7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 2004. 9월 최영진 외교통상부차관
- 2004. 11월 김만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 2004. 11월 윤영관 전 외교부장관 (아라파트 조문단장)
- 2005. 1월 국회 교육위원회 (단장 황우여 의원)
- 2005. 3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단장 이미경 의원)
- 2005. 6월 이태식 외교통상부차관
- 2005. 10월 국정감사단 (단장 임채정 외통위원장)
- 2005. 12월 최영희 청소년위원장
- 2006. 1월 국회 예결위원회 (강봉균 의원 외 3인)

- 2006. 3월 노무현 대통령 공식 방문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송민순 안보정책실장 수행)
- 2006. 3월 국회 교육위원회 (황우여 의원 외 6인)
- 2006. 3월 국회 통외통위원회 (김덕규 의원 외 4인)
- 2006. 5월 국회 IPU 대표단 (손봉숙 의원 외 2인)
- 2006. 8월 국회 문광위원회 (이광철 의원 외 3인)
- 2006. 8월 국회 과기정위원회 (임인배 의원 외 3인)
- 2006.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준표 의원 외 4인)
- 2006. 10월 국정감사단 (진영 의원 외 5인)
- 2006. 10월 윤병세 외교통상부 차관보
- 2006. 11월 이치범 환경부장관
- 2006. 11월 국회 평창동계올림픽유치특위 (이원영 의원 외 2인)
- 2006. 12월 한·이집트 의원친선협회 (조일현 의원 외 6인)
- 2007. 1월 국회 예결위원회 (이한구 의원 외 4인)
- 2007. 1월 국회 법사위원회 (안상수 의원 외 4인)
- 2007. 1월 국회 정무위원회 (이계경 의원 외 4인)
- 2007. 3월 국회 산자위원회 (이규택 의원 외 5인)
- 2007. 3월 국회 통외통위원회 (김용갑 의원 외 5인)
- 2007. 3월 국회 국방위원회 (안영근 의원 외 4인)
- 2007. 3월 국회 재경위원회 (엄호성 의원 외 4인)
- 2007. 3월 김성호 법무부장관
- 2007. 4월 조창현 방송위원장
- 2007. 5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 2007. 5월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 2007. 5월 임채진 법무연수원장
- 2007. 9월 전윤철 감사원장
- 2007. 9월 이주흠 외교안보연구원장
- 2007. 10월 임성준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 2007. 10월 국정감사단 (이화영 의원 외 6인)
- 2007. 11월 강무현 해양수산부장관
- 2008. 6월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 (제5차 정책협의회)
- 2008. 9월 국정감사단 (박선영 의원 외 4인)
- 2009. 3월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
- 2009. 3월 김희옥 헌법재판관
- 2009. 5월 대통령 특사 일행 (홍준표 의원 외 3인)
- 2009. 5월 국회 의약품 전달 대표단 (진영 의원 외 4인)
- 2009. 5월 국회 행안위원회 (조진형 의원 외 3인)
- 2009. 7월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 (중동 지역 공관장 회의)
- 2009. 8월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
- 2009. 8월 유종필 국회도서관장
- 2009. 8월 국회 원내 대표단 (김성식 의원 외 2인)
- 2009. 10월 국정감사단 (문학진 의원 외 4인)
- 2009. 10월 대통령 특사 일행 (사공일 무역협회장 등)
- 2010. 1월 이만의 환경부장관
- 2010. 3월 고성식 특허청장
- 2010. 3월 국회 예결위원회 (나성린 의원 외 2인)

- 2010. 10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 2010. 10월 이주영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 2010. 11월 장수만 방위사업청장
- 2010. 11월 이 참 한국관광공사 이사장
- 2011. 1월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 2011. 1월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 2011. 5월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 특임대사
- 2011. 7월 이재오 특임장관
- 2012. 3월 윤원중 국회 사무총장
- 2012. 3월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2012. 4월 김재신 외교통상부 차관보 (제7차 정책협의회)
- 2012. 7월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제2차 원전 설명회)
- 2012. 8월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
- 2012. 10월 유명환 대통령 특사
- 2012. 8월 국정감사단 (이병석 의원 외 5인)
- 2012. 12월 김이수 헌법재판관
- 2012. 12월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제2차 경제장관회의)
- 2013. 3월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 2013. 5월 국회 외통위원회 (정문헌 의원 외 1인)
- 2013. 7월 최경립 통상차관보 (제1차 통상위원회)
- 2014. 2월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
- 2014. 5월 오영호 KOTRA 사장 (아중동 무역관장회의)
- 2014. 8월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한·이집트 경제포럼)

- 2014. 11월 정홍원 국무총리
- 2015. 3월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이집트 경제개발회의)
- 2015. 8월 유기준 대통령 특사 (해양수산부장관, 제2수에즈 운하 개통 행사)
- 2015. 8월 국회 외통위원회 (김태호 의원)
- 2016. 5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2016. 11월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 2017. 3월 임성남 외교부 1차관
- 2017. 3월 황인무 국방차관
- 2017. 7월 엄현성 해군참모총장
- 2018. 1월 백재현 예결위원장
- 2018. 5월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2018. 5월 정길영 감사원 감사위원
- 2018. 12월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 2018. 12월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 2019. 1월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 특보
- 2019. 1월 우원식 한·이집트 의원친선협회장
- 2019. 6월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 2019. 10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 2019. 11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유기준 의원 외 4인)
- 2020. 2월 김건 외교차관보(카라반 행사 선발대)
- 2020. 2월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 2021. 5월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 2021. 8월 서욱 국방장관,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 2021.10월 박병석 국회의장
- 2021.12월 현진권 국회도서관장
- 2021.12월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2) 방 한

- 1995. 4월 El Gharieb 투자청장
- 1995. 7월 Ibrahim Soliman 신도시개발부장관
- 1995. 11월 Omar Ads 경찰대학장
- 1995. 12월 El Meniawy 국제협력부차관
- 1996. 3월 Amr Moussa 외교부장관
- 1996. 9월 El Tatawy 국제협력부장관
- 1996. 10월 Sorour 국회의장 (Abdellah 외무위원장 수행)
- 1997. 4월 Sorour 국회의장 (IPU 총회)
- 1999. 4월 Mubarak 대통령 국빈방한
- 1999. 4월 Bahaa El-Din 교육부장관
- 2000. 4월 Ghatrifi 외교부 아태차관보 (제2차 정책협의회)
- 2003. 9월 Saleh 통상부 국제전시청장
- 2004. 12월 Ezzat Saad 외교부 아태차관보
- 2006. 10월 Raghieb 외교부 기획관리실장
- 2006. 11월 Farahat 외교부 아프리카 부차관보
- 2007. 10월 Darwish 행정발전담당 국무장관
- 2008. 5월 Talawy 아랍연맹 특별조정관
- 2008. 6월 Kamel 정보통신부장관

- 2008. 7월 Zahi Hawas 문화재청장
- 2008. 9월 Maher 헌법재판소장
- 2008. 12월 Mohie El-Din 투자부장관 (비공식)
- 2009. 2월 Hussein Haridi 외교부 아태차관보 (제6차 정책협의회)
- 2009. 11월 Ahmed Fatallah 외교부 아태차관보 (제7차 정책협의회
및 제2차 한·아프리카 포럼)
- 2010. 1월 Zoheir Garranah 관광부장관
- 2010. 5월 Osama Saleh 투자청장
- 2010. 6월 Mohyee El-Din 투자부장관
- 2010. 6월 Boutros Ghali 재무부장관
- 2010. 6월 Maged George 환경부장관
- 2010. 7월 Alla Fahmy 교통부장관
- 2010. 11월 Boutros Ghaly 재무부장관
- 2011. 4월 Said Hindam 외교부 정책기획차관보
- 2012. 3월 Mohamed Kamel Amr 외교부장관 (핵안보정상회의)
- 2012. 5월 Mohamed Abdel Aziz el Shenawy 및 Adel Omar
Sherif 최고헌법재판소 부소장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립총회)
- 2012. 7월 Ahmed El-Dib 박람회청장
- 2012. 9월 Moustafa Hussein Kamel 환경부장관
(세계자연보전 총회)
- 2012. 10월 Moustafa Hussein Kamel 환경부장관
(기후변화협상회의)
- 2013. 5월 Khalil Yasso 원자력발전시설청장

- 2013. 10월 Hesham El Alily 통신규제청장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 2013. 10월 Hani Mahmoud 행정개발부장관
- 2013. 12월 Nabil Fahmy 외교부장관
- 2014. 7월 Nabil Habashy 외교부 의전차관보 (세계의전장 회의)
- 2014. 11월 Hesham El Alily 통신규제청장 (ITU 전권회의)
- 2015. 10월 Yasser Morad 외교부 아태차관보 (한-중동 협력포럼)
- 2014. 11월 Sameh Shoukry 외교부장관
- 2015. 11월 Sameh Shoukry 외교부장관
- 2016. 3월 Abdel Fattah Al Sisi 대통령 (공식 방한)
- 2016. 3월 Sameh Shoukry 외교부장관
- 2016. 3월 Mohamed Elmarkabi 전력부장관
- 2016. 3월 Sahar Nasr 국제협력부장관
- 2016. 3월 Nabil Sadek 검찰총장
- 2017. 6월 Abdel Salam 교통부차관
- 2017. 6월 Amr El-Gerhy 재무부장관
- 2017. 9월 Sedki Sobhi 국방장관
- 2017. 10월 Mohamed Elassar 방산물자부장관
- 2018. 5월 Radwan 외교위원장
- 2018. 9월 Osama Heikel 언론문화위원장
- 2018. 9월 Gebaly 헌법재판소장
- 2018. 10월 Mohamed Maait 재무부장관
- 2018. 12월 Abdel Aal 국회의장

- 2019. 2월 Mohamed Maait 재무부장관
- 2019. 2월 Sahar Nasr 투자국제협력부장관
- 2020. 8월 Essam Wally 터널청장
- 2021.10월 Mohamed Morsy 방산물자부장관

3) 기타

- 2014.9.23. 유엔 총회 계기, 박근혜 대통령-알시시 대통령 정상회담
- 2016.9.5. G20 정상회의 계기, 박근혜 대통령-알시시 대통령 정상회담(중국 항저우)
- 2018.9.26. 유엔 총회 계기, 문재인 대통령-알시시 대통령 정상회담
- 2020.3월/10월 문재인 대통령-알시시 대통령 정상 통화



가. 통상 관계

1) 양국 간 교역 규모

- 한국과 이집트 교역량은 이집트 정세불안 및 IMF 구제금융 등의 여파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적으로 3.7% 감소하다 2018년 21억 달러를 기록하며 다소 회복하는 듯했으나 2019년 18억 달러로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15억 달러로 감소
 - 2017년 14억 달러(수출 13억 달러, 수입 1억 달러), 2018년 21억 달러(수출 18억 달러, 수입 3억 달러) 기록
 - 2021년 3/4분기까지 누적 기준, 한·이집트 교역 규모는 16.3억 달러(수출 12억 달러, 수입 4억 달러)
- ※ 이집트 교역에서 한국은 이집트 통계청(CAPMAS) 기준으로 2020년도에 수입 19위, 수출 23위 시장인 반면, 무역협회 통계 기준 2020년 우리나라 교역에서 이집트는 수입 58위, 수출 39위 시장

2) 주요 수출 품목

- 2021년 3분기 금액 기준 가장 큰 수출 품목은 승용차로 총수출의 15.12%를 차지했으며(1.8억 달러), 이어 합성수지 14.38%(1.7억 달러), 철도차량 12%(1.4억 달러) 순

對이집트 상위 10대 수출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2018	2019	2020	2021	
		금액	금액	금액	금액 (비중, %)	증감률
1	승용차	276	142	173	184(15.12%)	6.4
2	합성수지	149	146	152	175(14.38%)	15.1
3	철도차량	0	0	46	146(12%)	217.4
4	자동차부품	100	92	62	55(4.52%)	-11.3
5	건설중장비	26	36	34	45(3.7%)	32.4
6	아연도강판	57	46	42	37(3.04%)	-11.9
7	평판디스플레이	173	145	69	33(2.71%)	-52.2
8	펌 프	6	5	3	32(2.63%)	966.7
9	광학기기부품	23	19	22	28(2.30%)	27.3
10	석유화학합성원료	16	35	42	25(2.05%)	-40.5
총수출		1,847	1,573	1,215	1,217	0.2

※ 증감률은 현재 파악 가능한 2021년 3/4분기 기준 2020년 전체 대비임(출처 : KITA)

3) 주요 수입 품목

- 2021년 3분기 금액 기준 가장 큰 수입 품목은 나프타로 총수출의 51.54%를 차지했으며(2.1억 달러), 이어 천연가스 13.3%(0.5억 달러), 중유 9.03%(0.3억 달러) 순

對이집트 상위 10대 수입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2018	2019	2020	2021	
		금액	금액	금액	금액 (비중, %)	증감률
1	나프타	89	102	230	217(51.54%)	-5.7
2	천연가스	141	38	31	56(13.30%)	80.6
3	중유	0	61	0	38(9.03%)	-
4	암모니아수	7	8	3	36(8.55%)	1100.0
5	박류	31	29	32	27(6.41%)	-15.6
6	기타비금속광물	8	14	17	23(5.46%)	35.3
7	골동품	0	0	0	6(1.43%)	-
8	필름류	0	0	0	3(0.71%)	-
9	편직제의류	3	5	4	2(0.48%)	-50.0
10	직물제의류	3	4	2	2(0.48%)	-
총수입		313	282	346	421	21.7

※ 증감률은 현재 파악 가능한 2021년 3/4분기 기준 2020년 전체 대비임(출처 : KITA)

한·이집트 교역 총액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3분기 누적
교역액	14.15	21.6	18.55	15.61	16.38
수출액	13.25	18.47	15.73	12.15	12.17
수입액	0.9	3.13	2.82	3.46	4.21
무역수지	12.35	15.34	12.91	8.69	7.96

출처 : IMF

■ 한국산 자동차의 이집트 판매 통계

- 이집트 자동차시장정보협회(AMIC) 발표 2021.8월 보고서에 따르면, 승용차 부문에서 우리나라 현대차의 이집트 시장 1~8월 누적 판매량은 1만 6,728대(12.2%)로 1위, 기아차는 같은 기간 1만 704대(7.8%)가 판매되어 전체 시장점유율 5위를 기록하는 등 이집트 시장에서의 한국산 자동차 판매 실적은 견고

■ 수입 시장점유율 상위 10개국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 가	2019	2020	
			금액	점유율
1	중 국	6,120	9035	15.0
2	미 국	3,390	4085	6.8
3	사우디아라비아	4,845	3937	6.6
4	독 일	3,004	3528	5.9
5	터 키	1,986	2990	5.0
6	이탈리아	1,854	2562	4.3
7	러시아	2,914	2554	4.3
8	인 도	1,680	2254	3.8
9	쿠웨이트	1,876	2104	3.5
10	브라질	1,208	1,942	3.2
18	한 국	1,381	1,011	1.7

출처 : Global Trade Atlas

나. 對이집트 투자

1) 현황

- 이집트에 대한 투자 규모는 약 8억 달러이며, 삼성전자(4.1억 달러)와 LG전자(2.9억 달러)의 가전 생산 공장 설립이 대부분을 차지
- 2012.9월 삼성전자는 이집트 남부 베니수에프주(州)에 TV 생산 공장을 설립, LG전자는 이스마일리아에 있던 기존 TV 생산 공장을 10th of Ramadan으로 이전하여 TV와 세탁기 생산 중
 - ※ 우리 진출 기업들은 세금 환급 지연, 통관 문제, 수출장려금 미지급, 노무상 애로 등 보유

2) 진출 우리 기업 현황

- 이집트에 진출한 기업은 약 33개로, 주로 제조업 중심
 - ※ 업종별 기업 수(33개사) : 제조업(17), 서비스업(7), 도매 및 소매업(2), 건설·공사업(3), 운수업(2), 무역(3) 등

다. 건설·플랜트 진출

1) 현지 건설시장의 특성과 현황

- 시공 품질보다 가격을 더 중시
- 일반 공사의 경우 현지 대형 업체의 급부상으로 공개 경쟁 입찰에서 우리 업체의 가격경쟁력 약화
- 정부 발주 공사의 경우 시공사가 금융 방안까지 마련해 올 것을 요구하며, BOOT(Build, Own, Operate and Transfer, 시공 운영 후 인도 조건) 방식 또는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방식을 선호하는 추세

2) 수주 실적

- 최초 진출 : 1976.6월 두산건설, 엘삼스 호텔 신축 공사(1,800만 달러)
- 총 수주액 : 52개사(하청사 포함, 74건, 52억 달러(전체 35위))
 - 주요 진출 분야 : 플랜트(41억 달러), 건축(7억 달러), 토목(3억 달러) 등

(단위 : 억 달러)

구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12.7.
건수	74	64	0	3	1	3	3
금액	52	49	0	1.4	-0.02	0.8	1.1

- 현재 수주 활동 중 공사는 없으며, 시공 중 공사인 14개사 9건으로, 약 24억 달러 규모
- 주요 시공 중 공사(1억 달러 이상): 1개사, 1건, 21억 달러

(단위 : 억 달러)

업체	공사명	발주처	계약 금액	공사 기간	비고
GS건설	ERC 수첨분해 프로젝트	Egyptian Refining Co.	21	2007.8.29.~ 2016.8.14.	계약 변경 보고 예정

※ 우리 기업들은 철도, 지하철, 발전소, 담수화 시설 등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에 관심

라. 對이집트 개발협력

1) 지원 개요

- 1989~2020년 지원 실적(잠정) : 총 2억 1,646만 달러
- 전체 수원국 중 24위 (무상원조는 31위, 유상원조는 21위)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198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무상	45.00	3.80	4.14	2.93	3.64	1.75	2.81	2.79	1.82	6.48	6.44	81.60
유상	-	-	-	-	-	-	-	-	76.08	57.43	1.35	134.86

출처 : OECD.Stat

2) ODA 중점협력국 선정

- 2021년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통해 2021~2025년간 이집트를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
 - ※ ODA 중점협력국 : 한정된 ODA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대외정책 및 개발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며, 선정된 27개국에는 양자 ODA 예산의 70%를 지원
 - 이집트는 유럽-중동-아프리카를 잇는 거점국으로서 최근 FDI, 교역 규모 증대 등 협력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점협력국으로 선정
- 이집트 국가협력전략(CPS) 하 중점협력 분야
 - 교통 : 국민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 역량 확충 및 이집트 전역을 연결하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
 - 교육 : 삼성·LG 등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을 비롯한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통해 청년 고용 창출 및 산업 발전 기여
 - 공공행정 : 재정 투명성 재고 및 행정 효율화를 통한 전자정부 구축 지원

- 에너지 :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허브로서의 역량 강화

3) 무상원조

■ 사업 추진 현황

사업 유형	사업명	시행 기관
프로젝트/ 개발 컨설팅	한-이집트 기술대학 설립사업	KOICA
	이집트 지식재산권 자동화시스템 개선사업	
	UNDP 아랍국가 공공행정 효율화 및 부패방지를 위한 지역협력 강화사업(2019~2023)	
	이집트 UNFPA 젠더 폭력 예방 및 대응 사업 (2021~2024)	
	이집트 UN Women 여성 경제역량강화 사업 (2021~2024)	
	이집트 정부 서비스청 공공전자조달 시스템 개선사업(2022~2026)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이집트 한국기술교육대, 2016~2021)	교육부
	이집트 카이로주 폐기물관리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2021~2022)	환경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시교통 현대화(ITS) 마스터플랜 사업(2021~2022)	국토부
국별 연수	이집트 성인지 정책 및 프로그램 역량강화 (2020~2022)	KOICA
	이집트 보건 분야 국제협력 역량강화(2021~2023)	
	이집트 원조 자원관리 역량 강화(2019~2021)	
	이집트 철도기술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가 기술역량 강화(2020~2022)	
다국가 연수	한국어를 활용한 개도국 개발협력 인재양성 사업 (초·중급) (2019~2021)	

사업 유형	사업명	시행 기관
다국가 연수	한국어를 활용한 개도국 개발협력 인재양성 사업 (중급) (2019~2021)	KOICA
석사학위 과정	총 7명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KAIST 등)	

【한·이집트 기술대학 설립사업】

- 사업 목적
 -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역량 있는 기술인력 양성
- 사업 수행 기관
 - 우리측 : 한국기술교육대
 - 이집트측 : 고등교육과학연구부
- 사업 내용
 - 기자재 구축 : 전공 학과/취업 실무교육/교수·행정지원 시설 및 기자재, 실업 실습 소모품 제공
 - 교육과정 개발 : ▲전공과정(메카트로닉스학과, ICT학과) ▲취업실무과정 (영어, 한국어, 창업, 컴퓨터)
 - 교원 역량 강화 및 교육 품질인증 체제 구축 등

【이집트 UNFPA 젠더 폭력 예방 및 대응 사업】

- 사업 목적
 - 이집트 젠더 폭력과 여아 및 여성 대상 여성 성기 절단, 조혼 등 유해 관습 퇴치를 위한 인식 제고 활동을 통해 이집트 내 젠더 폭력 예방 및 대응
- 사업 수행 기관
 - 사업 수행(다자성 양자) : 유엔연구기금(UNFPA)
 - 이집트 수원 부처 : 국가여성위원회(NCW), 청년체육부(MoYS)

- 사업 내용

- ▲주체성 향상 역량강화 훈련 프로그램 실시 ▲지역사회 캠페인 및 아웃리치 프로그램 실시 ▲청소년센터 내 인구인식개선클럽 (Population Awareness Club) 증설 ▲지역 젠더 폭력 대응 및 연계 체계 강화 등

【이집트 UN Women 여성 경제역량강화 사업】

- 사업 목적

- 이집트 민간 부문의 성평등 인식 제고 및 제도 개선 유도, 여성 취·창업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이집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

- 사업 수행 기관

- 멀티바이 사업 수행 : 유엔여성기구(UN Women)
- 이집트 수원 부처 : 국가여성위원회(NCW)

- 사업 내용

- ▲기업 성평등 정책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역량강화 활동(워크숍 등) ▲여성 친화적 기업 육성을 위한 역량 평가 및 액션플랜 수립 ▲여성 기업가 및 중간관리자 대상 교육 훈련 ▲대중 대상 성평등 인식 제고 캠페인 ▲여성 취·창업 교육 훈련 등

【이집트 정부 서비스청 공공전자조달 시스템 개선사업】

- 사업 목적

- 이집트 공공조달 시스템 현대화를 통한 조달 프로세스의 효율성 향상 및 조달 행정의 투명성 확보
-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 및 공공조달 시장 육성에 기여

- 사업 수행 기관

- 우리측 : KOICA (사업 시행 기관 미정)
- 이집트측 : 이집트 재무부 및 정부 서비스청(GAGS)

- 사업 내용
 -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전자조달 관련 서비스 개발, 서버 등 기자재 지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시교통현대화(ITS) 마스터플랜 수립】

- 사업 목적
 - 이집트 제2의 도시이자 주요 관광지인 알렉산드리아주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장기적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마스터플랜 수립
- 사업 수행 기관
 - 우리측 : 평화엔지니어링
 - 이집트측 : 알렉산드리아 주정부 이집트 카이로주 폐기물 관리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 사업 목적
 - 카이로주 폐기물 현황 및 정책, 기술 등을 분석하여 중점 개선 방안을 도출
- 사업 수행 기관
 - 우리측 : 유신
 - 이집트측 : 환경부

【국별 연수 프로그램】

- 2021년 현재 KOICA 프로그램으로 수원 총괄 기관(국제협력부) 대상 ‘원조 자원관리 역량강화’, 국가여성위원회 대상 ‘성인지 정책 및 프로그램 역량강화’, 보건부 대상 ‘보건 분야 국제협력 역량강화’, 철도관리청 대상 ‘철도 기술 역량강화’ 등 4개 국별 연수 등 시행

【글로벌 프로그램】

- 다국가 연수 : 2021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어 과정 온라인 연수 2건 진행
- 석사학위 과정 : 2021년 중 총 7명 석사학위 과정 선발 (서울대, 연세대, KAIST 등 6개 학교)

4) 유상원조

■ 지원 개요

- 2016년 알시시 대통령 방한 계기 합의한 30억 달러 금융협력 패키지 (EDCF 7억 달러, 수출 금융 23억 달러)를 활용한 프로젝트 수주 지원
- 2021.12월 현재까지 교통 분야 3개 사업*에 대해 약 6.3억 달러의 EDCF 지원
 - * 철도 전자연동시스템 구축 사업,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전동차 구매 사업, 이집트 룩소르-하이담 구간 철도 현대화 사업

■ 사업 추진 현황

【이집트 철도 전자연동시스템 구축 사업】

- 사업 목적 : 철도시스템 현대화를 통한 철도 안전성 확보 및 수송 효율 증대
- 사업 내용 : 나가 하마디(Nagh Hammady)~룩소르(Luxor) 간 118km 구간에 철도 전자연동시스템, ATP(열차제어시스템) 등 도입
- 차관 한도 : 1억 1,500만 달러 (총사업비 : 1억 1,660만 달러)
- 사업 실시 기관 : 이집트 철도청(Egyptian National Railways)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전동차 구매 사업】

- 사업 목적 :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앞 전동차량 공급을 통하여 전동차 운행 효율성·안전성 제고, 여객 수송 능력 확대, 카이로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
- 사업 내용 :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앞 전동차량 256량 공급
- 차관 한도 : 2억 4,300만 유로 (총사업비: 8억 1,600만 유로)
- 사업 실시 기관 : 이집트 터널청(National Authority for Tunnels)

【이집트 룩소르-하이담 구간 철도 현대화 사업】

- 사업 목적 : 철도시스템 현대화를 통한 철도 안전성 확보 및 수송 효율 증대
- 사업 내용 : 룩소르(Luxor)~하이담(High Dam) 간 신호 및 통신 시스템의 현대화
- 차관 한도 : 2억 5,160만 달러 (총사업비 : 3억 1,225만 달러)
- 사업 실시 기관 : 이집트 철도청(Egyptian National Railways)



가. 한류 현황

1) 개 관

- 이집트 내 한류는 2004년 한국 드라마 <가을동화>, 2005년 <겨울연가> 방영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전 세계적인 K-Pop 열기에 힘입어 현재는 이집트의 주요 문화 트렌드로 정착 중
- 최근에는 한국어 교육, 한국 음식, K-Beauty, K-Content 등에 이르기까지 한류가 확산되는 추세
- 대사관이 실시한 2021년 이집트 국민(1,000명) 대상 한국에 대한 인식도 설문조사(최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 이상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이집트 국민들도 상당수

주요 설문조사 결과

- 1) 1,000명의 응답자 중 92%는 한국을 긍정적으로 또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인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창의적(creative), 규율을 잘 지킴(well-disciplined), 정돈됨(orderly), 적극적(active)이라고 답변
- 2) 응답자들은 한국 하면 가장 먼저 경제발전(37%), K-Pop / 엔터테인먼트(21%), 첨단기술(18%), 한식(8%) 등을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남.
- 3) 응답자들은 BTS와 같은 한국의 음악가(49%)들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다음은 한국 드라마 속 인물(22%), 정치인(16%), 운동선수(9%) 등
- 4) 응답자의 99%는 한국 제품의 품질이 좋다고 평가. 다만 예상 외로 이집트에서 판매되는 한국 제품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9%에 불과했으며, 이들은 자동차, 전자제품, 삼성, 화장품, 기아, LG 등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변
- 5) 전체 응답자의 50%는 한국 문화 중 관심을 갖는 분야가 영화라고 대답. 그 다음은 한식(46%), K-pop(44%), TV 프로그램(41%), K-Beauty(39%) 등

2) 한국어

- K-Pop, 한국 드라마 등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어 교육 수요도 함께 증가
- 한국어 고등교육기관으로는 지난 2005년에 개설된 아인샴스대학교 한국어학과와 2016년 개설된 아스완대학교 한국어학과가 있으며, 한국문화원의 세종학당, 국방언어학교 등에서 한국어 강좌를 운영 중
- 아인샴스대학교 한국어학과와 경우 카이로대학교 정경대학과 함께 이집트 대학입시 최고 성적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세종학당 강좌도 높은 경쟁률 속에 진행

3) K-Pop

- K-Pop은 주로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으며, 이들은 주로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최신 음악을 접하고 정보를 공유
- 2021.12월 현재 약 90개 팬클럽, 약 31만 명의 팬들이 활동
 - BTS 팬클럽(15,300명), EXO 팬클럽(5,100명) 순으로 많은 회원 보유

4) 드라마

- 2004년 이집트 국영방송을 통해 <가을동화>가 방영된 이후, 드라마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결집시키는 중요 구심점으로 역할
 - 2018년에는 <질투의 화신>, <낭만닥터 김사부>가 방영되었으며, 2020년 초에는 <구르미 그린 달빛>, <시그널> 등 2편이 방영
- 2021년 <오징어게임>, <지옥(Hellbound)>이 이집트 내에서도 한달간 1위

5) 한 식

-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한국 식당을 찾는 이집트인이 늘고 있으며, 카이로 소재 한국 식당에는 현지인 고객 비율이 높아 한식의 인지도와 인기가 확산되는 추세

6) 영화

- <부산행>, <기생충> 등 한국 영화가 일반 대중들에게 큰 호응, 2021년 카이로 국제영화제에서 홍성은 감독의 <혼자 사는 사람들(Aloner)>이 동상(3위) 수상

7) 그 밖의 K-Culture

- 최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기존의 드라마와 K-Pop에서 K-Beauty, K-Content 등 최신의 한국 문화 트렌드로 확산 중
- 한국의 미용문화를 소개하는 K-Beauty 행사(2019)와 한국의 게임·애니메이션 등을 소개하는 K-Content 행사(2018~2019) 등이 일반 시민들과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자리매김

나. 양국 간 교류 사업

- 경주시~룩소르 간 우호도시 합의서 체결
 - 2019.3월 경주시장이 이집트 남부 고대 도시 룩소르를 방문, 양국의 고대 도시 간 우호도시 합의서 체결
 - 2019.10월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계기, 룩소르주 부지사 등으로 구성된 친선사절단이 경주를 방문, 두 도시 간 친선교류 본격화

- 정부초청장학사업(GKS)
 -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장학사업 대상자로 매년 이집트 학생 5~6명이 선정되어 한국으로 유학
 - ※ 석·박사과정 4~5명, 학사과정 1명 등 매년 5~6명 수혜
 - 1975년 이후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GKS 수료자는 2021년 현재 총 85명이며, 2019.5월 GKS 동문회 결성
- 주요 인사 방한 사업
 - 국제교류재단(KF)·해외문화홍보원 등 관계기관의 방한 사업을 활용, 이집트 정부 주요 인사 및 유력 언론인 등의 방한 사업을 매년 추진해 왔으나 현재 코로나19로 잠정 중단
 - 2019년도에는 Mohesin Arichi 《이집션 가제트》 편집장 등 언론인 3명 방한
- 서울공원 조성
 - 카이로-서울시 자매결연 기념으로 1998.9월 카이로에 서울공원 조성
 - 2012.2월, 2019.1월 두 차례에 걸쳐 보수 공사를 진행, 양국 간의 문화교류의 장으로 적극 활용
 - ※ 광복절 행사(2018.8.15.), 카이로 선언 기념행사(2019.11.24.) 등을 서울공원에서 개최, 이집트 주요 인사 참석 하에 진행

다. 이집트 국민 대상 문화·공공외교 활동

1) 문화 행사 개최 현황(2021)

- 세계 남자 핸드볼 선수권대회(1.14.~1.16.)
 -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경기 지원 및 응원 행사 개최
- 봄봄하게 김치(5.3.~5.23.)
 - 이집트 봄의 날을 맞아 김치 및 김장 문화 소개

- 퀴즈 온 코리아(6.17.~6.28.)
 - 한국 전통 및 동시대 문화에 관한 퀴즈 대회 개최
- 한국 문학의 달(7.1.~7.28.)
 - 제52회 카이로 국제도서전 참가 등 이집트 국민 대상 한국 문학 작품 소개
- 엘-폴리 전 아프리카 태권도연맹 회장 훈장 전수식(8.17.)
- 제14회 한국 대사배 태권도대회(8.29.~10.5.)
 - 이집트 태권도 선수 및 수련자 대상 온라인 품새대회 개최
- 찾아가는 한국문화원 - 포트사이드(9.24.)
 -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 거점 도시 방문 한류 행사 개최
- K-Pop Academy(9.22.~10.11.)
- 한국문화주간 행사(10.20.~10.30.)
 - 영화제, 전시, K-Pop 콘테스트 등 종합 한류 문화 행사 개최

2) 디지털 공공외교 활동(2021)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추세에 맞춰 디지털 공공외교 활동 강화를 위해 이집트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각종 디지털 콘텐츠 20여 편을 제작, 홍보
- 한국 관련 콘텐츠 확산 및 공관 공공외교 활동의 자문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운영 중인 이집트 국민 15명을 이집트-한국 디지털홍보대사(EKDA, Egypt-Korea Digital Ambassador)로 위촉(2021.9월), 운영 중



가. 한·이집트 방산 협력

- 2000년 초까지 특수차량(항공기 급유차, 활주로 정비 차량 및 유도조명등, 굴삭기) 일부 판매 협력 등
- 2005년 이후 우리나라의 방산 기술 도입 희망 등 방산 협력 논의 개시
- 2006. 3월 한·이집트 정상회담 이후, 155밀리 포병 탄약, K-9 자주포 생산 및 기술협력 등 논의
- 2009.12월 방산물자부장관 방한, 한국 방사청과 방산 협력 MOU 체결
- 2010. 9월 이집트 국방부(포병부) 전력 관계관, K-9 자주포 성능 확인 및 생산라인 실사를 위해 방한
- 2010 방사청장(11월)·방산교역센터장(12월)의 이집트 방산 물자부장관 방문
- 2012 ~ 삼성테크윈-이집트 국방부(전력국) 간 K-9 자주포
- 2014. 4월 협력 논의 및 삼성테크윈사 제안서 제출
- 2014.11월 방산보안사절단(방사청,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10개사 등) 이집트 방문, 방산 홍보
- 2015. 6월 정광균 대사, 세드키 솅히(Sedki Sobhi) 이집트 국방 장관 방문 시 K9 자주포 등 방산 협력 논의
- 2015.10월 해군 순양훈련전단 알렉산드리아 기항, 방산 홍보
- 2015.10월 수에즈함대 사령관 등 이집트군 4명, 2015 ADEX 참관

- 2015.10~11월 한화테크윈, 현대중공업 이집트 방문, 방산 홍보
- 2017. 3월 한·이집트 국방협력 MOU 체결
- 2017. 8월 한국 해군참모총장 이집트 방문, 군사협력 논의
- 2017. 9월 이집트 국방장관 방한
- 2017.10월 이집트 방산물자부장관 방한
- 2017.10월 우리 퇴역함(진주함) 이집트 해군에 양도
- 2018. 4월 윤여철 대사, 이집트 해군사령관 방문, 방산 협력 논의
- 2018. 7월 윤여철 대사, 이집트 방산물자부장관 방문, 방산 협력 논의
- 2018.12월 방위사업청장, 이집트 방문
- 2019. 3월 한국 방산업체, 이집트 현지 설명회 개최
- 2019. 4월 윤여철 대사, 이집트 해군사령관 방문, 방산 협력 논의
- 2019.10월 해군 순양훈련전단 알렉산드리아 기항, 방산 홍보
- 2020. 1월 윤여철 대사, 이집트 방산물자부장관 방문, 방산 협력 논의
- 2021. 5월 강은호 방사청장, 이집트 방문 및 방산 협력 강화 논의
- 2021. 8월 서욱 국방부장관/강은호 방사청장 이집트 방문 및 주요 인사(대통령·국방부장관 등)와 방산 협력 확대 논의
- 2021. 10월 이집트 방산물자부장관 방한 및 방산 협력 논의
- 2021.12월 이집트 방산 전시회(EDEX)에 국방부, 방사청, 한국 기업 등 70여 명 참석

■ 주요 계약 및 협정 체결 현황

- 2007. 8월 삼성테크윈·한화·풍산 155밀리 포병탄 생산 기술 이전(1억 달러 규모)
- 2009.10월 코리아일레콤, 마일즈 판매 (4천만 달러 규모)
- 2009.10월 현대중공업, Loader/부속 판매 (77만 달러 규모)
- 2011. 6월 삼성테크윈, 120/130밀리 탄약 R&D 협력 (100만 달러 규모)

나. 군사 외교/협력 추진

• 고위 인사 방문

- 이집트 방문

육군참모총장(2008.6월), 정보본부장(2010.2월), 방위사업청장(2010.1.1),
유명환 대통령 특사(2012.10월), 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2014. 11월),
국방부차관(2017.3월), 해군참모총장(2017.8월), 해외정보부장(2017. 11월),
방위사업청 운용부장(2018.7월), 방위사업청장(2018.12월), 국방부
국제정책차장(2019.7월)

- 한국 방문

방산물자부장관(2009.9월), 포병부장(2010.9월), 수에즈함대사령관
(2015.10월), 국방부장관/해군사령관(2017.9월), 방산물자부장관(2017.
10월), 국방부차관(2018.9월), 국방부차관(2019.9월), 국방부 기갑국장
(2019.10월), 방산물자부장관 보좌관(2019.10월)

• 교류 협력

- 한국군

- 2019년 4년 만에 해군 순양훈련전단의 알렉산드리아 기항(2005,
2007, 2008, 2009. 2015, 2019)
 ※ 방산홍보관 운영, 함정 개방, 문화 공연 등
- 이집트 국방언어학교 한국어과 개설(2012) 및 운영 지원
 ※ 한국어 교사 파견(KOICA), 교육용 대형 TV/한국어 교재 지원 등 지속

- 이집트군

- 2015.10월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이집트군 대표단 역대 최대 규모(10개 종목, 총 149명) 참가
- 2017.10월 주한이집트 국방무관부 개설

• 군사 교환 교육

- 이집트→한국

연도	국방대학교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	국방어학원
2013	대령 1	각군 중령 1	소령 2		
2014		중령 1			
2015		각군 중령 1			
2016	준장 1	중령 1		중령 1	소령 1
2017	준장 1	중령 1		중령 1	
2018	준장 1	소령 1		소령 1	중령 1
2019	준장 1	중령 1			
2020					소령 1
2021		중령 1			소령 1
2022(예정)		소령 1			소령 1

- 한국→이집트 : 2017년 지휘참모대학, 육군 소령 1

2018년 지휘참모대학, 공군 중령 1, 해군 소령 1

2020년 지휘참모대학 육군 소령 1

2022년 지휘참모대학 공군소령 1, 해군소령 1(예정)

5 영사 및 재외동포



가. 이집트 체류 우리 국민(2019)

1) 재외국민 수

- 2021.5월 기준 재외국민 수는 약 750명으로, 대부분 카이로에 거주

2) 구 성

- (가족 포함) 지상사 주재원 230여 명, 선교사 180여 명, 현지 개인 사업자 100여 명, 대사관 등 정부기관 80여 명, 여행·요식·숙박업자 50여 명 등

나. 한인 단체

1) 재이집트 한인회

- 창립 : 1980.12.5.
- 회장 : 조찬호 (2022년 연임 예정)
- 활동 : 연례 정기행사 2회 (4월 한인회 체육대회, 추석 행사)

2) 이집트 지상사 협의회

- 창립 : 1988.4월
- 회장 : 권춘기 (삼성전자 생산법인장, 2021년 임기 만료)
- 활동 : 경제·통상 분야 정보 교환 및 협력 등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카이로 지회(제20기)

- 임기 : 2021.9.1.~2023.8.31.
- 자문위원 : 노승구 지회장(Goldenhill Construction 대표) 등 5명

4) 카이로 한국학교

- 연혁
 - 1979.12. 5. 개교
 - 1980.4.15. 교육부 설립인가
- 운영
 - 교 장 : 김인봉 (2021.9월 부임)
 - 교 사 : 6명 (정부 파견 5명, 고용 휴직 1명)
 - 학 생 : 초등학교 6학급(1~6학년), 총 27명
 - 2000.9월 교사 신축 이전

5) 종교단체

- 카이로 한인교회 (이창원 담임목사)
- 애급 한인교회 (한태현 담임목사)
- 이·한 사역자협회 (황효민 목사)

다. 한·이집트 사증협정

- 외교관, 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체결(1998.6.24.)
 - 90일간 무비자 체류
- 일반 여권 소지자
 - 이집트 방문 우리 국민은 이집트 공항에서 30일 단기체류 비자(Visa on Arrival) 취득 후 입국(수수료 25달러)

- 한국 방문 이집트 국민은 사전 비자 발급 필요
 - ※ 과거 이집트인은 한국 방문 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였으나, 불법체류 및 난민 신청 증가로 2018.9.1.부터 이집트를 무사증 국가에서 제외
- 이집트는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도 없음
 - 외국인이 현지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work permit) 필요

IV

이집트·북한 관계





- 1958. 7. 9. 주카이로 북한 무역대표부 개설
- 1961. 7. 30. 주카이로 북한총영사관 설치 합의
- 1961. 11. 27. 주카이로 북한총영사관 개설
- 1963. 8. 25. 외교관계 수립 (대리대사급)
- 1963. 8. 28. 주이집트 북한대사관 설치
- 1964. 12. 26. 대사급 외교관계 승격 합의
- 1970. 4. 6. 주이집트 북한문화원 개설
- 1998. 8. 16. 주이집트 북한문화원 폐쇄
- 2018.4월 주북이집트대사관 무관부 철수
- 2018.10월 주북이집트대사 복귀 (이후 대사대리 체제)
※ 현 마동희 주이집트 북한대사(2017.1월 부임~)

2 양국 관계 개요



- 1963.8월 수교 이래 양측이 상주 대사관을 유지해 오다가 1973년 4차 중동전쟁 당시 북한 조종사 파견, 무바라크 대통령의 4차례 방북(1980, 1983, 1985, 1990)¹ 등 긴밀한 정치·외교 및 군사적 협력 관계 유지
- 제4차 중동전쟁 당시 무바라크는 공군 총사령관
- 1990년대 이후 이집트의 실용주의 대외정책 추진, 1991.1월 제1차 걸프전쟁 당시 북한의 이라크 지지, 1994.7월 김일성 주석 사망에 따른 무바라크 대통령의 개인적 친밀 관계 부담 해소, 1995.4월 한·이집트 수교, 1987.7월 및 2004.7월 북한 외교관의 마약류 밀반입 적발 등이 이어지면서 양국 관계 지속 악화
- 북한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2005.9월 무바라크 대통령 5차 연임 축하 및 2007.7월 친선 방문, 2009.7월 제15차 비동맹정상회의 참가 등으로 관계 회복을 시도했으나 2011.2월 무바라크 대통령 하야로 성과 미흡
- 이러한 가운데 2015.3월 제4차 북한·이집트 정례협의회 개최를 위해 신흥철 외교부 부상이, 같은 해 8월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위원장이 제2수에즈 운하 개통 행사 참석차 이집트를 방문하는 등 활발한 고위 인사 교류를 시도
- 그러나 이집트 정부가 불법무기를 선적하고 자국 영해를 향해 중이던 지선(Jie Shun)호를 압류(2016.8월)한 데 이어 평양 주재 무관부를 폐쇄(2018.5월)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 양국 관계 소원

1 1992년 중국·북한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중국 방문 기간에 이집트에서 대지진이 발생해 북한 방문을 취소하고 급거 귀국

- 양자 간 경제·통상 관계는 1957.12월 및 1987.10월 무역협정, 1997. 8월 투자보장협정 및 2000.3월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으로 경제협력 확대 기반을 모색 중이나, 북한의 경제난으로 연간 5,000만 달러 미만의 미미한 교역 관계 유지
- 한편, 2008.1월 이래 이집트의 오라스콤사가 이동통신·시멘트 공장 현대화 및 유경호텔 건축사업 참여 등을 통해 대북 투자 사업을 진행
 - 오라스콤사는 북한 내 이동통신사업(고려링크) 투자에서 상당한 수익 (5억 달러 규모)을 냈으나, 투자 수익의 본국 송금이 제한되고 투자 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의 국유화 시도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
- 현재 북한은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당시 2개 편대 규모의 자국 공군 조종사를 이집트에 파견, 이스라엘로부터 제공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것을 계기로 카이로에 상주 무관부를 설치, 운영 중
 - 이집트 주재 북한 무관부는 중국·러시아·베트남·DR콩고·시리아·이란·쿠바 등 총 8개 해외 무관부 가운데 하나
 - 이집트는 2018.4월 북한 주재 무관부 철수
- 2021년 현재 북한·이집트 간 실질적인 정치·군사 협력 관계는 극히 미미한 수준

3 주요 인사 교류 현황



가. 이집트 방문

- 1990. 3월 이종옥 부주석 (김일성 특사)
- 1990. 8월 지수원 외교부 부부장
- 1991. 9월 김영남 외교부장
- 1992. 1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의장
- 1992. 3월 이종옥 부주석
- 1992. 3월 김달현 부총리 겸 무역부장
- 1993. 1월 장승길 외교부 부부장
- 1993. 5월 황진태 사회안전부장
- 1994. 3월 최기룡 교육위원장 (김일성 특사)
- 1994. 5월 김영남 외교부장 (제11차 비동맹 각료회의)
- 1994. 5월 최수현 외교부 부부장
- 1995. 5월 채화섭 관광총국 부국장
- 1998. 8월 박길연 외교부 부부장
- 1998.10월 정창렬 인민무력부 부부장
- 2001. 3월 문재철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 대리
- 2001. 3월 신해복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
- 2005. 6월 최수현 외무성 부상
- 2007. 7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 2009. 7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 2010. 6월 김형준 외무성 부상
- 2015. 3월 신형철 외무성 부상
- 2015. 8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나. 북한 방문

- 1990. 5월 무바라크 대통령
- 1990.10월 Rashid 이집트 노총위원장 일행 (노동당 창당 기념 대회)
- 1991. 4월 Sorour 국회의장 (IPU 참석)
- 1992. 4월 Yousef 문화부차관
- 1993. 6월 Shawky 공보부차관
- 1993.10월 Hassan Al Alfi 내무부장관
- 1994. 4월 Rahman 문화부차관 (4월 평양축제)
- 1996. 4월 Ali Abu Shady 문화부차관
- 1998. 4월 Hussein Adel Moneim Tolba 문화부차관
- 1999. 4월 Omar Gamil Goneim 문화부 차관보
- 2000. 4월 Muhamed Al Ayonbi 문화부 차관보
- 2000. 9월 Ghatrifi 외교부 차관보
- 2005. 9월 Nagda Abu Heaf 공보부 부국장
- 2005.12월 Mohamed El Fathalla 외교부 대사
- 2007. 3월 Naguib Sawiris 오라스코통신사 회장
- 2008.12월 Naguib Sawiris 오라스코통신사 회장

- 2009. 2월 Hussein Haridi 외교부 아태차관보
- 2009. 9월 Naguib Sawiris 오라스콤통신사 회장
- 2011. 1월 Naguib Sawiris 오라스콤통신사 회장
- 2012. 2월 Mohamed Hegazy 외교부 아태차관보
- 2014.10월 Naguib Sawiris OTMTI사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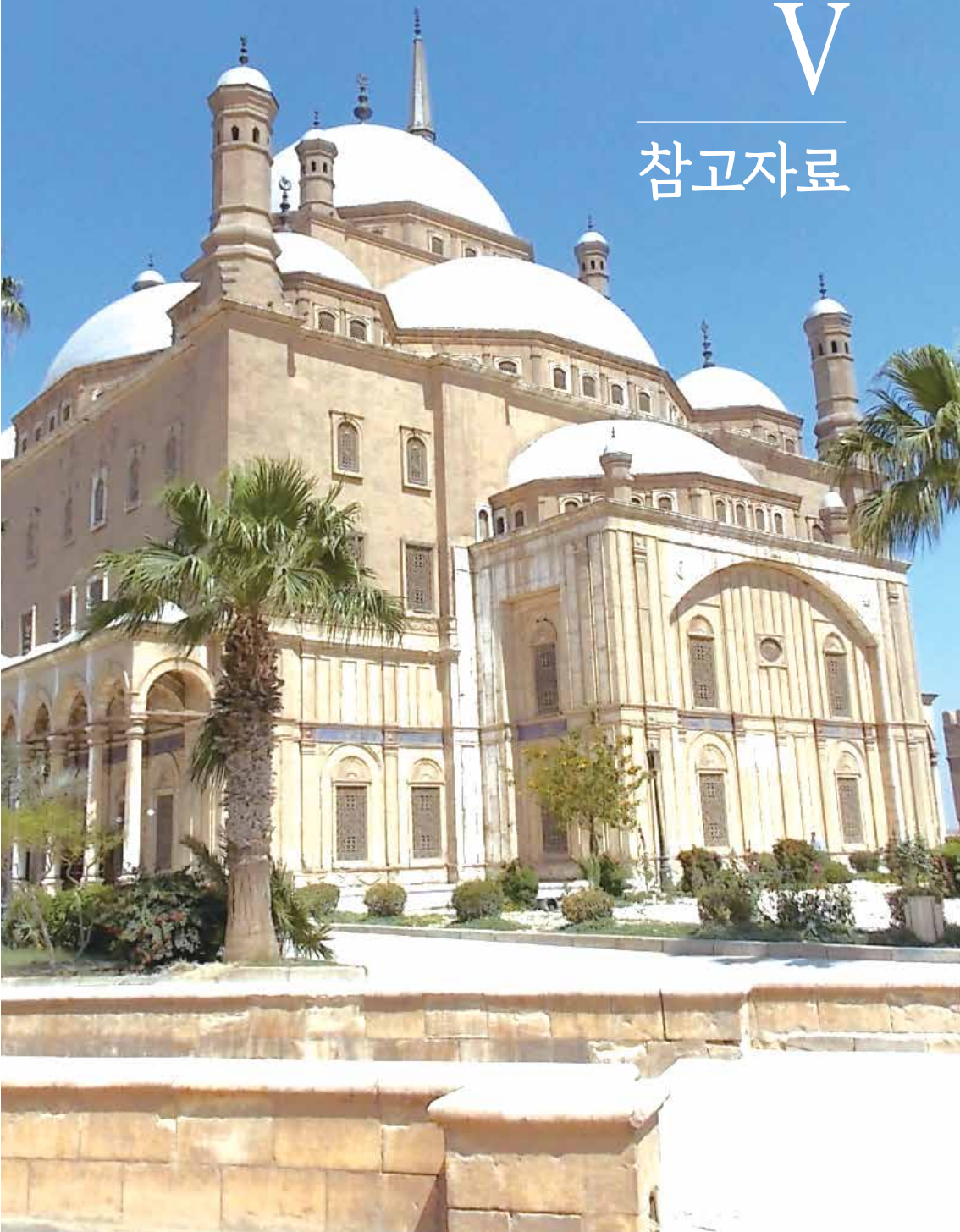
4 이집트·북한 협정 체결 현황



- 1957.12월 무역협정 (1987.10월 갱신)
- 1963.11월 보도교환 및 상호협조에 관한 협정
- 1969. 4월 문화교류협정 (2001.3월 갱신)
- 1969. 4월 과학기술협정
- 1969. 5월 군사협력협정
- 1975. 6월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
- 1983. 4월 경제과학기술 및 문화협조에 관한 일반협정
- 1993.10월 사회안전·내무 협정
- 1996. 2월 해운협력협정
- 1997. 8월 투자보장협정
- 1997.11월 의류 및 의약품 지원 협정
- 1999. 9월 공보협력협정
- 2000. 3월 이중과세방지협정
- 2000. 5월 보건협력협정
- 2001. 1월 차관(700만 달러) 협정
- 2007.10월 문화교류증진협정
- 2011. 7월 김일성대-카이로대 교류 합의서
- 2013.11월 문화협조 이행계획서

V

참고자료



1 아랍연맹 개관



가. 개요

- 1945.3월 ▲아랍 각국의 주권 확보 ▲중동 평화 ▲反이스라엘 운동을 기치로 출범(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 레바논 6개국으로 출발)
 - 회원국 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연대 강화 및 회원국 간 혹은 제3자와의 분쟁 조정 목적
 - ※ 사무국 : 카이로 소재 / 현 사무총장 : Ahmed About Gheit 前 이집트 외교장관
- 2021.12월 현재 회원국(22개국) :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집트, 수단, 리비아,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모리타니, 소말리아, 지부티, 코모로, 팔레스타인
 - ※ 시리아는 2011.11월부터 회원 자격 정지



나. 조직

- 정상회의(연 1회, 통상 3월에 개최), 각료회의(외교장관회의) 연 2회(3월, 9월)
산하 11개 상임위원회 및 이스라엘 보이콧 사무국 등
 - 1국 1표 원칙,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회원국 2/3 찬성으로 결정
- 사무국(카이로¹)은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² 1명 ▲사무차장(Deputy SG) 1명, 9개 부문(Sector)별 사무차장보(Assistant SG) 9명으로 구성
 - 9개 부문 : ▲팔레스타인 및 아랍 점령지 ▲경제 ▲인사 및 재무
▲아프리카 기술원조를 위한 아랍기금 ▲안보 ▲법무
▲정무 ▲공보 ▲사회
 - 정무 담당 사무차장보 산하에 ▲아프리카 및 아랍·아프리카 협력국
▲유럽국 ▲미주국 ▲아주국 ▲국제기구국 ▲follow-up팀 운영

다. 주요국과의 관계

- 전 세계 26개 지역에 대표부 설치 (대사 및 아랍연맹 소속 외교관 파견)
 - ▲아프리카 8개(아디스아바바, 나이로비, 프리토리아, 수단, 남수단, 소말리아, 리비아, 튀니지) ▲아시아 3개(베이징, 뉴델리, 베이루트) ▲미주 4개(워싱턴, 유엔, 브라질, 아르헨티나) ▲유럽 11개국(브뤼셀, 파리, 빈, 베를린, 제네바, 로마, 런던, 마드리드, 모스크바, 앙카라, 몰타)

1 1979년 이집트-이스라엘 평화협정 체결로 이집트의 아랍연맹 회원 자격이 정지되어 카이로 소재 사무국이 튀니지로 이전되었으나, 1989년 이집트의 회원 자격 회복으로 사무국도 카이로로 귀환

2 상기 이집트의 회원 자격 정지 기간을 제외하고 아랍연맹 사무총장은 관행적으로 이집트인이 계속 수임

- 중국·일본·러시아·EU·인도와는 장관급 포럼 개최 중
 - 아랍연맹 22개 회원국 및 비회원국 각료가 참여하는 포럼을 통해 실질협력 강화(통상 협력 MOU 체결 이후, 단계적으로 포럼 관계로 발전)
 - 포럼 관계 수립을 위한 MOC(Memorandum of Cooperation)는 아랍연맹 각료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체결 가능

아랍연맹과의 장관급 협력포럼 시행 현황

국 가	협력 현황
중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부터 외교장관급 포럼 개최 - 2004(카이로), 2006(베이징), 2008(바레인), 2010(텐진), 2012(튀니지), 2014(베이징), 2016(카타르), 2018(베이징)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부터 일-아랍연맹 경제포럼 개최 - 2009(도쿄), 2010(튀니스), 2013(도쿄), 2014(모로코), 2016(모로코), 2019(이집트)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1월 제1차 러-아랍연맹 협력포럼 개최(러시아) • 2014.12월 제2차 러-아랍연맹 협력포럼 개최(수단) • 2016.3월 제3차 러-아랍연맹 협력포럼 개최(러시아) • 2017.2월 제4차 러-아랍연맹 협력포럼 개최(러시아) • 2019.4월 제5차 러-아랍연맹 협력포럼 개최(러시아)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부터 장관급 포럼 개최 - 27개 EU 회원국, 22개 아랍연맹 회원국 외교장관 참석 - 2008(몰타), 2012(카이로), 2014(아테네), 2016(카이로), 2019(카이로) ※ 2019.2월 제1차 EU-아랍연맹 정상회의 개최(카이로)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12월 각료급 포럼 설치 합의 - 2016.1월 인도-아랍연맹 협력포럼 개최(바레인) • 2019.1월 인도-아랍연맹 협력포럼 개최(인도)

아랍연맹 회원국의 국제사회 주요 그룹 가입 현황

국가	G 77	G 24	NAM	OIC	AU	AMU	GCC	OPEC	WTO						LD Cs	G 20	GAF TA	남북한 수교		
									ACP	African Group	G20	G90	RAMs	LDC Group	NAMA 11			동시	한국	북한
Algeria	○	○	○	○	○	○		○									○	○		
Bahrain	○		○	○			○										○	○		
Comoros	○		○	○	○											○		○		
Djibouti ¹	○		○	○	○				○	○		○		○		○		○		
Egypt	○	○	○	○	○						○	○			○		○	○		
Iraq	○		○	○				○									○		○	
Jordan	○		○	○									○				○	○		
Kuwait	○		○	○			○	○									○	○		
Lebanon	○	○	○	○													○	○		
Libya	○		○	○	○	○		○									○	○		
Mauritania	○		○	○	○	○			○	○		○		○		○		○		
Morocco	○		○	○		○				○		○					○	○		
Oman	○		○	○			○						○				○	○		
Palestine			○	○													○			
Qatar	○		○	○			○	○									○	○		
Saudi Arabia	○		○	○			○	○					○			○	○		○	
Somalia	○		○	○	○											○				
Sudan	○		○	○	○											○		○	○	
Syria	○	○	○	○													○			
Tunisia	○		○	○	○	○				○					○		○	○		
UAE	○		○	○			○	○									○	○		
Yemen	○		○	○												○		○	○	

※ G24 : 국제 금융·개발 현안에 대한 개도국 입장 반영을 위한 그룹 AMU : Arab Maghreb Union

ACP :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countries (EU로부터 특혜 관세)

G20 (WTO) : 선진국의 농업 개혁과 개도국에 대한 유연성을 요구하는 WTO 개도국 그룹

G90 : African Group + ACP + LDC

RAMs : Recently Acceded Members (WTO 가입 협상 결과 이미 많은 시장개방을 약속한 것을 이유로 WTO 무역자유화 협상 시 자국에 대한 개방 수준의 제한을 요구하는 WTO 회원국 그룹)

NAMA 11 : 공산품 시장 개방 수준 제한을 요구하는 WTO 개도국 회원국

라. 주요 활동 및 정책 방향

-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 기조 유지
 -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패배 계기 ‘불강화, 불승인, 불교섭’이라는 對이스라엘 3원칙 채택 → 2002년 ‘Arab Peace Initiative’ 채택
 - ▲이스라엘의 아랍 점령지에서 완전 철수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 ▲팔레스타인 난민 귀환권 보장이라는 조건 하에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 정립
- 미국 트럼프 정부의 친이스라엘 입장에 대한 강경 대응
 - 2017.12월부터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수도 인정, 예루살렘으로의 미국 대사관 이전, 시리아 골란 고원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 인정, UNRWA(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재정지원 중단,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경, 미국의 골란 고원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 인정 등 미국 트럼프 정부의 친이스라엘 행보에 대해 국제법과 합법적 국제 결의 등을 위반하는 편향적인 결정이라고 지속 규탄
- 미국 바이든 정부가 2국가 해법 지지 재확인하고, UNRWA 재정지원 재개 등 팔레스타인 문제에 온건한 입장으로 선회한 데 대해 환영을 표하고 중동 평화 프로세스 내 기본 파트너인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기대
- ‘아랍의 봄’으로 촉발된 중동 지역 변화 요구에 대처하는 노력 강화
 - ▲2011.3월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설정 주도 ▲2011년 시리아의 아랍연맹 회원 자격 정지 및 대 시리아 제재 조치 승인 등을 통해 정치체제 전환 촉진
 - ISIS 등 극단주의 테러 세력 발호에 대한 강경한 대응 및 동 테러 조직들이 이슬람교와 완전히 배치됨을 강조

- 대테러 공동대응을 위한 아랍연합군(Joint Arab Forces) 창설 추진
 - 2015.2월 리비아 내 ISIS 세력이 자행한 이집트 콥틱 기독교도 21명 살해사건을 계기로, 3월 말 아랍연맹 정상회의(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 개최)에서 이집트 알시시 대통령이 ‘아랍연합군’ 창설을 제안, 원칙적 합의에 도달
 - 아랍연합군 관련 세부 사항 논의를 위해 아랍연맹 군 참모총장 회의를 두 차례(2015.4.22. 및 5.23.~24.) 개최
 - 2015.8.27. 개최 예정이었던 ‘아랍연맹 공동방위이사회(Joint Defence Council)’에서 프로토콜(Protocol)이 채택될 예정이었으나, 사우디 등의 반대로 무기한 연기된 상태
- 여타 리비아·예멘 사태 해결, 이란의 역내 간섭 행위, 터키의 이라크 주권 침해 문제 등도 비중 있게 논의
 - 회원국들은 아랍권 사태에 대한 이란과 터키의 개입에 반감 표시

마. 한·아랍연맹 협력 관계

-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이집트 방문 시 아랍연맹 방문, 연맹 사무총장과 22개국 상주 대표 접견
- 2013년 한·아랍연맹 간 MOU 체결을 바탕으로 협력 중
 - 2013.9월 유엔 총회 계기, 우리 외교장관-아랍연맹 사무총장 간 「한·아랍연맹 협력 MOU」 체결 및 제1차 한·아랍연맹 회담 개최
 - 2014.9월 유엔 총회에서 제2차, 2015.9월 제3차 한·아랍연맹 회담 개최 등 우리 외교장관-아랍연맹 사무총장 간 연례 협의 정례화
 - ※ 한·아랍연맹 협력 MOU 주요 내용
 - ▲매년 유엔 총회 계기 장관과 아랍연맹 사무총장 간 협의회 ▲양측 유엔 대표부 간 협의회 ▲장관(또는 그 대리인)과 주한아랍연맹 회원국 대사들 간 협의회 ▲한·아랍연맹 국장급 정례협의회

- 한·아랍연맹 간 국장급 정례협의회 개최
 - 2014.2월 제1차(서울), 2015.6월 제2차(카이로) 회의 개최
 - 우리측(수석대표 : 외교부 아중동국장), 아랍연맹(수석대표 : 정부담당 사무차장보) 간 실질협력 방안 협의 및 중동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
- 실질협력 기반 강화
 - 아랍연맹 외교관 방한 초청 연수(2015.5월)
 - ※ KOICA 실무외교관 직무연수 프로그램에 아랍연맹 5명을 포함하여 실시
 - 아랍연맹 선거감시단 방한 초청 연수(2015.10월)
 - ※ 아랍연맹측에서 우리측 선관위 설립 및 선거 경험 전수 등을 목적으로 아랍연맹 선거감시단방한초청연수사업 시행 요청 → 2015.10월 말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Web)에서 아랍연맹 선거감시단 10명 방한 초청 ▲우리측 재보궐 선거 (10.28.) 참관 ▲선거 감시 역량 강화, ICT 체험 등의 연수 프로그램 등 실시

2 주요 인사 인적사항



가. 대통령

성 명	압델파타 알시시 (Abdel Fattah Al Sisi)	
생년월일	1954.11. 9.	
학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 미국 육군대학 전쟁과정 • 2003 이집트 나세르 군사과학원 전쟁과정 • 1992 영국 합동지휘참모대학 지휘참모 석사 • 1987 이집트 지휘참모대학 지휘참모 석사 • 1977 이집트 육군사관학교 졸업 	
주요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4. 대통령 재선 • 2014. 6. 대통령 취임 • 2014. 3. 전역 및 대선 출마 선언 • 2014. 1. 육군 원수 진급 • 2012. 8. 국방장관 • 2010. 2. 군 정보국장 • 2008. 2. 북부 군사지역 사령관 • 1999~2000 주사우디 국방무관 • 1977. 4. 보병 장교 임관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인 인티사르와의 사이에 3남 1녀 • 무슬림으로서 술은 마시지 않으며, 담배도 피우지 않음. • 취미 : 사이클링 • 2016.3월 공식 방한, 2014.9월 유엔총회 계기 및 2016.9월 항저우 G20 계기 정상회담 • 2018.9월 유엔총회 계기 정상회담 및 2021년 정상 통화(3월, 10월) 	

참고사항

- 우리 인사 접견 (2021.11월 손재일 한화디펜스 대표, 2021.10월 박병석 국회의장, 2021.8월 서욱 국방장관, 2021.4월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2019.10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 우리 기업 행사 방문 (2021.11월 EDEX 한화디펜스 전시관 방문, 2020.8월 GS건설 ERC 정유플랜트 기공식 참석, 2018.1월 삼성전자(Beni Suef) 및 LG전자(10th of Ramadan) 공장 등)
- 2019.2월~2020.1월 아프리카연합(AU) 의장
- 2021.11.23.-현재 동남아프리카공동체(COMESA) 의장


나. 총리

성명	Mostafa Madbouly (모스타파 마드볼리)	
생년월일	1966. 4. 28.	
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 카이로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 전공(건축학 박사) • 1993 네덜란드 로테르담 주택·도시개발연구 대학원 IHS(Institute for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Studies) 도시계획 고등연구과정 수료 • 1992 카이로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 전공(공학철학 석사) • 1988 카이로대학교 건축학사(졸업 프로젝트 우수상) 	
주요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12.22. 총리 겸 투자·행정개혁부장관 • 2018. 6.14. 총리 • 2014. 3.~2018. 6. 주택부장관 • 2012.11.~2014. 2. UN-HABITAT(인간주거계획) 아랍지역 대표 • 2009. 9.~2011.11. 주택부 산하 도시계획총국 행정위원장 • 2008. 4.~2009. 9. 도시계획총국장/ 국가주택건설 연구센터 (HBRC :Housing & Building National Research Center) 연구교수 • 2007.10.~2008. 4. 도시계획총국 부국장 • 2004. 7. 도시계획총국 기술실장/ 국가주택건설연구센터 연구조교 • 2000. 1.~2004. 6. 주택부 산하 주택·건축연구센터 연수원 집행이사(Executive manager)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 KOICA 방한 초청연수 참가(신도시 개발 및 도시 정비) • 2019. 9.24. 베니수에프 소재 KOICA 건립 한·이집트 기술대학 방문, 한국의 지원에 사의 표명 	

다. 외교장관

성 명	사메 슈크리 (Sameh Shoukry)	
생년월일	1952.10.20.	
학 력	• 1975	이집트 아인샴스대학교 학사(법학)
주요 경력	• 2014. 6.~현재 • 2008~2012 • 2005~2008 • 2004~2005 • 1999~2003 • 1995~1999 • 1994~1995 • 1990~1994 • 1988~1990 • 1984~1988 • 1982~1984 • 1978~1982 • 1976	외교장관 주미국 대사 주제네바 국제기구 대표부 대사 외교부장관 비서실장 주오스트리아 및 국제기구 대표부 대사 무바라크 대통령 공보비서관 외교부 미국-캐나다국장 주유엔 대표부 참사관 외교부장관실 참사관 주아르헨티나 대사관 1등서기관 외교부장관실 2등서기관 주영국 대사관 3등서기관 외교부 입부
참고사항	• 기혼(아들 2) • 2015.11월 양자 방한 및 2016.3월 알시시 대통령 방한 수행 • 초임 외교관 시절(1980) 부친을 만나기 위해 방북 ※부친은 1977~1980년 주북한 대사 근무 후 퇴직	

라. 국방장관

성명	모하메드 자키 (Mohamed Zaki)	
생년월일	1956. 1. 29.	
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3 나세르 군사과학원 전쟁과정 • 1990 지휘참모대학 석사 • 1977 육군사관학교 졸업 	
주요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전여단장 • 특전사 참모장 • 특전사령관 • 2017. 1. 18. 대통령 경호부대장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 7. 3. 알시시 국방장관의 모르시 대통령 축출 당시 모르시 대통령 체포 담당 	

마. 하원 의장

성 명	하나피 알리 기발리 (Hanafi Ali Gebali)	
생년월일	1949.7.14.	
학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7 아인샴스대학교 공법 박사 • 1975 카이로대학교 법대 졸업 	
주요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1.~현재 이집트 하원의장 • 2018~2019 이집트 최고헌법재판소장 • 2011~2018 아랍 헌법재판기관 연맹 사무총장 • 1978~1982 국무원(State Council) 재직 • 1976~1978 검찰청 재직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정부 성향 국가미래당 주도의 정당명부제로 2021년 하원 당선 • 現 상원의장 겸 국가미래당 대표인 Abdel Razek 前 헌재소장 (2016~2018) 후임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재직 • 헌법재판소장 재직 당시 방한(2018.9월) • 박병석 국회의장과 양자 면담(2021.10월) 	

바. 상원 의장

성 명	압델 와합 압델 라제크 (Abdel Wahab Abdel Razek)	
생년월일	1948.8월	
학 력	• 1969	카이로대학교 법학사
주요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10.~현재 이집트 상원의장 • 2020.3.~현재 친정부 성향의 국가미래당 대표 • 2016.6.~2018.6. 최고헌법재판소장 • 1978~1988 국무원 재직 • 1970~1971 감사원(Accountability State Authority) 재직 	
참고사항	• 박병석 국회의장과 양자 면담(2021.10월)	

사. 역대 대통령

1) 모하메드 나깅(Mohamed Naguib) 초대 대통령

- 출 생 : 1901.2.20., 수단 카르툼(Khartoum)
- 학 력
 - 육군사관학교 졸업
 - 파드 1세 대학 법률·정치·경제학
- 경 력
 - 1952. 7.23. 쿠데타, 파룩(Farouk) 국왕 축출
 - 1952. 9월 총리
 - 1953. 6월 초대 대통령 취임
 - 1954. 11월 나세르(Nasser)에 의해 실각
- 기 타
 - 자유장교단 혁명으로 1953.6월 초대 대통령이 되었지만 배후 실세인 나세르와의 대립으로 1954.11월 실각하여 감금되었다가 1960년 석방된 이후 정치 행보 중단
 - 1984.8월 사망

2) 가말 압델 나세르(Gamal Abdel Nasser) 제2대 대통령

- 출 생 : 1918.1.15, 알렉산드리아주
- 학 력
 - 1938 육군사관학교 졸업
- 경 력
 - 1952. 7.23 혁명위원회 지도자
 - 1953. 6월 부총리 겸 내무장관
 - 1954 총리

- 1956~1970 제2대 이집트 대통령
- 1958~1962 아랍연합공화국 총리
- 1964~1965 아프리카단결기구 회장
- 1964~1970 비동맹회의 사무총장

• 기 타

- 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이 이집트 국왕을 무력으로 위협하여 친영 인사를 총리로 임명한 데 분노하여 외세 타파를 위한 비밀 조직 ‘청년장교단’을 결성하고, 나집을 단장으로 추대
- 1952.7.23. 나세르가 이끈 ‘자유장교단’의 군사혁명 성공
- 1955년 유고슬라비아 티토 대통령 및 인도 네루 총리와 친교를 맺고 반동회의(아시아-아프리카회의)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중립주의·비동맹주의 외교정책 추진
- 1956.7월 아스완 하이댐 건설 계획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자금 원조 철회로 수에즈 운하 국유화 선언, 국유화 선언 3개월 후 영국·프랑스·이스라엘 연합군이 수에즈 운하로 진격하며 수에즈 전쟁 발발. 수에즈 전쟁에서 이집트군은 패전을 거듭했으나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이기지 못한 영국과 프랑스가 협상 끝에 물러남으로써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의 소유가 됨.
- 1958. 2월 시리아와의 합병 후 아랍연합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1961.9월 시리아에 쿠데타가 발생하여 아랍연합공화국에서 이탈
- 1970.9월 사망(심장마비)

3) 모하메드 안와르 사다트(Mohamed Anwar Sadat) 제3대 대통령

- 출 생 : 1918.12.25., 모노페야(Monofeya)주
- 서 거 : 1981.10.6.
- 학 력
 - 1938 육군사관학교 졸업

- 경력

- 1950 '자유장교단' 가입
- 1961 국민의회 의장
- 1962~1964 대통령평의회 의원
- 1964 부통령
- 1970 대통령
- 1976 대통령 재선
- 1978 캠프데이비드 협정 조인, 노벨평화상 수상

- 기 타

- 1952. 7.23. 자유장교단 군사혁명에 적극 가담
- 1977년 이집트 수반으로서는 처음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아랍-이스라엘 간 평화 노선을 열기 시작
- 1978년 캠프데이비드 협정에 조인하여 이스라엘로부터 시나이 반도를 돌려받고, 1979년 미국 워싱턴에서 이스라엘과의 평화 협정에 서명
- 1978년 이스라엘 메나헴 베긴(Menachem Begin) 총리와 함께 노벨 평화상 수상
-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과의 평화정책을 비난하면서 사다트 대통령을 '아랍 세계의 배반자'로 비난
- 1981.10월 對이스라엘 전쟁(4차 중동전쟁) 승리 기념 군사 퍼레이드 중 칼리드 이살람불리(Khalid Isalambully) 등 무슬림형제단의 총에 맞아 사망
- 1981.10월 사망 후 장례식에는 전 미국 대통령 및 서방 국가들의 정상들이 참석하였으나, 아랍 국가들의 정상들은 거의 불참

4) 호스니 무바라크(Hosni Mubarak) 제4대 대통령

- 출 생 : 1928.5.4., 모노페야주
- 서 거 : 2020.2.25.

- 학 력

- 1949년 육군사관학교 군사학 졸업
- 공군사관학교 비행학

- 경 력

- 1964 구소련 이집트군 대표단 단장
- 1966 공군사관학교 교장
- 1972 공군참모총장
- 1973 공군 대장
- 1975. 4월 부통령
- 1981.10월 대통령
- 1987 대통령 재선
- 1993 대통령 3선
- 1999 대통령 4선
- 2005 대통령 5선
- 2011. 2.11. 대통령직 사퇴

- 기 타

-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 이행에 힘쓰는 등 외교적으로는 사다트 노선을 계승하면서 독자적인 외교를 전개
- 한편, 사다트 시대에 단절되었던 소련과의 외교 관계 재개
- 1992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본거지 습격
- 2011.1월 이집트 경제의 장기 불황과 오랜 독재 정치를 견디지 못한 이집트 국민이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를 벌이자, 시위 18일째가 되던 2월 11일 시위대의 퇴진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대통령직 사임
- 2011.8.3. 시위대에 대한 폭력 행위 및 부정축재 혐의로 무바라크에 대한 재판 시작
- 2012.6. 2. 종신형을 선고받고 카이로 근교 토라(Tora) 형무소에 수감
- 2016.1. 9. 공금횡령죄로 징역 3년형 확정
- 2017.3.13. 석방 선고 및 2020.2.25. 사망

5) 모하메드 모르시(Mohamed Morsy) 제5대 대통령

- 출 생 : 1951. 8.20., 이집트 북동부 샤르키야(Sharqiya) 주
- 학 력
 - 1975 카이로대학교 공과대학 학사
 - 1978 카이로대학교 금속공학 석사
 - 1982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공학박사
- 경 력
 - 1979 무슬림형제단 가입
 - 1982~1985 캘리포니아주립대학 교수
 - 1985~2010 자가지그(Zagazig)대학교 재료공학과 교수 겸 학과장
 - 1992 무슬림형제단 정치국
 - 1995~2000 하원 의원
 - 2005 무슬림형제단 대변인
 - 2011. 4.30. 자유정의당 대표
 - 2012. 6.30. 대통령 취임
 - 2013. 7. 3. 대통령직에서 축출
- 기 타
 - 이슬람주의, 대선 때 “이슬람이 해결책이다(Islam is the Solution)” 선거 구호 채택
 - 1978년 결혼(부인과 4남1녀)
 - 2013~2019년간 재판 진행
 - 2019.6.17. 옥중에서 사망



가. 대사관

- 청 사
 - 주소 : 3 Boulos Hanna St., Dokki, Giza, A.R.E
 - TEL : +20-2-3761-1234~7
 - FAX : +20-2-3761-1238
- 관 저
 - 주소 : 45, Road 83, Maadi, Cairo, A.R.E
 - TEL : +20-2-2378-3124, +20-2-2750-9631
 - FAX : +20-2-2380-3663

나. KOICA(이집트 사무소)

- 주소 : World Trade Center 18th Fl., 1191 Corniche El Nile, Cairo, A.R.E.
- TEL : +20-2-2576-3383/3392/3393
- FAX : +20-2-2576-3236

다. 한국문화원(KCC)

- 주소 : 8 Boulos Hanna St., Dokki, Giza, A.R.E
- TEL : +20-2-3762-7102~4
- FAX : +20-2-3762-7103

라. KOTRA(카이로무역관)

- 주소 : 1st Fl., Oiltech Bldg, 44 Palestine St., New Maadi, Cairo, A.R.E
- TEL : +20-2-2754-5319/5329
- FAX : +20-2-2754-7429

마. 카이로 한국학교

- 주소 : 48 Rd 1st zone 6th Area New Cairo, A.R.E
- TEL : +20-2-2565-6428
- FAX : +20-2-2565-6430

바. 종교단체

- 카이로한인교회 : +20-10-6602-4695
- 애급한인교회 : +20-12-2144-6556
- 가톨릭 한인공동체 : +20-12-2243-7757

사. 범죄 및 화재 신고

- 범죄신고 : 122
- 화재신고 : 180

아. 호텔(Five Star Hotel)

- Ritz carlton the Nile : +20-2-2577-8899

- Four Season Nile Plaza : +20-2-2791-7000
- Four Season First Residence : +20-2-3567-1600
- Sofitel : +20-2-2737-3737
- Intercontinental Semiramis : +20-2-2798-8000
- Fairmont Nile : +20-2-2461-9494
- Kempinski Nile : +20-2-2798-0000
- Marriott Cairo : +20-2-2728-3000
- Sheraton Cairo : +20-2-3336-9800
- Conrad Cairo : +20-2-2580-8000

자. 식당

- 한국 식당
 - 가야 : +20-2-2519-7769
 - 미나 : +20-12-2166-6612
 - 서울갈비 : +20-2-2753-7328
 - 꼬끼오 : +20-2-2521-2123
 - 토마토 : +20-2-2588-3560
 - 아리랑 : +20-2-2519-3739
 - 하나 : +20-2-2736-7873
 - 오아시스 : +20-10-2151-3307
- 일본 식당
 - Makino (Zamalek) : +20-2-2737-5163
 - Shogun (Intercontinental Heliopolis) : +20-2-2480-0100
 - Okashi (Grand Hyatt) : +20-2-2365-1234
 - Torri (Cairo Marriott) : +20-2-2728-3000

- 중국 식당
 - Peking (Maadi) : +20-2-2516-4218
 - 8 (Four Seasons Nile) : +20-2-2791-6888
- 태국 식당
 - Birdcage (Semiramis Garden City) : +20-2-2798-8000
 - Kamala (Conrad Cairo) : +20-2-2580-8481
 - Ruen Thai (Dusit Thani Cairo) : +20-2-2614-0000
 - Bua Khao (Maadi) : +20-2-2378-3355
- 프랑스 식당
 - Swiss Chalet (Giza) : +20-2-3748-6270
 - Le Pacha 1910 (Zamalek) : +20-2-2735-6730
 - Le Deck (Sofitel) : +20-2-2737-3737
- 이탈리아 식당
 - Vivo (Ritz Carlton) : +20-2-2577-8899
 - Pane Vino (Semiramis InterContinental) : +20-2-2798-8000
 - Maestro (InterContinental Citystars) : +20-2-2480-0100
 - Ristorante Tuscany(Cairo Marriot Hotel) : +20-2-2728-3000
ext. 4661
 - Bella(Four Seasons Nile Plaza) : +20-2-2791-6875
 - Giannini's New York Italian (Sheraton Cairo) : +20-2-3336-9700
 - The Blue(Kempinski) : +20-2-2798-0000
- 양식당
 - JW Steakhouse(Cairo Marriott) : +20-2-2728-3000
 - Alkhal(InterContinental Citystars) : +20-2-2480-0009
 - Romanov(Kempinski New Cairo) : +20-10-9711-1151

- 중동 식당

- Kebabgy(Sofitel) : +20-2-2737-3737
- El Magharbel(Giza) : +20-2-3748-6771
- Zitouni(Giza) : +20-2-2791-6877
- Abou el Sid(Zamalek) : +20-2-2735-9640
- Fayruz(InterContinental Citystars) : +20-2-2480-0009

- 해산물 식당

- Fish Market(Maadi) : +20-2-2380-4250
- Seagull(Agouza) : +20-2-3749-4244

차. 병원

- Maadi Armed Forces Medical Complex (Maadi) : +20-2-2525-6350, 6348
- Air force Specialized Hospital (New Cairo) : +20-2-2617-6981
- Saudi German Hospital (Heliopolis) : +20-16259
- Al Salam Hospital (Mohandeseen) : +20-2-3303-0502
- As-Salam International Hospital (Maadi) : +20-19885
- Cairo Medical Center (New Cairo) : +20-10-0733-3061
- Dar Al Fouad Hospital (6th October) : +20-2-3824-7248
- Misr Al Dawly (Dokki) : +20-2-3760-8261
- Cleopatra Hospital (Heliopolis) : +20-2-2414-3931
- Celopatra Hospital (Maadi) : +20-2-2524-0022
- Dr. Osman Hospital : +20-2-2526-0169
- Ghaly's Medical Group: +20-2-2380-9995

- Dr. Albert Anwar Zaki (외과·가정의) : +20-12-2351-8671 /
+20-2-2358-5621
- Dr. Moheb Wahib (소아과·피부과) : +20-2-2358-3259
- Dr. Ihab Daoud Hanna (내과 전문의) : +20-2-2291-3458
- Dr. Mahmoud (소아과 전문의) : +20-12-358-1432

카. 응급전화

- 화재 신고 : 180
- 응급환자 이송 : 123
- 경찰 : 122
- 고속도로 견인 : 136
- 전화 안내 : 140



VI

부 록



가. 입국

- 모든 방문객은 비자와 6개월 이상의 유효 여권 소지 필요
(단, 외교관·관용여권은 90일간 무비자 체류)
- 비자 발급처 : 주한이집트대사관 또는 이집트 입국 시 공항에서 발급

나. 한국 국적기 운항 여부

- 2012.4월부터 대한항공의 카이로 운항은 잠정 중단한 상태이며, 동절기에만 이집트 방문 여행객 수송용 전세기 운항(코로나 팬데믹 이전)

다. 주요 관광지

| 카이로 지역 |

1) 기자 피라미드(Giza Pyramid)

- 개 요
 - 카이로 인근 기자 지역에 위치한 3개의 피라미드는 제4왕조(B.C .2613~ 2494)의 쿠푸(Khufu) 왕, 카프레(Khafre) 왕, 멘카우레(Menkaure) 왕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존하는 100여 개 피라미드 중 가장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
 - ※ 단순한 왕의 무덤이 아니라 사후세계의 신앙과 관련된 신성한 건축물로 보는 주장 등 이견
 - 특히 쿠푸 왕의 피라미드는 일명 ‘대피라미드(Great Pyramid)’라고도 하며, 고대 이래 불가사의한 건축물 중 하나로 평가



기자 피라미드

- 피라미드 내부 및 외부에 피라미드 관련 문자나 그림 등의 기록은 전무

• 대피라미드(Great Pyramid)

- 크기와 방향

- 높이 146m, 밑변 길이 230m (각 변의 길이 오차는 0.1~0.2% 내외의 정밀도 유지)
※ 풍화작용으로 현재 높이는 137m
- 피라미드 입구 방향은 정확하게 정북을 지향
- 피라미드 경사각은 약 52도

- 구조

- 무게 2~20톤의 석회암(카이로 인근에서 채취) 내장석 약 230만 개를 쌓아 올렸으며, 과거에는 피라미드 전체가 백색 외장석으로 덮여 있었던 것으로 추정(외장석과 내장석 사이에는 백색 모르타르로 접합한 흔적 있음)
- 피라미드 내부는 왕의 방, 왕비의 방, 대회랑, 내려가는 통로, 올라가는 통로, 수평 통로, 환기통 등 복잡한 구조로 구성(내부 방 및 대회랑 등에 사용된 석재는 화강암으로 남부 아스완에서 운송해 온 것으로 추정)

- 내려가는 통로는 그리스·로마 시대부터 발견되었으나, 올라가는 통로(왕의 방, 왕비의 방 및 대회랑과 연결)는 9세기 압바스(Abbas) 왕조의 마문(Mamun) 왕이 처음 발견(당시 마문 왕이 만든 통로는 현재 관광객들의 출입구로 사용)

- 건축

-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Herodotus)는 약 10만 명의 인원이 20년간에 걸쳐 건축하였다고 추산
- 현대 일부 건축학자들은 피라미드 건축의 정밀도 등을 감안할 때 4,000~5,000명의 숙련되고 조직된 기능인들이 건축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건축 방식에 대해서는 의문점 미해소

• 카프레 왕과 멘кау레 왕의 피라미드

- 카프레 왕은 쿠푸 왕의 아들이며, 멘кау레 왕은 쿠푸 왕의 손자로 각 피라미드 높이는 쿠푸 왕(146m), 카프레 왕(143m), 멘кау레 왕(69m) 순
- 카프레 왕의 피라미드 내부 현실은 지면과 동일한 높이에 있으며, 멘кау레 왕의 현실은 지하에 존재
- 카프레 왕의 피라미드 상부에는 외장석이 아직도 존재

• 스피נק스

- 카프레 왕의 피라미드 동쪽에 피라미드의 수호신으로 알려진 스피נק스상이 존재
- 거대한 자연석을 깎아 만든 것으로서 길이 75m, 높이 22m
- 얼굴에 채색 흔적이 아직 남아 있으며, 턱수염 조각은 대영박물관에 전시 중
- 스피נק스 건축 연대는 기자 피라미드 건축 연대와 비슷한 것으로 추정
- 18왕조 투트모시스(Tuthmosis) 4세(B.C. 1425~1417년 재위)가 꿈에 계시를 받고 당시 모래 속에 파묻혀 있던 스피נק스를 발굴하고 스피נק스 앞에 기념비를 건립



이집트박물관

2) 이집트박물관(Egyptian Museum)

• 개 요

- 이집트 고대 파라오 왕조 유물은 과거 그리스·로마 시대부터 해외로 반출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슬람 시대에는 모스크 건축 등의 자재로 사용하기 위해 석조 유물 등이 다수 파손
- 19세기 샹폴리옹(프랑스인)의 이집트 상형문자 해독으로 이집트 역사와 문화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이집트 유물 보존 조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
 - 1834 이집트유물보호국 설립
 - 1858 오귀스트 마리에트(August Mariette) 초대 관장으로 임명
 - 1863 이스마일(Ismail) 왕이 불락(Bulak) 지역에 유물보관소(옛 박물관) 건립
 - 1920 타흐리르 광장에 정착
- 현 이집트박물관 건물(카이로 시내 타흐리르 광장 소재)은 1895~1902년간 국제입찰로 건축(Mariette이 건축 감독 및 지휘)되었으나, 면적이 협소

- 1층 51개 전시실에는 고왕조·중왕조·신왕조의 유물과 그리스·로마 시대의 유물이 (정문 입구에서 시계방향으로) 전시되어 있으며, 2층 전시실에는 투탕카멘 왕의 무덤에서 발굴된 유물과 이집트 신왕조 시대 왕들의 미라 및 그 밖의 유물들 전시

- 선사 시대부터 그리스·로마 시대까지 총 12만여 점의 유물 전시

- 1층 주요 전시물

- 고왕조 시대의 유물

- 멘카우레 왕과 두 여신의 석상, 카프레 왕의 석상, 서기관의 좌상, 존장의 목상, 귀족(Rahotep) 부부상, 거위 벽화 등

- 중왕조 시대의 유물

- 멘투호텝(Mentuhotep) 1세의 석상, 귀족(Harhotep)의 분묘 벽화 등

- 신왕조 시대의 유물

- 핫셉수트(Hatshepsut) 여왕의 석상, 투트모시스 3세의 석상, 하토르(Hathor) 신의 석상, 아케나텐(Akhenaten)과 부인 네페르티티(Nefertiti)의 석상, 람세스(Ramses) 2세의 석상 등
 - 그 밖의 석관, 목선, 미라 수술대, 로제타 스톤 모형 등 전시

- 2층 주요 전시실

- 기원전 1332년부터 1323년까지 통치한 이집트 제18왕조의 파라오 투탕카멘(Tutankhamen) 왕의 유물

- 1922년 영국인 하워드 카터(Howard Carter)가 룩소르(Luxor) 왕들의 계곡에서 발굴한 투탕카멘 왕의 유물 전시
 - 왕의 전차, 목관, 황금관, 순금 11kg로 만들어진 황금 마스크, 알라바스타 향아리, 침대, 의자, 우산 등

- 미라실

- 제18~20 왕조 왕들의 미라 몇 구 전시
 - 미라실 입구에는 미라 수술 도구 및 재료가 전시되어 있고, 미라 수술 방법이 간략히 설명되어 있음



대박물관

3) 대박물관(Grand Egyptian Museum)

- 개 요
 - 2002.1월 이집트 대통령 호스니 무바라크가 대이집트 박물관의 초석을 놓은 뒤로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이집트 최대 규모의 박물관으로 예상 총사업비는 5억 5천만 달러이며, 그중 3억 달러를 일본의 차관으로 조달
 - 코로나19로 인해 개관이 지연되어 2022년 중 개관할 계획이며, 주요 유물로는 투탕카멘 왕의 유물이 전시될 것으로 발표
 - 룩소르, 민야, 소하그, 아시우트 등 이집트 전역에서 약 50만 점의 유물을 수집, 그중 1만 8,000점 가량을 전시할 예정

4) 국립 이집트문명박물관(The National Museum of Egyptian Civilization)

- 개 요
 - 2021.4월 이집트박물관에서 국립 이집트문명박물관으로 역대 왕족의 미라 22구를 이전하는 대대적인 축하 퍼레이드인 ‘파라오들의 황금빛 행진’을 거행하며 박물관 개관



국립 이집트문명박물관

- 파라오 이전의 시기인 35,000년 전을 시작으로 현대 이집트까지 이집트 문명의 변천을 보여주는 5만 점의 유물 전시
- 이슬람 정복 이후 이집트의 첫 번째 이슬람 수도였던 알 푸스타트(Al Fustat)에 위치
 - ※ 알 푸스타트 : 서기 639-646년 사이에 이슬람 정복을 이끌었던 아므르 이븐 알 아스 장군에 의해 건설된 이집트의 첫 번째 수도
- 메인실
 - 그리스-로마 시대, 콥트 시대, 이슬람 시대, 현대 이집트 등을 포함한 이집트 역사 전체 문명과 전통 대중문화 전시
 - 고대 공예품, 비문서, 역사적인 전통 의상, 도구 다수 소장
- 미라실
 - 18명의 최고 통치자 파라오와 4명의 왕비를 포함한 미라 22구 소장
 - 기원전 1539년에서 1075년까지 이집트를 통치했던 신(新)왕조에 소속된 파라오의 미라 전시
 - 이집트를 가장 긴 67년간 통치한 가장 유명한 파라오인 람세스 2세, 평생 17차례 군사원정을 다녀서 '전사 파라오'라는 별명을 가진 투투모시스 3세, 유일한 여성 파라오인 핫셉수트 등 전시



사카라 피라미드

5) 사카라(Sakkara)

• 개요

- 카이로 남쪽 약 25km 떨어진 나일강 좌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집트 고(古)왕국 시대의 피라미드 소재지로 기자·아부시르·다슈르 등과 함께 유명
-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인 제3왕조 조세르 왕의 계단식 피라미드를 비롯해 10여 개의 피라미드군(群)이 존재
 - 조세르 왕의 계단식 피라미드(Step Pyramid)는 기자 피라미드의 원형이 되었으며, 특히 최초로 돌을 사용한 피라미드
 - 현재는 일부가 부식 작용으로 인해 허물어져 복원 작업 진행 중

6) 멤피스(Memphis)

• 개요

- 기원전 3100년경 제1왕조의 창시자인 메네스가 상이집트와 하이집트의 접점인 이곳을 통일왕국의 도읍으로 정한 데서 시작되어 고왕국 시대의 수도로 변창



멤피스박물관에 있는 람세스 2세의 와상

- 시(市)의 옛 이름인 멤 노펠 메리는 ‘피라미드의 아름다움은 의연하다’라는 뜻이며, 여기에서 그리스 이름인 멤피스가 유래
- 현재는 멤피스박물관에 람세스 2세의 거대한 와상을 비롯한 일부 유물만이 잔존

7) 시타델(Citadel)

• 개요

- 카이로 남동쪽의 무카탐(Muqattam) 언덕에 위치하며, 시타델은 ‘성벽’이라는 뜻으로 이슬람의 전설적 영웅인 살라딘이 십자군 전쟁으로부터 이집트를 지키기 위해 1176~1183년간 세운 요새
- 아부딘 왕궁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약 700년 동안 이집트 이슬람 왕조의 왕궁과 정치의 중심지
- 시타델에는 칼라운 모스크(1318년 건축), 술탄이만 파샤 모스크(1528), 모하메드 알리 모스크(1828)가 있으며, 국립군사박물관과 알 가우하라 궁전 등으로 구성



십자군전쟁으로부터 이집트를 지키기 위해 세운 요새, 시타델

• 모하메드 알리 모스크

- 오스만 투르크가 파견한 모하메드 알리 총독이 1828년 이스탄불의 블루 모스크(Blue Mosque)를 모방하여 건축
- 2개의 높은 첨탑과 거대한 돔이 특징이며, 외벽에 다량의 수려한 석고가 건축에 쓰였기 때문에 ‘앨러베스터(Alabaster, 설화석고) 모스크’라고도 부름. 내부는 거대한 샹들리에와 스테인드글라스, 수많은 램프로 장식. 모스크 외곽의 위로 나가면 카이로 시가 외에 나일강, 기자의 피라미드까지 보이는 웅장한 조망이 전개

8) 카이로 구시가(Old Cairo)

• 개 요

- 이집트 기독교의 오랜 흔적들이 남아 있으며, 1천 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이집트 고대 초대 교회들이 존재하고, 당시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밀집해서 거주

- 올드 카이로는 ‘바벨론’이라고도 부르는데, 기원전 13세기 초 람세스 2세에게 붙잡혀 왔던 페르시아인들이 람세스 2세에 대항하여 멤피스 방향의 하빈 시타델을 점령하고 항전하자, 람세스 2세가 이들에게 자유와 안전을 보장, 올드 카이로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고국 수도를 그리워하며 ‘바벨론’이라고 명명한 것에서 비롯

- 아기예수 피난교회(The Church of Abu Ser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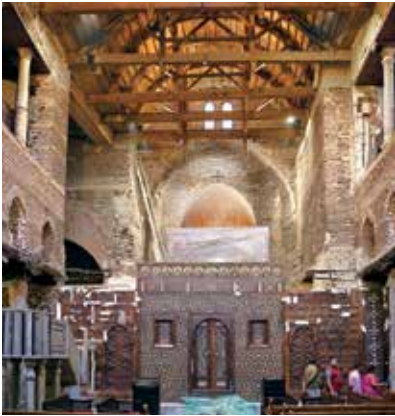
- 4세기 중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예수 성가족이 헤롯 왕을 피해 애굽(이집트)으로 피난하던 중 100여 일을 숨어서 지냈던 성스러운 장소에 세운 교회(천장이 노아의 방주 모양)

- 공중교회(바벨론 성채, 알무알라카 교회)

- 교회 건물이 옛 바벨론 성채의 남서 두 요새로 통하는 통로에 얹혀 있어 알 무알라카 교회(Al Moallaka church, ‘매달린 교회’라는 뜻)라고도 불림
-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가운데 하나로 최초의 건축은 26왕조 느고 왕(B.C. 605~593)이 했을 것으로 추정
- 이후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해 현재의 자리에 세워졌고, 서기 98년에 로마의 트라야누스 황제가 비잔틴 양식을 덧붙여 개축하였으며, 395년 아르카디우스가 재건
- 망대 사이의 입구는 수문이며, 현재의 지표면보다 6m 낮은 곳에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

- 모세기념교회(Ben Ezra Sinagogue)

- 4세기에 공중교회의 부속 건물로 지어져 9세기 전까지는 ‘성 미카엘 교회’ 또는 ‘가브리엘 천사교회’로 호칭
- 제56대 교황 미카엘 3세 때 아흐메드 이븐 툴룬(이집트 이슬람 왕조, 868~905)이 ‘이븐 툴룬 모스크’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기독교도들에게 부과한 고액의 세금을 감당하기 위해 매각한 예배당 중 하나로 유대인들이 매입하여 회당으로 개조해 사용하였으나 알하킴 (996~1021) 때 다시 파괴



아기예수 피난교회



모세기념교회

- 이 회당이 다시 지어진 당시에는 주위에 29개의 사원과 20개의 예배당이 공존
- 이 자리에 세워졌던 최초의 회당은 기원전 350년경 건립되었으며, 당시에는 선지자 ‘예레미야 시나고그’로 불리다가 기원전 30년경 로마에 의해 파괴되었다가 로마로부터 재탈환한 후 콥틱 교회에서 예배당 건설
- 콥트 박물관(Coptic Museum)
 - 이집트 내 콥틱 기독교인들의 예술품을 보존하기 위해 1908년에 설립, 콥트 문화와 관련된 유물 약 1,300점 전시
 - 1933년부터 정부가 관리하기 시작
 - 전시품들은 4~11세기 이집트 기독교 시대의 것으로서 고대 왕조와 그리스·로마 문화의 영향이 강하게 느껴지며, 대략적인 연대기 순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1950년대와 1960년대 아스완댐 건설로 수몰되기 전에 여러 마을에서 보존해 온 누비안(Nubian) 그림들과 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회화와 직물들, 금속, 나무, 유리, 상아로 만든 수공예품 등이 대표적



콥트 박물관



칸 엘 칼릴리 시장

- 꼭대기층에는 20세기 중반 이집트 나그 함마디(Nagh Hammady)에서 발견되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고대 문서 보존
- 박물관 부지 안에는 로마 지배의 흔적인 수도 시설, 탑 등이 잔존
- 이집트 정부는 약 600만 달러를 들여 3년 동안 개·보수 공사를 한 후 2006.6월 재개관

9) 칸 엘 칼릴리 시장(Khan El Khalili)

• 개 요

- 중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카이로에서 가장 매력적인 관광지 중 하나로 꼽히는 전통시장으로, 현재 약 1,500개 상점 산재
- 1382년 술탄 바르쿠크의 아들 알 칼릴리 왕자가 대상들을 위해 세운 숙소들을 중심으로 형성
- 시장 주변으로는 파티마 왕조가 이집트로 본거지를 옮기면서 세운 최초의 모스크로, 파티마 왕조의 대표적 건축물인 ‘알 아즈하르 모스크’가 위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 알렉산드리아 |

1) 알렉산드리아 도서관(Bibliotheca Alexandria)

- 개 요
 - 기원전 3세기에 지어졌다가 화재로 소실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도서관으로, 이집트 정부가 유네스코 및 여러 국가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2002.10월 개관
 - 현재 약 800만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전체 열람석은 약 2,000석으로 플라네타리움과 과학박물관 시설도 보유
 - 아스완에서 채굴된 화강암으로 마감한 외부 벽에는 전 세계의 문자(한글 포함)를 조각

2) 카이트베이 요새(Qait Bay Fort)

- 개 요
 - 15세기 맘루크(Mamluk) 왕조의 술탄 카이트베이가 세운 성채로, 성벽을 올라가면 지중해를 비롯해 알렉산드리아의 주요 명소 감상 가능



카이트베이 요새



카타콤베

- 세계 최초의 등대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파로스(Pharos) 등대'가 지진으로 무너짐에 따라 이 등대에 사용되었던 석재를 이용하여 요새를 건축한 것으로 유명

3) 카타콤베(Catacombs of Kom El Shoqafa)

- 개요
 - 지하 35m까지 파고 들어간 고대 로마의 공동묘지로 고대 이집트의 장례 문화와 그리스 문화 동시에 감상 가능

4) 폼페이 기둥(Pompeius Pillar)

- 개요
 - 높이 30m의 코린트 양식을 한 고대에서 가장 높은 분홍색 기둥으로 인근에는 람세스 2세의 화강암 석상과 스피נק스, 스카라베 조각 등이 소재



폼페이 기둥



몬타자 궁전

5) 몬타자 궁전(Montazah Palace)

• 개 요

- 20세기 초 세워진 터키식 궁전으로 왕가의 여름 별장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나, 궁전 내부는 입장 불가

| 사막 |

1) 시와 오아시스(Siwa Oasis)

• 개 요

- 카이로에서 북서쪽으로 820km, 리비아 국경에서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온천이 풍부하여 대추야자와 올리브나무가 많고 곡식과 과일이 풍성
- 자전거나 당나귀 마차를 타고 클레오파트라 광천, 아문 신전, 오라클 신전 등을 하루에 구경 가능
- 사륜구동을 타고 사막으로 들어가 일몰을 감상하거나 모래언덕에서 샌드보드를 탈 수 있으며, 사막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것도 가능
- 카이로에서 시와 오아시스까지 가는 버스는 투르고만 버스터미널에서 하루에 한 대 있으며, 약 10시간 소요



시와 오아시스



바하리야 오아시스

2) 바하리야 오아시스(Bahariya Oasis)

• 개 요

- 백사막, 흑사막, 크리스털 사막 등 다양한 사막으로 구성
- 바하리야 사막까지 운행하는 버스는 투르고만 버스터미널(하루 2대)이나 엘모넵 부근버스정류장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4시간 30분 소요

| 흥 해 |

1) 샤름 엘 셰이크(Sharm El Sheikh)

• 개 요

- 시나이 반도 남단에 위치한 유명 해양 리조트로, 일대가 라스 모하메드 해양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해저 관광의 명소로 유명
 - 스노클링, 스킨스쿠버, 다이빙, 윈드서핑, 카이트서핑 등 다양한 해양 스포츠 가능
 - 카이로에서는 항공편(1시간 소요)으로 샤름 엘 셰이크 국제공항을 이용하거나, 투르고만 버스터미널 및 압바시야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이용(7~8시간 소요)하여 이동
- ※ 2022.11월 유엔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27) 개최지



샤름 엘 셰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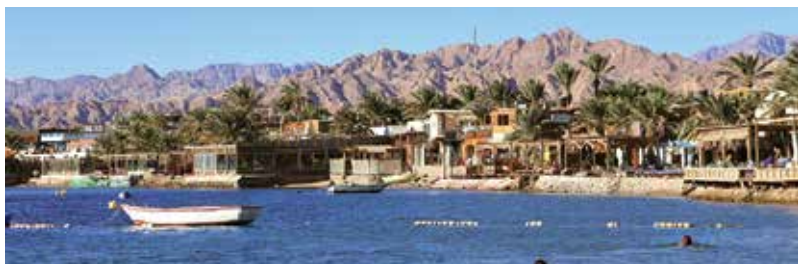
후르가다

2) 후르가다(Hurghada)

- 개요
 - 카이로에서 남동쪽으로 5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후르가다는 홍해 연안에서 가장 큰 도시로 1년 내내 기온이 높아 휴양지로 각광
 - 다이빙 등 다양한 해양 스포츠로 유명
 - 후르가다 공항이 있어 카이로에서 항공편·승용차·버스(5~6시간 소요) 이용 가능

3) 다합(Dahab)

- 개요
 - 아랍어로 ‘금’을 뜻하는 다합은 샤름 엘 셰이크에서 북동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



- 저렴한 숙박시설과 식당이 밀집해 있어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휴양지 중 하나
- 도시 남쪽으로는 고급 호텔, 레스토랑 등이 산재
- 스킨스쿠버들이 즐겨 찾는 명소 '블루홀'이 다함 북동쪽에 있으며, 사륜구동이나 낙타를 이용한 사막 체험 가능

| 룩소르 지역 |

1) 왕들의 계곡(Valley of the Kings)

• 개요

- 룩소르 지역 나일강 서안에 위치한 석회암 계곡으로, 고대 이집트 신왕조(18~20왕조, B.C. 1567~1085) 시대 왕들의 무덤 62개소 발굴
 - 무덤의 일련번호는 발굴된 순서를 의미
- 자연 석회암 계곡에 토굴을 파고, 토굴 벽면에 「사자의 서」(고대 이집트 종교와 관련된 내용) 등을 기록한 뒤 시신과 유물 안장
 - 고왕조 시대 왕들의 무덤인 피라미드와 달리 외부 노출을 피함으로써 도굴 방지를 기도했으나, 대부분의 유물이 도굴됨



왕들의 계곡

• 무덤 형태와 구조

- 신왕조 초기 무덤인 투트모시스 3세의 무덤을 제외한 모든 무덤은 통로가 직선 형태
- 또한 신왕조 초기 무덤은 내부 벽화 바탕색이 옅은 황색(파피루스 색)이고 「사자의 서」 내용도 단순한 데 반해, 후기 무덤은 오렌지색 벽화 바탕에 다양한 내용의 「사자의 서」 기록

• 무덤 발굴

- 신왕조 말 정국 혼란이 야기되자 왕들의 시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별도의 은닉 장소에 이들 시신을 옮기는 작업 진행
 - 다이르 알바하리(Deir Al-Bahari) 묘역(핫셉수트 신전 지역에서 람세스 2세와 3세, 투트모시스 3세, 세티 1세의 시신 발견(1881년))
 - 아멘호테프(Amenhotep) 2세의 무덤에서 동인의 시신 포함, 7구의 왕들의 시신 발견(1898년)
- 일부 무덤은 그리스·로마 시대부터 발굴되었으나, 대부분의 무덤이 18~19세기 유럽인들에 의해 발굴되었으며, 발굴 당시 부장된 유물들은 모두 도굴된 상태
 - 그러나 1922년 영국인 하워드 카터가 발굴한 투탕카멘 왕의 무덤(62호)에서는 시신과 함께 부장품이 발굴되었으며, 현재 시신은 이 무덤 안에, 부장품은 이집트박물관에 전시

2) 카르낙 신전(Temple of Karnak)

• 개 요

- 태양신 아문(Amun) 신전을 중심으로 좌우에 무트(Mut) 신전, 몬투(Montu) 신전, 콘수(Khonsu) 신전 등 룝소르의 수호신들을 모신 신전들이 기본 신전들로 배치되어 있으며, 투트모시스 3세의 신전, 아멘호테프 2세와 3세의 신전, 람세스 3세의 신전 등 다수의 소규모 신전들도 복합적으로 배치



카르낙 신전

- 고대 이집트 중왕국 시대의 제12왕조(B.C. 20세기) 때부터 건축되기 시작하여 프톨레미 왕조(B.C. 1세기)에 이르기까지 약 2,000년에 걸쳐 계속 증축되어 왔으나, 기본 구조는 제1탑문(Pylon)이 건설된 제25 왕조(B.C. 7세기) 때 완성
- 전체 신전 배치는 남북으로 되어 있으나, 아문 신전은 동서로 배치
 - 신전 규모는 남북으로 2km, 동서로 500~600m 정도 크기
- 주요 구조물(아문 신전)
 - 아문 신전 제1탑문(정문) 앞 입구에는 양의 머리에 사자의 몸통을 가진 �핑크스들이 도열한 �핑크스 대로가 남쪽으로 약 2km 떨어진 룩소르 신전 입구까지 연결
 - 아문 신전의 제1탑문을 지나면 제22왕조 때 건축된 대광장(Great Court)으로 연결
 - 넓이가 약 8,650m²에 달하는 대광장의 북쪽에는 아문 신, 무트 신, 콘수 신의 성스러운 배를 모셔두었던 세티 2세의 신전이 있고, 대광장 남쪽에는 람세스 3세의 신전 소재

- 대광장을 지나면 제2탑문 앞에 붉은 화강암으로 조각된 람세스 2세의 석상을 볼 수 있으며, 제2탑문은 제18왕조의 마지막 파라오인 호렘헵(Horemhep)이 건축을 시작하여 제19왕조 람세스 2세 때 완성
- 제2탑문을 지나면 열주전(Great Hypostyle Hall)이 나오는데 그 넓이는 5,356m²로,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과 런던의 성 바울 성당의 크기를 합친 것과 동일. 이 열주전은 134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앙 12개(좌우 6개씩) 기둥은 아멘호테프 3세가 건축하였으며, 외곽의 파피루스 모양의 122개 기둥은 세티 1세가 건축하기 시작해 람세스 2세 때 완공
 - 가운데 12개 기둥과 외곽의 122개 기둥 간의 높이 차이를 이용하여 햇살을 받아들이는 창문을 천장에 건축
 - 고대에 기둥을 채색한 흔적이 아직도 기둥 윗부분에 잔존
- 제3탑문은 아멘호테프 3세 때 건축되었으며, 제4탑문은 투트모시스 1세 때 건축된 것을 세티 2세가 복원
 - 제3탑문과 제4탑문 사이에는 작은 광장(Small Court)이 위치하며, 이 광장에는 투트모시스 1세의 오벨리스크가 소재(높이 23m, 무게 143톤)
 - 제4탑문 안쪽에는 핫셉수트 여왕의 오벨리스크가 소재(높이 27.5m, 무게 320톤)
- 투트모시스 1세와 3세가 건설한 제5탑문과 제6탑문을 지나면 태양신 아문의 지성소에 도달하며, 지성소는 동쪽과 서쪽으로 개방되어 일출과 일몰 때 햇살이 아문 신의 지성소를 비출 수 있도록 설계
 - 지성소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외실은 투트모시스 3세가 건축한 것이고 내실은 기원전 3년경 프톨레미 왕조가 건설

3) 룩소르 신전(Temple of Lux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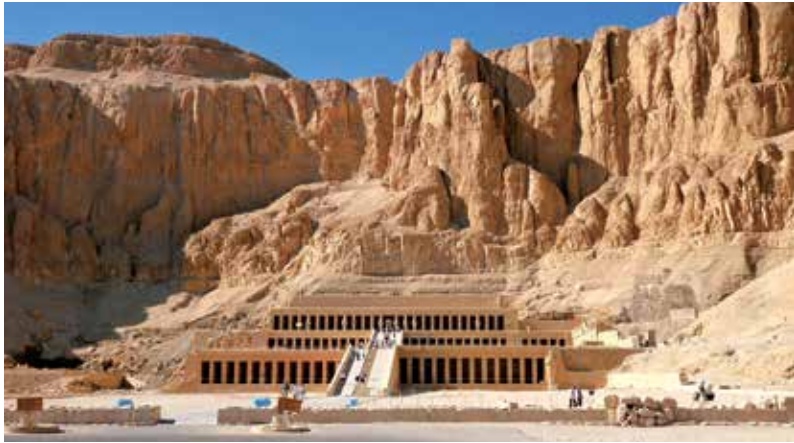
- 개 요
- 제18왕조 아멘호테프 3세(B.C. 1417~1379 재위) 때 건축하기 시작하여 제19왕조 람세스 2세(B.C. 1304~1237 재위) 때 탑문(Pylon)이 완공



룩소르 신전

- 탐문과 입구 쪽 광장은 람세스 2세 때 증축된 것이고, 그 안쪽의 내부 광장과 아문 신 지성소 등은 이에 앞서 아멘호테프 3세 때 건축
- 룩소르 신전은 나일강 동쪽 해안에 나일강을 따라 남북으로 건축되었는데, 폭 40~70m, 길이 180~200m 정도의 규모이며 태양신 아문을 숭배 하기 위한 신전(카르낙 신전에 비해 규모가 작음)
- 주요 구조물
 - 스픝크스 대로
 - 신전 탐문 앞에서 시작되는 스픝크스 대로는 3km 정도 떨어진 카르낙 신전까지 연결
 - 정문 외벽
 - 정문 외벽에는 카데시(Kadesh) 전투(람세스 2세가 히타이트족을 격퇴) 장면이 벽화로 묘사되어 있으며, 정문 좌우에 람세스 2세의 좌상 2개와 입상 4개가 세워져 있었으나 현재는 좌상 2개와 입상 1개만이 잔존(입상 2개는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 전시)

- 또한 정문 좌우에 원래 오벨리스크가 2개 있었으나, 하나는 19세기에 모하메드 알리(Muhammad Ali) 왕이 프랑스에 기증(콩코트 광장에 전시)하여 현재는 하나만 잔존
- 람세스 2세 광장
 - 탑문 안쪽 람세스 2세 광장에는 투트모시스 3세(B.C. 1504~1450 재위) 당시 건축된 성소가 남아 있으며, 후대에 건축된 이슬람 모스크 건물이 광장의 일부를 차지
- 아멘호테프 3세의 열주
 - 람세스 2세 광장을 지나면 아멘호테프 3세의 열주(16m 높이의 파피루스 모양을 한 기둥 14개)가 있으며, 람세스 2세의 석상들이 기둥 사이에 위치
- 아멘호테프 3세의 광장
 - 열주를 지나면 아멘호테프 3세의 광장(약 2,400m²)이 나오는데 람세스 2세의 광장과 모양이 유사
- 신전 내부
 - 아멘호테프 3세의 광장을 지나면 32개의 기둥이 배열된 다주식 광장(Hypostyle Hall)이 나오며, 다주식 광장을 지나면 8개의 기둥이 있었던 제1전실(Ante Chamber)로 연결
 - 제1전실은 4세기에 기둥들이 제거된 후 콕틱 교회 예배 장소로 변경되었으며, 그 흔적이 잔존
 - 제1전실을 지나면 4개의 기둥이 있었던 제2전실이 있고, 그 안쪽에 태양신 아문의 성스러운 배를 모셨던 지성소가 위치



햇셉수트 신전

4) 햇셉수트 신전(Temple of Hatshepsut)

• 개 요

- 제18왕조 햇셉수트 여왕(B.C. 1503~1482 재위)이 8년에 걸쳐 건축한 신전으로, 왕들의 계곡 뒤편에 위치
 - 여왕 자신과 여왕의 부친인 투트모시스 1세를 기념하기 위한 신전
 - 여왕의 시신이 이 신전 지하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
- 햇셉수트 여왕은 원래 투트모시스 2세의 왕비였으나, 투트모시스 2세가 요절하자 첩의 아들인 투트모시스 3세를 대신하여 왕위에 즉위. 햇셉수트 여왕 때문에 20여 년간 억압된 생활을 강요받은 투트모시스 3세는 여왕 사후 왕위에 오르자마자 여왕에 대한 복수로 신전의 많은 부분을 파손

• 신전 구조(3층)

- 1층 왼쪽 벽화에는 카르낙 신전의 오벨리스크에 사용된 화강암을 7개월에 걸쳐 운송해 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고, 오른쪽 벽화에는 여왕이 아문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모습과 왕들의 조상을 조각
- 2층 왼쪽 벽화에는 여왕이 폰트(Punt : 아프리카 홍해 연안 지역)로

원정대를 보내 향료와 물약을 구입해 오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고, 오른쪽 벽화에는 여왕의 탄생을 신성화하여 자신을 아문 신의 딸로 묘사한 그림이 잔존

- 신전 3층에는 과거 콕틱교 수도원 건물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모두 철거된 상태

| 아스완 |

1) 아부심벨(Abu Simbel)

- 개 요
 - 람세스 2세 때 거대한 바위산을 직접 파서 만든 거대한 신전
 - 아스완 하이댐의 건설로 수장될 위기에 놓였으나 유네스코 및 세계 각국의 노력으로 원형 그대로 이전되어 ‘인류가 구한 문화 유산’이라는 별명 보유

2) 아스완 하이댐(Aswan High D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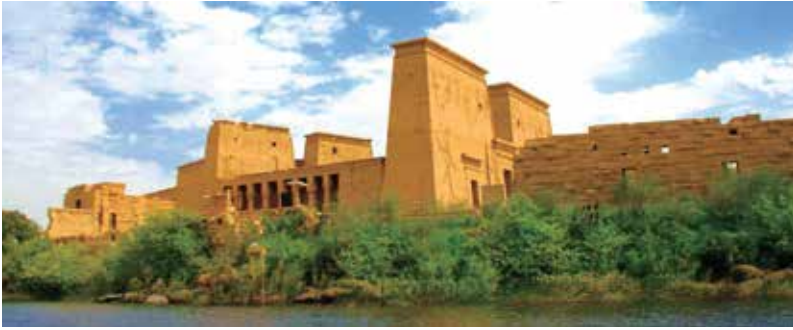
- 개 요
 - 아스완 하이댐 건설로 나일강 하류의 홍수를 막을 수 있게 되었으나, 델타 지역으로 토사를 실어다 주던 물길이 막히면서 인공 비료 사용이 증가하고 수량이 줄어들면서 나일강 하류의 염도 증가
 - 이로 인해 아스완 하이댐 하류 지역에서는 나일강 악어가 멸종



아부심벨



아스완 하이댐



필레 신전

3) 필레 신전(Philae Temple)

- 개 요
 - 아스완 남쪽으로 약 7km 떨어진 아질키아 섬에 있는 필레 유적지는 이시스 여신에게 바친 신전이 있는 장소

| 시나이 반도 |

1) 시나이 산(Mt. Sinai)

- 개 요
 - 구약 성경 출애굽기의 배경으로,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 가나안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머물렀던 곳으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장소

2) 성 카타리나 수도원(Saint Catherine's Monastery)

- 개 요
 - 527년 비잔틴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건립. 수도원의 명칭은 4세기 초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했다는 성녀 '카타리나'에서 유래



시나이 산



성카타리나 수도원

- 수도원에는 다수의 고사본과 전례 예술 작품이 있으며, 시나이 사본도 발견

3) 수에즈 운하(Suez Canal)

• 개 요

- 이집트 시나이 반도 서쪽에 건설된 세계 최대 운하로 지중해의 포트사이드(Port Said) 항구와 홍해의 수에즈 항구를 연결하며, 무엇보다도 아프리카 대륙을 우회하지 않고 곧바로 아시아와 유럽이 연결되는 통로라는 점에서 중요
- 수에즈 지협에 운하를 파서 항행할 수 있게 되면 지중해와 홍해의 교통 발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착상은 고대부터 있었으며, 운하를 건설하려는 최초의 시도는 이집트 파라오 제12왕조의 세누스레트(Senusret) 3세(B.C. 1878~1839)가 홍해 연안의 투밀라트 계곡(Wadi Tumilat)을 통해 나일강과 홍해를 연결하고자 착공했던 공사로 추정
- 파라오 제18왕조의 핫셉수트 여왕이 폰트 지방에서 홍해로 이어지는 운하 공사를 시도했다는 흔적도 남아 있으나 성공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 그 후에도 기원전 1380년 무렵에 나일강과 홍해를 잇는 운하가 시도되었음. 이후 이 운하는 천재



수에즈 운하

(天災)와 전재(戰災)로 메워졌으나 여러 차례에 걸친 개수(改修)로 로마 시대와 아랍 지배 하에서 중요한 수로로 존속

-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600년경 제26왕조의 파라오 네카우 2세(B.C. 610~595)가 운하를 다시 개착하였으며, 그 후 이집트를 정복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B.C. 522~486) 때 완성
- 16세기에는 베네치아의 상인이 수에즈 지협에 해양 운하를 개착하여 포르투갈·스페인의 해운 무역에 대항하려 했고, 17~18세기에는 프랑스의 루이 14세와 독일의 라이프니츠가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여 영국·네덜란드의 아시아 무역에 대항하려고 했으나 모두 토목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미실현
- 18세기 말에 이르러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정복한 뒤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운하를 완공하고자 1799년 찰스 르 페레(Charles Le Pere)에게 운하 프로젝트를 위임. 그러나 나폴레옹은 홍해와 지중해의 수위 차가 10m에 달하는 데다, 운하 중간에 거대한 바위들이 많다는 사전조사 결과를 보고 계획을 포기했는데, 이 보고서는 당시의 전쟁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정확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

- 1854년 이집트의 총독이 된 모하메드 사이드 파샤(Muhammad Said Pasha)는 프랑스인 페르디낭 드 레셉스(Ferdinand de Lesseps)에게 운하 개착 특허권과 수에즈 지협 조차권을 주었고, 1856년에는 이집트의 종주국이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도 이를 승인
 - 이후 1864년 나폴레옹 3세의 중재로 1866년 “만국 수에즈 해양 운하회사는 이집트의 회사이며, 이집트의 법과 관습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협정이 조인되었고, 같은 해 오스만 투르크 제국 황제의 최종 공사 허가서 발급으로 운하가 마침내 개통되어 1869.11.17. 세계 각국의 국가원수·귀빈·명사가 초대된 가운데 성대한 개통식 개최
- ※ 베르디 오페라 <AIDA>는 동 운하 개통을 기념하여 제작



* 출처 : 이집트관광청, Egypt State Information Service

가. 고대 이집트(파라오 왕조)

1) 개요

- 기원전 8000년부터 나일강 유역에서 농경 생활을 시작하여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더불어 최초의 고대 문명을 탄생시켰으며, 기원전 3100년(메네스 왕이 최초로 남·북 이집트 통합, 멤피스에 도읍)부터 기원전 332년(알렉산더 대왕의 이집트 정복)까지 약 2,800년간 지속
- 고대 파라오 왕조는 30개 왕조가 흥망을 거듭하였으며 통상 고왕조 시기, 중왕조 시기, 신왕조 시기의 3기로 시대 구분
 - 고왕조 시기(B.C. 3100~2040, 약 1,000년간) : 10개의 왕조(1~10왕조)가 변천하는 기간 약 40명의 왕이 통치
 - 중왕조 시기(B.C. 2040~1567, 약 500년간) : 7개의 왕조(11~17왕조)가 변천하는 기간 약 30명의 왕이 통치
 - 신왕조 및 후기 왕조(B.C. 1567~332, 약 1,200년간) 시기 : 13개의 왕조(18~30왕조)가 변천하는 기간 약 80명의 왕이 통치

2) 고왕조 시기(B.C. 3100~2040)

- 1왕조의 메네스(Menes) 왕은 최초의 파라오로, 남·북 이집트 통합 후 멤피스(Memphis)에 도읍(B.C. 3100경)
- 3왕조 조저(Zoser) 왕은 공사장 임호테프(Imhotep)의 도움으로 사카라(Saqqarah) 지역에 최초의 피라미드(계단식)를 건축하고, 시나이 반도 정벌

- 4왕조 쿠푸 왕, 카프레 왕, 멘카우레 왕은 기자 피라미드 건축
- 5왕조 우나스 왕부터 피라미드에 문자 기록(Pyramid Text)을 남기기 시작
 - 5왕조 기간에 리비아, 누비아, 시나이 등을 정벌한 기록
 - 태양신 라(Ra)를 숭배한 기록 등
- 6왕조부터 왕권이 쇠퇴하여 7~10왕조 시기에는 지방 세력들이 활거

3) 중왕조 시기(B.C. 2040~1567)

- 11왕조 멘투호테프(Menthuhotep) 2세는 남·북 이집트를 재통합
- 12왕조는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국력을 신장
 - 세누세르트(Senusert) 3세는 지방 족벌들을 평정하고 강력한 중앙 집권제 확립
 - 12왕조 기간에 리비아, 누비아, 시나이, 시리아, 폰트 지역을 정벌
 - 12왕조 시대부터 왕과 왕위계승자 간 공동 통치(Co-Regency) 관행 발생
- 13~17왕조는 히소스 등 외적의 침입으로 쇠퇴기

4) 신왕조 및 후기 왕조 시기(B.C. 1567~332)

- 18왕조부터 국력이 다시 번성하여 동쪽으로 유프라테스강, 남쪽으로 수단 지역까지 지배
 - 핫셉수트 여왕은 테베(Thebes : 룩소르) 지역에 최초의 신전 건축
 - 투트모시스 3세(핫셉수트 여왕의 조카) 통치 기간에 최대 영토 확장
 - 아멘호테프 3세는 룩소르 신전, 멨논(Memnon) 거상 등 건축
 - 아멘호테프 4세는 아케타텐(Akhetaten, Amarnah) 지역으로 일시 천도 하고, 전통적 아문 신 숭배에서 벗어나 아텐(Aten) 신을 숭배(기존의 제사장 그룹과 갈등을 피하고 정치에도 무관심)

- 아멘호테프 4세와 왕비 네페르티티 사이에서 태어난 투탕카멘 왕이 요절하고, 그 뒤를 이은 아이(Ay) 왕도 단명함에 따라 호렘heb (Horemheb), 람세스 1세 등 장군 출신들이 왕위를 승계(18왕조 멸망)
- 19왕조는 국력을 정비하고, 신전 건축 등을 통해 고도의 문화 창달
 - 19왕조 세티 1세는 아시아 지역을 정벌하고, 아비도스(Abydos) 신전 등을 건축
 - 람세스 2세(세티 1세의 아들)는 히타이티(Hittites)의 침입을 격퇴(Kadesh 전투)하고, 아부심벨 신전 등을 건축
- 20왕조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함에 따라 왕권이 약해진 반면, 제사장들의 권한은 강화
- 22왕조에 이르러 왕권은 델타(Delta, 나일강 하류) 지역에만 미치고, 상이집트(나일강 상류)는 제사장들이 관할
- 25왕조 시기에 앗시리아(Assyria)의 침입을 받은 후 국력이 급격히 쇠퇴
- 27~30왕조 기간에는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전락
 - 페르시아 출신 파라오가 지배

나. 그리스·로마 시대

1) 프톨레미 왕조(B.C. 332~30)

- 알렉산더 대왕은 이집트 정복 후 프톨레미(Ptolemy) 장군을 이집트 총독으로 임명하고, 알렉산드리아에 새로운 수도 건설
 - 알렉산드리아는 헬레니즘 문명의 중심지로 발전
 - 파이윰(Fayyum)을 농업 중심지로 개발
 - 프톨레미 왕조의 해군은 지중해 및 홍해의 해상 활동 지배

- 프톨레미 왕조는 국가 통합 차원에서 파라오 왕조 시대의 건축 양식을 답습한 신전을 건축하고(Dendarah, Philae, Edfu 지역), 파라오 왕조 시대의 이집트 신들을 모방한 그리스 신화 도입

2) 로마 제국 시대(B.C. 30~A.D. 638)

- 로마 황제 옥타비우스가 로마 장군 안토니우스와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악티움 해전에서 물리치고, 이집트를 정복하여 로마의 속국으로 합병(B.C. 30)
 - 이집트는 로마의 식량 공급 기지 및 로마와 인도 간의 중계무역 장소 역할 수행
 - 필레(Philae), 덴다라(Dendarah), 에스나(Esna) 지역에 신전 건축
- 기독교의 유입으로 콥틱어 사용이 유행하고, 수도원 창설(전통 종교 몰락)
 - 콘스탄티우스 황제, 기독교 포교를 승인(313년)
 - 성 '마가'의 이집트 포교(AD 50년경)
- 이집트에 대한 지배권이 동로마제국(콘스탄티노플)으로 넘어간 후 리비아·누비아·페르시아 등의 침입이 5~6세기까지 지속

다. 이슬람 시대

1) 이슬람군의 이집트 정복(640~969)

- 칼리프(Khalif, 이슬람 수장) 우마르(Umar)의 명령에 따라 암르 이븐 알아스(Amr Ibn Alas)가 지휘하는 이슬람군이 동로마제국의 지배 하에 있던 이집트를 정복(640년)
- 이후 우마이야(Umayyay, 다마스쿠스) 왕조 및 압바스(Abbasid, 바그다드) 왕조 등으로부터 파견된 이슬람 총독이 이집트를 지배

- 이 기간에 많은 콥틱교도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아랍어가 콥틱어를 대체
- 툴룬(Tulun) 총독 시기에는 바그다드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반독립적 세력 형성(툴룬 왕조)

2) 파티마(Fatimah) 왕조의 이집트 지배(969~1171)

- 파티마 왕조는 예언자 모하메드의 사위인 알리(Ali, 예언자의 딸 파티마와 결혼)를 정통 칼리프로 인정하는 시아파 이슬람 왕조로서 수니파 우마이야와 압바스 왕조의 칼리프 승계에 도전하였으며, 969년 이집트를 정복
- 초기에는 파티마 왕조의 칼리프들이 직접 이집트를 통치하였으나, 후기에는 군 출신 총독을 파견
- 알렉산드리아에서 카이로로 천도

3) 아이유브(Ayyubid) 왕조(1171~1250)

- 이집트를 침입한 십자군에 대항하기 위해 셀주크 투르크의 술탄이 파견한 살라흐 앳딘(Salah Al Din)이 십자군을 물리친 후 이집트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
- 파티마 왕조를 폐지하고 압바스 왕조를 전통 칼리프 승계자로 인정 (시아파 척결)
- 십자군의 공격에 대해 카이로 주변에 시타델 축조(십자군은 Damietta, Mansurah 지역 점령)

4) 맘루크(Mamluk) 왕조(1250~1517)

- 아이유브 왕조는 십자군에 대항하기 위해 터키계 노예 출신인 맘루크족을 수비대로 활용했으나, 맘루크족의 반란으로 몰락(1250)
- 맘루크 장군 바이바르(Baybar, 후에 술탄직 승계)는 몽골군의 침입을

격퇴하고 십자군 세력, 아이유브 왕조 잔당, 아르메니아, 누비아 등을 정벌한 후 수니 이슬람의 보호자 역할 수행

- 맘루크 왕조 시대에는 터키어가 널리 사용되었으며, 내정은 불안하였으나 대외적 관계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체로 안정 유지

5) 오스만 투르크(Ottoman Turkey)의 지배(1517~1882)

- 오스만 왕조의 살림(Salim) 1세가 맘루크 왕조를 멸하고 이집트 정복(1517)
 - 오스만 왕조에서 파견한 총독 파샤(Pasha)가 이집트 지배(후기에는 군 출신 귀족 Bay들이 사병의 힘을 토대로 파샤의 권위에 도전)
 - 이집트는 문화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쇠퇴하였으나, 이슬람 종교 중심지로서의 중요성 확보

라. 근대 이후

1) 19세기의 변천

- 프랑스의 이집트 지배(1798~1801)
 - 나폴레옹의 이집트 정복(1798)
 - 프랑스 학자들의 ‘로제타석(Rosetta Stone)’ 발견(1799) 등 고고학적 유물과 유적 다수 발굴
- 이집트 근대 왕조 성립
 - 모하메드 알리(Muhammad Ali, 1769~1849)는 원래 프랑스의 이집트 침입에 대항하기 위하여 오스만 왕조에서 파견한 장군이었으나 이집트 정착 후 정치·군사·경제 개혁 단행 등 근대 이집트 건설의 기초를 닦고, 수단 정벌(1820), 팔레스타인 지역 및 아라비아 반도 파병 등 세력 확장

- 알리의 장손 이스마일(Ismail the Magnificent, 1863~1879)은 대규모 국토 개발계획(수에즈 운하·철도·통신·공장·관개수로 건설 등)을 추진함으로써 외채 누적(1875년 영국 정부의 수에즈 운하 주식 43% 매입)
- 1876년 외채 상황이 정지됨에 따라 공채정리위원회(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오스트리아)가 국가 재정을 관리(식민지화의 길)
- 영국의 군사 점령과 통치(1882~1952)
 - 1882년 영국군의 알렉산드리아 상륙(Arabi 등 민족주의 그룹이 주도한 알렉산드리아 반영 폭동 진압) 및 카이로 점령 이후 사실상 영국 총영사가 국정 운영
 - 1914년 영국 보호령 선포(1차 대전 중)
 - 와프드당(Wafd, Saad Azgloul 등이 주도)의 범이슬람주의, 입헌제 운동(1919년 혁명)
 - 1922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쟁취, 국제연맹 가입(1936년까지 영국의 실질적 지배 지속)

2) 독립 이후

- 2차 대전 당시 영국을 도와 연합군에 참전
 - 1942년 알라메이(Al Alamayn) 전투에서 독일군 침공 저지
- 1948년, 제1차 중동전쟁 참전
 - 이스라엘 독립국가 건설(1947년 유엔의 팔레스타인 분할 결의안)에 반대한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내전에 개입,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패배
- 1952년 나세르 중령 휘하의 자유장교단 혁명
 - 왕정 폐지, 이집트아랍공화국 건립
 - 기원전 341년 이래 약 2,300년간에 걸친 이민족 지배 종지부
- 1956년 나세르 대통령, 수에즈 운하 국유화

- 영국·프랑스 및 이스라엘의 이집트 공격으로 제2차 중동전쟁 발발, 유엔(미·소)의 중재로 휴전(아랍의 자존심 회복, 나세르 대통령은 아랍 민족주의의 영웅으로 부상)
- 1958년 이집트-시리아 아랍연방공화국 결성(1961년 시리아 탈퇴)
- 1967년 6월 전쟁(제3차 중동전쟁)
 - 소련의 지원을 받은 시리아·이집트·요르단 등이 군사동맹을 맺고 팔레스타인 지원, 이스라엘의 티란(Tiran) 항 봉쇄 조치 등을 취하자,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집트 등을 기습 공격
 -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 가자지구, 요르단 서안 및 골란고원 점령
- 1970년 사다트 대통령 취임(나세르 대통령이 지병으로 사망)
 - 친서방 온건 노선 추구
- 1973년 10월 전쟁(제4차 중동전쟁)
 - 시나이 반도 등 회복을 위해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으나 실패(이집트측은 승전 주장)
 - 이집트·이스라엘 평화협상의 계기 마련(아랍에 대한 서구 및 이스라엘의 인식 전환)
- 이집트·이스라엘 관계 정상화
 - 1978년 캠프데이비드 협정 체결(미국 중재)
 - 1979년 이집트·이스라엘 평화협정 체결
 - 1982년 시나이 반도에서 이스라엘군 철수 완료
- 1981.10월 무바라크 대통령 취임(사다트 대통령 피살)
 - 나세르의 아랍 민족주의와 사다트의 친서구주의의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중도주의 지향
- 1991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항, 걸프전 참전
 - 이집트·이스라엘 평화협정 체결 이래 이집트는 아랍권으로부터

소외당했으나, 걸프전 참전 계기 아랍의 중심국으로 재부상(1979년 평화협정 체결 당시 아랍연맹 본부를 이집트에서 튀니지로 옮겼으나, 1989년 아랍연맹 본부를 카이로로 다시 이전)

- 1997년 룩소르 테러사건 발생(외국인 58명 희생)
- 1999년 이집트 최대 이슬람 과격단체인 ‘감마 이슬라미야(Gamma Islamiya)’, 대정부 투쟁 종식 선언
- 1999.10월 무바라크 대통령 4선 당선(6년 임기)
- 2005.9월 무바라크 대통령 5선 당선
- 2011.1월 이집트 시민혁명
- 2011.2월 무바라크 대통령 하야
- 2012.6월 모하메드 모르시 대통령 취임
- 2013.6월 모하메드 모르시 대통령 축출 및 만수르(Mansour) 최고 헌법재판소장이 임시대통령직 수행
- 2014.6월 압델파타 알시시 대통령 취임
- 2015.3월 총선 실시
- 2018.3월 대선 실시
- 2018.6월 압델파타 알시시 집권 2기 출범
- 2019.4월 헌법 개정



가. 고대 이집트 종교

1) 고대 이집트 종교에 관한 기록

- 고왕조 시대 : 5~6왕조 시대의 피라미드 텍스트에 기록
- 중왕조 시대 : 목관·석관 등에 기록
- 신왕조 시대 : 파피루스에 「사자의 서」를 기록하여 시신과 함께 부장

2) 고대 이집트 신화

- 창조 신화 (Heliopolis 지역에서 숭배되는 9신)
 - 최초의 혼돈 상태(Nun)에서 땅이 생긴 뒤 태양신 아툼(Atum, Amun-Ra)이 나타났으며, 태양신으로부터 공기신(Shu)과 습기신(Tefunt)이 태어났고, 다시 이 두 신으로부터 토지신(Geb)과 하늘여신(Nut)이 탄생
 - 토지신과 하늘여신 사이에서 오시리스(Osiris), 세트(Seth), 이시스(Isis), 네프티스(Nephthys) 등 4형제 신이 탄생
- 투쟁 신화
 - 오시리스는 이집트에 최초로 문명을 도입한 신이었으나, 동생 세트가 살해
 - 오시리스의 여동생이자 아내인 이시스가 세트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끝에 오시리스의 시신을 찾아 저승의 신으로 부활시키고, 오시리스와 이시스 사이에서 태어난 호루스(Horus)는 세트와의 왕권 쟁탈전에서 결국 승리

3) 종교 의식

- 왕(Paraoh) 또는 제사장 주재로 매일 신전에서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 거행
 - 성직자는 제사 의식을 통해 악으로부터 신을 보호하는 역할 수행
 - 제사 의식을 통해 세상이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신념 소유
- 일반 대중들은 일상적인 제사 의식에는 참여할 수 없었으나, 질병 치료 등을 위해 신전 출입은 허용
- 각 신전은 1년에 몇 차례씩 고유의 축제 행사를 개최(나일강 범람 계기 등 농경생활과 관련)
 - 테베(룩소르)에서 거행된 오페트(Opet) 축제는 나일강 범람 익월에 카르낙 신전에서 룩소르 신전까지 아문 신이 무트와 콘수 신(테베의 수호신들)을 대동하고 행진하는 축제

4) 사후세계

- 오시리스 부활 신화 등의 영향으로 시신을 보존하기 위한 미라 수술이 왕족과 귀족들을 중심으로 유행
- 인간에게는 생명이 끊어져도 파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후세계에 대비, 무덤 속에 노예의 모형, 배, 식량, 집 모형 등을 함께 부장

5) 고대 이집트 주요 신

- 아문(Ra) : 태양신, 두 개의 깃털 달린 모자 착용
- 아누비스(Anubis) : 사자의 신, 재칼 머리를 가진 신
- 아텐(Aten) : 태양 원반신, 손 모양의 햇살을 비춤

- 하토르(Hathor) : 암소신
- 호루스(Horus) : 이승의 신, 매의 머리를 가진 신
오시리스와 이시스의 아들
- 이시스(Isis) : 사자를 보호하는 신, 왕조 모양의 모자 착용 오시리스의 아내
- 오시리스(Osiris) : 저승의 신, 원추형 왕관 착용, 이시스의 남편
- 몬투(Montu) : 테베의 전쟁신
- 쿤수(Khonsu) : 테베의 월신
- 무트(Mut) : 테베의 수호신, 아문의 아내
- 프타(Ptah) : 멤피스의 창조신

나. 콥트교

1) 기독교 포교

- 마가가 서기 50년경 알렉산드리아 근교 바우칼리스(Baucalis)에서 기독교 공동체 창설, 포교 활동 시작
 - 68년경부터 부활절 기념행사 거행
- 3세기 후반까지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기독교 교세 확장
 - 그노시즘(Gnosticism, 신비적 직관주의), 마니(Mani)교 등 이단적 종교에 대항하기 위하여 알렉산드리아에 교리문답 대학 설립(판테누스, 헤라클라스 등 기독교 이론가 배출)
 - 로마에서는 기독교 박해가 심했으나,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상대적으로 평온 유지

- 284년(콥틱 순교 원년)에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로마 황제로 즉위한 후, 이집트 지역을 점령하고 기독교를 체계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으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13년 밀라노 칙령을 발표, 종교의 자유 허용
 - 아타나시우스(Athansius)파 (삼위일체설 주장)와 아리우스(Arius)파 (예수의 신격 부인) 간의 종교재판에서 아타나시우스파가 정통으로 인정됨에 따라 아타나시우스파가 알렉산드리아 교구 관할

2) 수도원 문화 발생

- 서기 270년경 성 안토니우스(St. Antonius)가 최초로 홍해 연안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수도원 창시
 - 성 마카리우스(St. Makarius), 성 팔레몬(St. Palemon) 등은 나일 계곡 쪽에 수도원 설립
- 성 파코미우스(St. Pachomius) 이래 수도원 조직에 군대식 규율이 도입 되고, 노동 교육, 신에 대한 헌신 등을 사명으로 하는 수도원 생활 확립
 - 이집트에서 발생한 수도원 문화는 아시아·유럽·아프리카(에티오피아) 등지로 파급
- 성 세누트(Shenute)·테오필루스(Theophilus) 등은 이교도를 배척하고, 기독교를 수호하기 위해 폭력 행사 및 파괴 활동도 불사

3) 알렉산드리아와 콘스탄티노플 간의 종교 분쟁

- 알렉산드리아(예수의 인성보다 신성 강조)와 콘스탄티노플(예수의 인성과 신성 양면성 인정) 간에 예수의 신성 문제를 둘러싼 종교 분쟁 발생
 - 알렉산드리아의 크릴(Cyrl)과 콘스탄티노플의 네스토리우스(Nestorius) 간의 종교재판(431년)은 크릴이 승리(예수와 성모의 신성 강조)
 - 로마의 마르치아노(Marcian) 황제가 451년 종교재판에서 콘스탄티노플의 종교적 우위를 인정하고 알렉산드리아의 디오스코루스

- (Dioscorus) 대주교를 추방한 이래 알렉산드리아의 일체주의 (Monophysitism) 쇠퇴
-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유일한 종교로 인정하고 이교도와 일체주의 박해

4) 콥트 교회 조직

- 수장 : 알렉산드리아 교황(Pope)
 - 수도원 협의체에서 선출
 - 알렉산드리아 및 카이로 교구장 겸임
 - 원래 교구 본부는 알렉산드리아였으나 11세기에 카이로로 이전
- 교황을 정점으로 대주교(Archbishop, 해외 교구 관할), 주교(Bishop, 국내 교구 및 수도원 관할), 사제(Priest), 집사(Deacon) 신도(Reader) 등의 계층 조직으로 구성

다. 이슬람교

1) 예언자 모하메드의 일생

- 570년 메카(Mecca)에서 탄생, 삼촌 아부 탈립(Abu Talib) 밑에서 성장한 후 과부 하디자(Khadijah)와 결혼(2남4녀)
- 40세 되던 해의 라마단월(이슬람력 9월)에 히라(Hira) 산에서 기도하던 중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최초의 계시를 받고, 그 후 사람들에게 알라(신)의 메시지를 전달
 - 알라의 계시를 받은 지 12년째 되던 해, 예루살렘에서 승천 체험
- 포교 13년째 메카 지도층의 암살 기도를 피해 메디나(Medina)로 도피(Hijrah)하였으나, 그 뒤 메카로 다시 돌아와 카바(Kabah)의 우상들을 파괴하고 메카 및 아라비아 반도 사람들을 무슬림으로 개종시킴

- 히즈라(Hijrah) 이후 9년째 되던 해에 약 12만 명의 무슬림 신도들을 이끌고 성지 메카를 순례하였으며(Hajj), 그 이듬해(632) 사망
- 모하메드 사후 아부 바크르(Abu Bakr), 우마르(Umar), 우스만(Uthman), 알리(Ali) 등 제자들이 칼리프직을 승계하면서 이슬람을 전파 (북아프리카·아시아 지역 등)
- 위 4인이 이슬람 초기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4대 칼리프를 구성

2) 꾸란(Quran)의 주요 내용

- 예언자 모하메드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계시받은 알라의 메시지를 그대로 기록
 - 신앙편, 봉사편, 거래편, 도덕편, 처벌편 등 5개 장으로 구성
- 알라는 유일한 신이라는 점, 알라와 인간을 매개시켜 주는 천사는 알라의 충실한 종이라는 점, 꾸란은 알라의 계시를 가장 진실하게 수록했다는 점(기독교의 성경도 알라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나, 꾸란과 불일치하는 부분은 인간이 잘못된 내용을 수록했기 때문임), 인간은 사후세계에서 다시 부활하여 영생한다는 점, 모든 것은 신의 뜻을 따라 예정 조화된다는 점 등 여섯 가지에 대한 신앙이 필수적이라고 강조(신앙편)
- 이슬람 신자(무슬림)는 ①알라가 유일신이고 모하메드는 알라의 메신저임을 증언하고(신앙고백), ②하루에 5번 기도하며(예배), ③ 수입의 일부를 가난한 자를 돕는 데 쓰고(의무 회사), ④라마단월에 금식하고, ⑤ 메카로 성지순례하는 5대 의무를 수행(봉사편)
- 결혼, 상속, 상거래에 관한 꾸란의 규범을 기술(거래편)
- 이슬람 신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정서적 측면을 기술(도덕편)
-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 강조(처벌편)

- 이슬람의 법체계(Sharia)는 최고의 법인 꾸란, 순나(Sunnah, 예언자 모하메드의 언행), 이즈마(Ijma, 이슬람 학자들의 견해), 키야스(Qiyas, 유추해석) 등으로 구성되며, 동 법 규범 순서에 따라 적용

3) 이슬람 종교 조직

- 이슬람에는 성직자 제도가 없으며, 모스크(이슬람 사원) 예배는 연장자인 남자 또는 이슬람 교리에 밝은 남자가 인도
- 또한 이슬람교에서는 이슬람 교리에 충실한 사람들이 그룹(Sufi)을 형성하여 사회 현실에 참여하면서 이슬람 원리주의에 따라 사회 개혁을 추구하려는 전통 계승

발 간 등 록 번 호

11-1262000-000069-14

